JRI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 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유원희 · 진유라 · 서세진

발 간 사

제주밭담은 천년 이상 존재해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제주 전역에 걸쳐 흑룡만리(黑龍萬里)의 모습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제주밭담의 형성 역사와 기원 시점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판관 김구의 제주 재임시절(AD1234) 밭담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다툼을 해결하였다는 근거로 보아 밭담의 역사는 천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밭담은 식량보급과 안보의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주전통농업문화와 그 농업적 발달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농업자원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도 제주밭담농업문화의 세계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GIAHS)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제주적 자원 가치를 도출하여 차세대의 사회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농업시스템에 들어 있는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밭담의 농업적 기능과 가치, 제주농업문화의 우수성, 제주농업문화에 내재된 사회 및 문화 인식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주밭담농업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전과 활용방안도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신 유원희 박사님을 비롯하여 연구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에 애써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범위와 연구문제 ····· 5

Ⅱ. 이론적 배경 ····· 7

1. 제주밭담농업시스템과 유산적 가치 ····· 7

1-1. 유래와 역사성 ····· 7

1-2. 농업기능과 생활문화 ····· 9

1-3.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 ····· 15

2.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 25

2-1. 제주 세계유산의 사회적 인식 ····· 25

2-2. 제주밭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현황 ····· 30

Ⅲ. 연구방법 ····· 45

1. 연구방법 개요 ····· 45

2. 언론 빅데이터 분석 ····· 45

2-1. 언론 빅데이터로 바라 본 제주밭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45

3. 설문조사 ····· 61

3-1. 조사대상과 방법 ····· 61

3-2. 표본의 특성 ····· 61

3-3. 연구 분석 ····· 62

4. 전문가 인터뷰 ····· 68

4-1. 제주농민 인터뷰 ····· 69

4-2.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인터뷰 ····· 72

4-3.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 인터뷰 ····· 75

4-4. 제주밭담장인 인터뷰 ····· 79

4-5. 제주 문화/철학/사회 연구가 인터뷰 ····· 83

Ⅳ. 연구결과 ····· 87

Ⅴ. 결론 및 제언 ····· 92

1. 결론 ····· 92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94

부 록 ····· 95

1. 설문지 ····· 95

2. 자문의견서 ····· 97

3.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101

참고문헌 ····· 152

Abstract ····· 155

표 목차

〈표 Ⅱ-1〉 제주도와 한반도부 연평균 풍속 비교 ····· 7

〈표 Ⅱ-2〉 밭담 문헌기록 ····· 8

〈표 Ⅱ-3〉 돌담의 종류와 기능 ····· 11

〈표 Ⅱ-4〉 돌담문화 사례 ····· 12

〈표 Ⅱ-5〉 돌담 사진 ····· 12

〈표 Ⅱ-6〉 국내 FAO GIAHS SITE ····· 17

〈표 Ⅱ-7〉 농가 규모 상위 5개 시군구 현황(2017년~2018년) ····· 18

〈표 Ⅱ-8〉 제주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 18

〈표 Ⅲ-1〉 연도별 '제주밭담' 관련 키워드 발생 빈도 수 비교 분석표 ····· 60

〈표 Ⅲ-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62

〈표 Ⅲ-3〉 제주도민과 방문객 간의 제주밭담 매력성 T-test 분석결과 ····· 64

〈표 Ⅲ-4〉 제주도민과 방문객 간의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 T-test 분석결과 ····· 65

〈표 Ⅲ-5〉 제주밭담 매력성과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 67

〈표 Ⅲ-6〉 제주밭담에 대한 인식요인이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8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Ⅱ-1〉 GIAHS SITES LIST(2018년 6월 기준) ····· 16
〈그림 Ⅱ-2〉 토양 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요 재배작물 ····· 19
〈그림 Ⅱ-3〉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제주밭담 ····· 20
〈그림 Ⅱ-4〉 밭담경계 유형별 서식 동식물 ····· 21
〈그림 Ⅱ-5〉 토양상태별 밭담 유형 ····· 23
〈그림 Ⅱ-6〉 제주밭담의 사계 ····· 25
〈그림 Ⅱ-7〉 FAO GIAHS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개요 ····· 36

〈그림 Ⅲ-1〉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46
〈그림 Ⅲ-2〉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47
〈그림 Ⅲ-3〉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47
〈그림 Ⅲ-4〉 2014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48
〈그림 Ⅲ-5〉 2014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49
〈그림 Ⅲ-6〉 2014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49
〈그림 Ⅲ-7〉 2015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50
〈그림 Ⅲ-8〉 2015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51
〈그림 Ⅲ-9〉 2015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51
〈그림 Ⅲ-10〉 2016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52
〈그림 Ⅲ-11〉 2016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53
〈그림 Ⅲ-12〉 2016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53
〈그림 Ⅲ-13〉 2017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54
〈그림 Ⅲ-14〉 2017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55
〈그림 Ⅲ-15〉 2017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55
〈그림 Ⅲ-16〉 2018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56
〈그림 Ⅲ-17〉 2018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57
〈그림 Ⅲ-18〉 2018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57
〈그림 Ⅲ-19〉 2019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 58
〈그림 Ⅲ-20〉 2019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59
〈그림 Ⅲ-21〉 2019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59

연구요약

Ⅰ. 서 론

○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은 2014년 5개의 까다로운 등재 기준을 약 1년의 준비기간과 심사과정을 거치며 세계식량기구(FAO)가 등재한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주밭담농업시스템(밭담)이 보유한 우수한 식량안보기능과 생계지원 영향력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제주농업문화의 우수성을 부각하며 우수한 제주농업문화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있음. 둘째, FAO GIAHS 제주밭담에 내재된 제주전통농업문화와 축적된 농업기술, 전통지식을 제주사회의 기본철학과 연계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제주농업문화유산에 투영되는 선인들의 지혜를 세계농업유산시스템 지역들과 공유함으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제시하는 제주사회의 우수한 아이덴티티를 차세대 가치로 격상시키는 데 있음. 셋째,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 생활경관의 독창성, 생활 및 농업문화 가치에 제주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여 차세대가 보전할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농업경관 가치를 제시하며, 넷째,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내재된 제주의 삶과 문화, 가치체계 및 커뮤니티의 철학, 독창성을 제주 사회적 차원의 접근으로 세계농업유산시스템과 공유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FAO GIAHS 제주밭담에 내재된 제주전통농업문화, 축적된 농업기술, 전통지식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며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 생활경관의 독창성, 생활 및 농업문화 가치에 제주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여 차세대가 보전할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농업경관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언론보도자료 조사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주밭담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II. 이론적 배경

○ 고려시대 제주에 파견된 김구는 1234년에서 1239년에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시기에 경계로 인한 토지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담을 쌓게 한 것으로 보아 제주밭담의 역사는 적어도 800년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주밭담의 농업기능은 밭담의 축조목적인 (1)소유권 표시를 통한 소유권의 주장, (2)밭담의 기능을 활용하여 척박한 땅에서 농사 실행을 통해 식량확보와 생계유지, (3)어려운 현실 타파 및 가족의 생활환경개선, 빈곤타파를 돕고, (4)수눌음을 통한 이웃들과의 상생, (5)품앗이를 통한 이웃을 돕는 선민정신, (6)통행인과 통행로를 갖지 못한 이웃 농민들이 밭담을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한 배려 정신, (7)제주의 자연 속에 사람의 삶이 진행되며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을 보호한 생활문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밭담의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는 독립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역은 현재 21개국 52개 지역(2018년 6월 기준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청산도 구들장 논(2014년)', '제주밭담(2014년)', '하동 전통 차농업(2015년)', '금산 전통인삼농업시스템(2018)'이 지정되었으며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제주밭담과 관련된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차별성과 규모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농업유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토지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선정기준을 ▲식량안보, 생계수단기능(Food security, Livelihood) ▲전통농업지식, 기술(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농업생태환경(AgroBiodiversity) ▲문화, 지역사화의 역동성(Culture, community and dynamics) ▲농촌경관(Landscape)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은 (1)제주의 식량공급수단과 농민의 생계유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2)제주지역의 고유한 농업기술과 지식체계를

보유 (3)농업시스템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점 (4)제주밭담과 관련된 충분한 농업문화와 가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 (5)제주밭담으로 구성된 수려한 농업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유엔세계식량기구(UN FAO)가 추구하는 5가지의 깐깐한 심사규정을 통과하면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은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FAO GIAHS Criteria) 제주밭담농업시스템으로 등재되었음

Ⅲ. 연구방법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연도별 언론보도 검색 분석, 관계도 분석, 주요 기사 내용 분석 등이 포함된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제주도민과 제주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밭담의 매력성에 대한 인식 및 제주밭담의 전반적인 만족도(추천의도, 재방문의도, 경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총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인터뷰는 제주농민,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 제주밭담장인, 제주 문화 · 철학 · 사회 연구가 등 총15명을 선정하여 제주밭담의 주요 문화경관, 유산적 가치, 사회적 가치,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글로벌 공유활동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Ⅳ. 연구결과

○ 빅데이터 분석결과 20014년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청산도 구들장과 함께 등재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제주밭담"을 세계적 중요 농업 유산이라는 것을 각인시켰으며 2015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관광자원화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과 주민 참여 보전 전략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2018년에는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제주밭담활용 6차 산업화에 대한 진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2019년 상반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가 행정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고 있음. 반면, 2014년 제주밭담이 FAO 제주중요농업유산 등재된 해에는 제주밭담 연관 보도자료가 총8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 상반기 8건으로 최근 들어 제주밭담에 대한 언론보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거문오름에서 진행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회귀 분석결과 제주밭담의 가치인식,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인식이 제주밭담경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제주밭담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고 제주밭담에 대한 홍보를 이미 접해본 응답자일수록 밭담경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음.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밭담경관에 대한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밭담의 가치인식과 홍보인식을 강화하고 기능인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주농민은 밭담을 농업과 함께 해오던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인식하고 조상의 힘든 삶을 기억하며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유지의 기반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해설사의 경우 제주밭담의 경관성에 주목하여 정서적으로 주는 안정감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제주인의 삶과 연관시켰으며. 제주밭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의 경우 제주밭담의 농업 유산적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주도민이 제주밭담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제주밭담장인은 밭담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밭담과 돌담 간 기능 및 시공방식에 명확한 차이인식을 보였음. 제주 전반의 문화/철학/사회 연구가를 인터뷰한 결과 제주밭담을 관광자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시각적 프로그램, 입체영상제작 등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V. 제 언

○ 제주농업문화,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인식확산을 위해 제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첫째,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둘째, 제주밭담 축제의 기능을 확장하여 제주농업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제주밭담의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셋째, 제주밭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외국인 대상 제주밭담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등 글로벌 시민들의 접근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반이 필요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은 2014년 다섯 가지의 까다로운 등재 기준을 약 1년의 준비기간과 심사과정을 거치며 세계식량기구(FAO)가 등재한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이다.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등재 전 이미 제주는 UNESCO가 인정한 유일한 환경 분야의 다관왕지역이기도 하다.
- 제주의 최초 세계적 환경 등재는 2002년 생물권보존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s)을 시작으로 UNESCO Natural Heritage(2009),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2011)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녀(2016)와 칠머리당굿(2009) 등 2가지의 UNESCO 무형문화유산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다관왕 보유사실을 모두 비슷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모든 타이틀이 세계 최고의 위상을 지닌 UNESCO에서 파생된 다른 가지로 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가치와 심사기준이 작용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각기의 타이틀이 제시하는 의미와 가치, 목표하는 바는 무척 다르다.
- 무엇보다 환경관련 다관왕 등재사실은 압도적인 제주의 자연적, 문화적 컨텐츠 가치를 정확히 제시한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제주의 등재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주의 환경 가치를 제주도민이 직접 인정하고 현재의 수준으로 공유하기 까지는 2002년 첫 등재를 기준으로 관의 홍보,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져 장장 17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했고 이는 다수의 세계 유산에 대한 인지도를 다룬 논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다관왕 등재사실 인지도와 인지경로 비교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의 정확한 인지와 가치 인식의 흐름을 보면 제주의 우수한 자연을 모체로 민관합동의 동의와 공유 및 홍보활동이 지대한 결실을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차원의 노력에 새로운 개념의 유산 즉 FAO가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과 가난, 대를 잇는 농민의 암울한 미래를 보장하고 동시에 인류와 지역의

식량 확보와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며 농촌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역시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달했다. 2014년 등재된 FAO GIAHS 제주밭담은 이제 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도내차원에서 부단한 공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우리는 FAO GIAHS 제주밭담의 역사와 이 유산의 보호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현상과 인본주의의 흐름을 매슬로가 제시한 '인간의 5단계 욕구 이론(1943)'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 1단계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수면에 대한 욕구이고, 2단계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 감정적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3단계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단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4단계 존경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명예욕, 권력욕이 이에 해당한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설유경 외). 우리가 유산이란 가치를 허락하고 보존하려 애쓰는 건축물들 역시 건축된 시대의 주된 욕구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를 통해서 우린 FAO GIAHS 제주 밭담의 건축 당시의 시대적 욕구와 보호를 주장하는 2019년의 시대적 욕구와 동기를 이해하여 그 보존과 발전 방향을 정해야 한다.

-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의 등재 역사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으며 밭담의 기능 정도를 홍보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는 점에 본 연구는 제주밭담은 세계 각국의 FAO GIAHS 농업유산 시스템들과의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우리 제주의 농업문화유산 등재사실이나 자격만을 가지고 소통을 이을 순 없다고 믿는다. 제주인의 오랜 철학과 사회구조 형성과 배경, 민속자원의 농업지식과 전통 등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밭담농업유산의 다이나믹스들을 소통해야 한다.

- FAO GIAHS 제주밭담은 천 년 이상 우리 곁에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삶의 흔적이다. 제주밭담의 형성역사와 기원시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본 연구는 판관 김구의 제주 재임시절(AD1234) 밭담으로 농민들의 다툼을 해결하 였다는 근거와 농사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가 그 이론에 기초하여 제주밭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된 FAO GIAHS 즉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여 밭담의 형성역사시점을 천년으로 축소하여 기록한다. 밭담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던가? 이는 그야말로 척박한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조상들이 선택한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다. 이를 매슬로의 욕구론에 비해보면 당연히 피라미드의 제일 하부인 '생리적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혜였다. 해거티(1999)는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세계의 88개국의 역사의 흐름을 매슬로의 단계별 욕구 이론에 기준하여 검증 분석하였고 역사발전의 배경과 발전방향의 흐름 배경에 인간의 욕구 즉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의 욕구와 동기가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매슬로 이론의 4단계 혹은 5단계에 해당되는 교육의 필요

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는 서지(1986)이 제시한 국가발전 방향에 매슬로의 욕구이론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이론과도 동일한 배경이다(Michael R. Hagerty, 1999, M.Joseph Sirgy, 1986).

- FAO GIAHS 제주밭담의 단순 인지도차원을 넘어 우리 제주인의 철학과 지성, 지혜 그리고 우수한 사회자원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이론을 검토 확인하여 또 다른 제주의 가치관으로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또한 이론 검증을 위한 진행으로 농민, 문화 및 밭담 해설사, 밭담장인, 학자, 지역사회지도자, 농업유산관계자들의 연관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제주밭담의 정체성과 제주농업문화유산의 가치를 진단한 글로벌차원의 홍보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밭담농업유산은 경관과 문화위주의 자연유산이 아닌 차원에서 즉 사람의 역사가 진화하고 농업의 다이내믹스가 지켜져 내려온 그 농업의 역사와 문화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제주사회 인식을 확산한 후 세계적 교류가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보전과 발전을 논하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이며 어떤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흔한 여행과 제주를 찾는 연 1400만명(제주관광공사) 이상의 방문객의 여행동기를 이해하면 된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76% 이상이 제주의 경관을 여행하고 방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며 92%가 개별관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여 제주의 이질성과 문화의 독특함을 경험하고자 방문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역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점이다(제주관광공사, 2017).

- 누가 이런 유형의 관광을 선택하는가? 문화관광이란 장르에서 나온 정의는 본인의 문화와 다른 방문지 문화의 이질성을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관광의 동기가 되고 있다(Reisinger 1994). 문화관광의 동기와 매슬로의 욕구론을 병합하면 자아실현을 원하는 적어도 5단계의 4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통해 알고 싶은 욕구와 동기를 '교육'이라는 관광상품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주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육의 확산과도 의미가 동일한 것이다.

- 그런 배경으로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제도, FAO GIAHS 제주밭담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인식의 흐름과 변화를 비교한 논문연구를 통해 제주의 가치인식과 트루아이덴티디 정착력이 확산될 필요성은 제주의 첫 등재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 차원, 스테이크홀더 등 모두 제주의 천혜환경을 지키고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의 얼과 철학, 생활문화와 철학의 공감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관광이 주요산업인 제주도는 양적인 성장지향에서 질적 성장 동시 추구를 꿈꾸는 시점에 직면해 있고 제주는 당연히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발전을 위해 지역정서와 문화의 유지

및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세계차원에서 성공적인 다양한 유산활용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과 주체의식을 확인하고 제주의 농업유산에 그 철학적 가치와 정체성을 포함하여 공유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제주의 독창적인 밭담경관과 농업기능에 대한 세계인들의 궁금증과 매력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 바이다. 이에 제주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FAO GIAHS 제주밭담의 정확한 내용을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연구를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여 후대의 연구기반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등재가 갖는 의미는 제주의 지난 오랜 세월 제주인이 지켜낸 제주의 삶과 문화, 생활사가 전 세계적인 감동을 이끌어냈고 또한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 세계적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농민의 농업지식, 기술, 농업문화와 삶, 가치체계, 경관이란 복합적 구성요소가 어우러져 제주농업 천년의 역사를 지켜냈다.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화산회토를 이용한 농업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농업적 자연환경의 가치와 그 자연환경의 가치 속에 자리한 제주밭담의 경관, 제주농업의 역사와 철학, 문화, 생활, 농업지식과 지역 가치를 좀 더 쉽고 정확히 수립하여 도내적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그 가치를 제주와 해외까지 공유한다면 제주의 사회과학적 가치가 더욱 한층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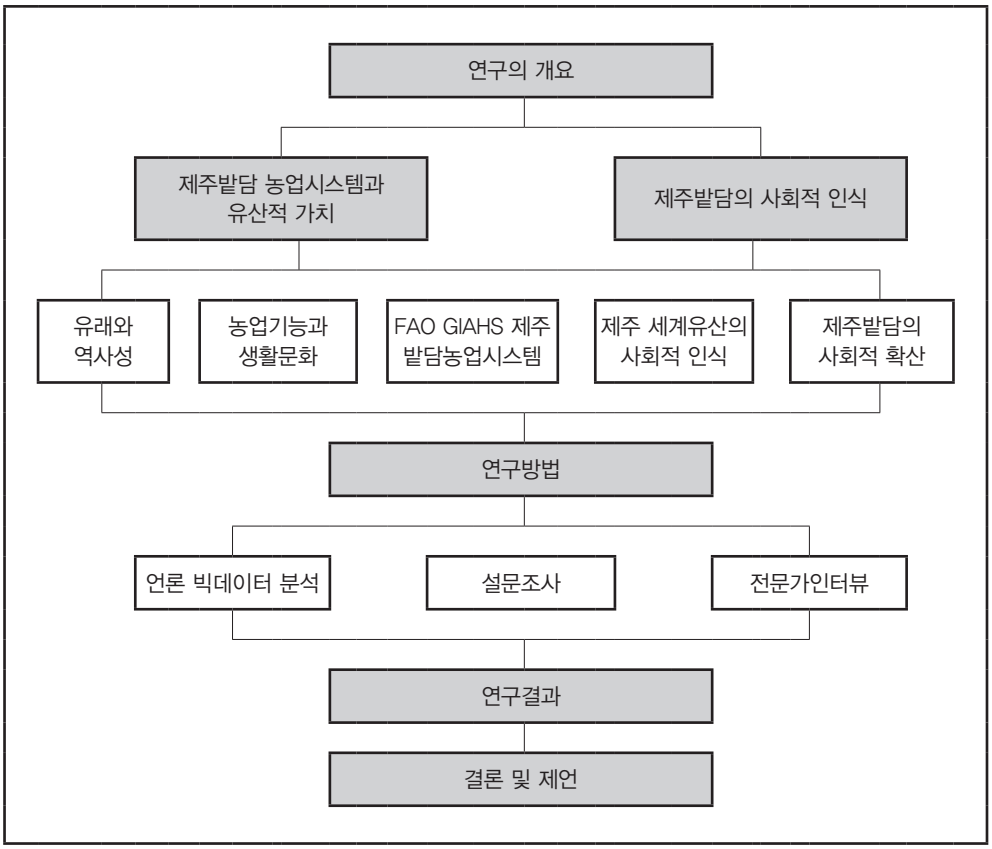
- 본 과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계식량안보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제주밭담농업시스템(밭담)은 우수한 식량안보기능과 생계지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능과 영향력의 농업적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제주농업문화의 우수성을 부각하며 더 나아가 우수한 제주농업문화의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내재된 가치의 제주적 자원 가치를 도출한다.
- 둘째, FAO GIAHS 제주밭담에 내재된 제주전통농업문화와 축적된 농업기술, 전통지식을 제주사회의 기본철학과 연계하여 체계적 배경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제주농업문화유산에 투영되는 선인들의 지혜를 세계농업유산시스템 지역들과 공유함으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제시하는 제주사회의 우수한 아이덴티티를 차세대 가치로 격상한다.

- 셋째,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 생활경관의 독창성, 생활 및 농업문화 가치에 제주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여 차세대가 보전할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농업경관 가치를 제시한다.
- 넷째,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내재된 제주의 삶과 문화, 가치체계 및 커뮤니티의 철학, 독창성을 제주 사회적 차원의 접근으로 세계농업유산시스템과 공유한다.

3. 연구범위와 연구문제

- FAO GIAHS 제주밭담이 보유한 우수한 식량안보기능과 생계 지원 영향력을 확인한다. 또한 FAO GIAHS 제주밭담의 농업적 기능과 가치, 의미를 다양한 자료들로 확인하여 제주농업문화의 우수성 부각. 나아가 우수한 제주농업문화에 내재된 가치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주 사회 구성요소들에 대한 배경을 문헌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도출한다.
- FAO GIAHS 제주밭담에 내재된 제주전통농업문화, 축적된 농업기술, 전통지식을 제주사회와 연계하여 체계적 배경으로 정리한다. 활용도구는 구술자료 확인을 포함하며 제주학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제주농업문화유산에 투영되는 선인들의 지혜를 세계농업유산시스템 지역들과 공유함으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제시하는 제주사회의 우수한 아이덴티티를 차세대가 품을 수 있는 가치로 격상한다.
-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 생활경관의 독창성, 생활 및 농업문화 가치에 제주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여 차세대가 보전할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농업경관 가치를 제시한다. 즉, 문헌연구들에 기초한 양적 조사 구조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제주밭담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언론에 나타난 동향을 확인한다.
-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한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내재된 제주의 삶과 문화, 가치체계 및 커뮤니티의 철학, 독창성을 제주 사회적 차원의 접근으로 세계농업유산시스템과 공유. 농업유산지정 후 관광자원화로 연결되어 제주농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연구의 개요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유산적 가치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유래와 역사성
농업기능과 생활문화
FAO GIAHS 제주 밭담농업시스템
제주 세계유산의 사회적 인식
제주밭담의 사회적 확산
연구방법
언론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인터뷰
연구결과
결론 및 제언

Ⅱ. 이론적 배경

1. 제주밭담농업시스템과 유산적 가치

1-1. 유래와 역사성

- 제주의 세계적인 환경과 경관, 문화는 이미 유네스코의 5대 타이틀로 객관성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화산섬의 자연조건은 섬주민의 생존을 위한 농업환경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의 농업문화가 보존, 지속되어야 하는 또 다른 명제이기도 하다.
- 제주 섬은 육지부에 비해 바람도 세고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들이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단순히 화산회토 농토라고 하기엔 너무도 빈약한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선조들의 농업지혜가 자료의 빈약함으로 충분히 재현될 수 없음이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의 농업은 조용히 바람결에 흔들리는 보리밭의 부드러운 물결처럼 아직도 온화하고 조용하게 다양한 농업문화의 형태 속에서 전해 오고 있다.
- 제주의 밭담중심의 농업문화와 기록들로 밭담의 유래와 역사성을 연결하는 목적은 밭담을 중심으로 찬란한 생존의 역사를 이 땅에 묻은 선조농민의 지혜와 문화를 널리 알려 열악한 환경을 최고의 축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 선조의 삶과 도전의 가치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표 Ⅱ-1〉 제주도와 한반도부 연평균 풍속 비교

구분	서울	속초	대전	광주	목포	부산	대구	울릉도	제주
평균풍속(m/s)	2.3	2.8	1.9	2.1	3.9	3.7	2.7	3.7	4.2

자료 :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2013)

- 제주 섬에는 탐라시대(AD 1~1105) 초기에 이미 화전 농업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주시 삼양동 마을 유적에서 발굴된 불에 탄 콩, 보리 등의 곡물과 숫돌, 갈판, 석부를 비롯하여 곽지리 패총에선 패도가 발굴되었고, 패촉, 패도, 숫돌, 갈돌 등이 김녕의 궤네기 동굴에서 역시 발굴되었다. 또한 고내리 지역에서 발굴된 철 낫, 콩, 보리 등과 종달리 패총에서 발굴된 손칼, 숫돌, 갈돌, 콩, 보리 등의 곡물들이 탐라국 시대 이후의 농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13,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헌기록으로는 1234년(고려시대) 제주에 파견된 판관 김 구가 토지 경계를 두고 발생되는 많은 다툼을 보고 돌담을 쌓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농업의 발생은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었음을 고문헌을 통해 유추할 수도 있다.
- 현재까지 총 10개의 밭담관련 문헌이 확인되었고 주로 제주에 파견된 관리, 외국 지리학자와 제주의 선비 층이 밭담의 유래, 축조과정, 주요 기능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본 연구는 밭담의 가치와 교육 공유의 접근 방법에 목적을 두는 이유로 각 문헌의 밭담내용 비교는 향후 연구로 제안하며, 다만 밭담의 유래와 역사성 자체의 근거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 밭담은 밭과 밭 사이에 위치한 돌담으로 경계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풍의 역할을 한다. 제주도민이 경작을 시작하면서 경작지 내에 존재하는 돌은 경작에 걸림돌이 되었다. 방해요소인 돌을 치우고 밭과 밭 사이 경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밭담이다(Ko et al., 2009).

〈표 Ⅱ-2〉 밭담 문헌기록

문헌	저자	연대	유래	축조과정	기능		
					경계	우마방지	토양작물보호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홍언필	1530	o		o		
남명소승	임제	1577~78				o	
남사록	김상헌	1601		o			
탐라지	이원진	1653	o		o		
남천록	김성구	1676		o		o	
남사일록	이증	1679				o	
남환박물	이형상	1704	o			o	
탐라지초본	이원조	19세기	o	o		o	
KOREA	Hermann Lautensach	1945		o		o	o
증보탐라지	담수계	1954	o			o	o

자료 :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2013)

- 고려시대 제주에 파견된 김구는 1234년에서 1239년에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시기에 경계로 인한 토지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담을 쌓게 한 것으로 보아 제주밭담의 역사는 적어도 800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그전에 농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제주밭담의 역사는 천년이상의 삶의 지혜를 안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1-2. 농업기능과 생활문화

- 밭담은 화산섬 제주도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자연스레 농업의 형성과정에서 진화한 제주의 독특한 농경문화이며 제주 밭담의 길이는 22,000 키로미터 이상으로 추정(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되어 있다. 돌이 많은 제주섬의 특성상 생활문화 역시 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 현무암이 밭담으로 형성된 결과에서 빚어지는 농업적 발달요소를 통해 밭담의 농업기능을 볼 수 있다면, 제주인들의 의식구조에서 어떤 형태의 밭이 빚어지고 생활 속 편의가 추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주밭담을 통한 생활문화의 발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밭담의 기능과 생활문화는 함께 존재하며 밭담의 형태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밭담의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밭담은 제주의 화산석 현무암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을 두르고 있는 돌담이면서 농업적 기능면에선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 우선 다양한 형태의 밭담은 소유자의 소유부분에 대한 경계를 구분한다. 제주 밭담의 경관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모자이크 형태의 밭담들이 바로 그 한 줄로 쌓아진 밭담으로 인해 소유주가 표시되는 것이다. 그 농지들 중엔 통로나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아예 없는 농지를 볼 수 있는데 돌랭이밭 혹은 맹지라고 부른다. 돌랭이밭의 기원은 아마도 밭이 넓으면 바람의 순화작업이 어려워 작은 면적으로 줄여서 농업의 수월성을 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 밭담은 거센 바람을 순화시켜 화산회토 지역의 농사를 가능케 하고, 토질과 지형의 보온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세찬 비로 인한 토양유실을 막고 동시에 구릉지 형태의 제주지질 상태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기도 하면서 척박한 화산섬의 농업을 가능케 하고 농업문화를 보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밭담의 형성으로 우마의 출입 제한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 지역의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도 하였으니 사실 밭담의 기능만으로도 선조들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이다.
- 또한 밭담은 축조의도에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주의 풍광을 조성하고 사시사철 다른 경관을 조성하여 흑룡만리를 조성하였다. 이는 나아가 제주밭담과 돌담 울타리 속에 어떤 독특한 제주의 생활문화와 농경문화가 살아 있는지 많은 연구를 발생시켰고 이제 2014년 유엔세계식량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UN FAO GIAHS) 그 가치를 등재하게 된 것이다(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 밭담은 지형과 지역, 사용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밭담은 외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밭담의 다양한 농업기능과 그에 관련된 생활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밭담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 할 수 있다.
- '외담'은 한 줄로 쌓인 담을 지칭하며 50cm정도의 폭으로 약 1미터 미만의 높이(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라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밭담의 높이는 최저 30~40cm부터 시작하여 최고 60~70cm 미만의 높이로 평균 50cm내외라고 말할 수 있다(임정우, 2018). 제주도 대부분의 밭담은 외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잇담'은 외담의 형태가 큰 면적의 밭에서는 밭담 한 줄로 센 바람에 대항하여 밭작물 전체를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지 사이사이에 배치한 외담을 일컫는다. 사잇담은 대부분 50cm 정도의 낮은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임정우, 2018).
- '겹담'은 50~130cm정도의 폭을 유지하며 두 줄 이상으로 쌓여진 담으로(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낮게는 70~80cm, 그러나 120cm의 높이까지도 쌓여 있다(임정우, 2018).
- 한편 잣담은 큰돌 사이에 작은 돌을 채워 넣어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한 유형으로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어 '잣길'이라 하며, 맹지(도로 연결이 없는 땅)를 드나들어야 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뜻이 담긴 길이다(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 '잡굽담'은 다른 밭담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바로 밑 부분에는 작은 돌을 쌓고 윗부분에 큰 돌을 올려 쌓은 독특한 밭담구조를 말하며 경작지에서 나온 다양한 크기의 돌을 처리한 지혜를 볼 수 있다(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임정우(2018)에 의하면 잡굽담은 인근 땅과의 지형 높낮이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부분 100cm 높이로 구성되어 있음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제주 돌담의 유형 중에는 제주인들의 독특한 매장문화를 알 수 있는 담도 존재한다. 바로 산담으로 조성 된 묘 주변을 돌담으로 두르는데 묘를 '산'이라 부르는 제주어에 담을 둘렀다하여 산담으로 부르며 이는 제주도 목축문화의 영향력이 작용된 것으로 오름 자락이나 농경지 내에 자리한 경우가 많으며 아주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담은 멀리서도 아름다운 경관이면서 망자의 영혼이 사는 집으로 인정받으며 산담을 둘러 경계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우마 침입을 차단하고 산불이 묘지까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병충해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 환해장성은 원담, 불턱과 더불어 해안가에 형성된 담 시스템이다. 그 중 환해장성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방어하는 목적으로 쌓은 담으로 해안을 돌아가며 쌓은 긴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원담 혹은 갯담은 한반도의 '독살' 과 같은 기능의 담이다. 모든 담들과 달리 바닷가 해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물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전통 어획시스템의 일부로 밀물 때 따라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시 미처 원담의 높이를 넘지 못하고 바닷물 밖에 쳐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담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시스템이다.

■ 또한 불턱은 해안가 돌로 쌓아진 해녀들의 탈의장 및 공동체 운영공간역할을 하는 독특한 돌문화이다. 사방이 현무암의 검은 돌로 뒤덮인 제주 해변에서 바로 그 돌을 이용해 탈의공간을 짓고 모닥불을 지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블턱에서 해녀들은 조업이야기, 커뮤니티 논의, 지역경조사 등 많은 논의들이 진행된 공간이기도 하다.

■ 우영팟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집집마다 채소를 가꾸는 텃밭으로 우영이라 부르며 집 안의 작은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우영을 두르고 있는 담은 또 다른 돌담 혹은 밭담의 형식을 띄우고 있다. 대부분 낮은 돌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도 밭농업의 표본이 각 가정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형식이다.

■ 주요 돌담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Ⅱ-3〉 돌담의 종류와 기능

돌담종류			위치(장소)	기 능	형태
택지 내부/입구		울(집)담	택지 가장자리	바람/시선차단	외담
		올렛담	마을길택지 입구	바람/시선차단	외담
		우영담	텃밭 가장자리	경계선, 바람차단	외담
		통싯담	화장실 가장자리	시선차단, 돼지보호, 오물누출차단	외담
택지외부	마을내외부	밭담	경작지 가장자리	경계, 우마/바람차단 (작물보호, 침식방지)	외담(일부 겹담)
		산담	묘지 가장자리	경계선, 우마차단, 산불방지	외담, 겹담
		성담	성곽 가장자리, 해안지구	행정의 효율성, 방어	겹담
		잣성	중산간/산간 목장 가장자리	목장경계, 우마 분실 방지	외담, 겹담
	해안가	불턱담	해녀탈의장 가장자리	바람/시선차단	외담(일부 겹담)
		원담	해안가 연안	어류포획	외담, 겹담
		용천수 돌담	용천수 가장자리	물보호, 시선차단	외담, 겹담
		봉천수돌담	봉천수 가장자리	물보호, 시선차단	외담, 겹담
		포구용 돌담	포구 내부 및 가장자리	칸 구획/바람차단, 어로활동	외담, 겹담

■ 이 외에도 다양한 돌담문화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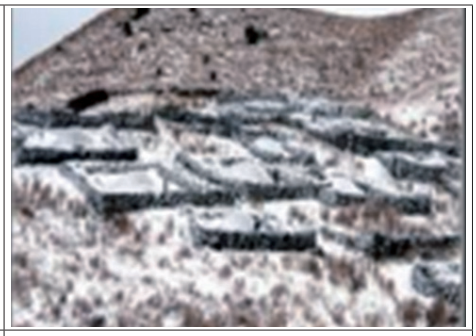
〈표 Ⅱ-4〉 돌담문화 사례

용도구분		구체적 사례
일반	축조	집(울)담, 올렛담, 우영(채전)담, 축담(벽체), 통싯담, 쉼팡(댓돌, 잣멘디), 물팡(팡돌), 눌굽, 장항굽, 구둘돌, 불턱남(해녀탈의장), 정주석(먹), 포구 축조용 돌담, 봉천수/용천수 보호용 돌담 등
	생산	밭담, 잣담, 원(갯)담, 돗도고리, 돌구시, 돌테, 돌바퀴, 봉돌(낚시용 추) 닻돌, 연자마(웃돌, 알돌), 숯굽궤, 곰돌, 머들 등
	생활도구	돌화로, 봉덕, 소줏돌, 갈돌, 솟덕, 돌등잔(등경돌), 물확(빨래확), 물통, 돌세면기, 디딜팡, 정레.풀레(맷돌), 돌방아, 돌절구, 돌확, 약레, 기름틀 등
	신앙생활	지석묘(고인돌), 석탑, 산담,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방사탑, 돌하르방, 돌미륵, 칠성돌, 상돌, 신당돌담 등
	비석	공덕비, 송덕비, 추모비, 청송비, 불망비, 열녀비, 효녀비, 효자비, 건립 기념비 등
	놀이	공깃돌, 듬돌(뚱돌), 사방치기돌, 비석치기돌 등
특수	통신.방어	방문석, 도대불(돌등대). 연대, 성담(3읍성 9진성. 환해장성, 43성담 등)
	경계	목장 경계 돌담(잣성,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시.군 경계(과거 제주시 조천읍) 돌담, 마을 경계(성읍 가시리) 돌담 등

자료 :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2013)

〈표 Ⅱ-5〉 돌담 사진

외담	사잇담
겹담	잣담

	
잡굿담	산담
원담	우영팟
환해장성	불턱
울담	통시담

자료 :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2013)

- 제주밭담과 관련된 제주의 생활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밭담의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밭담은 우선 화산섬 제주의 형성과정을 담고 있는 교과서이고 기초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주도 섬은 2백만 년 전에 첫 용암분출을 시작으로 태동을 시작했고 거듭된 수성화산활동으로 발생한 화산체들이 파도에 깎이면서 해양퇴적물과 섞이며 퇴적층을 이루었다. 오랜 기간 지속적인 용암 분출을 통해 더 넓은 용암지대가 형성되며 30만 년 전을 기점으로 분출된 용암이 쌓이면서 방패형태의 화산체를 이루었다. 16만 년 전 화산체 꼭대기에서 용암 분출이 발생했고 용암돔이 탄생하였다. 25000년 전 용암돔 내의 화산활동으로 분화구가 생겨나 섬 중앙에서 섬 전체를 품은 지금의 모습이 빚어졌다. 최소 2백만 년 동안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섬은 삼다도라고도 불리며 이 섬에 많은 세 가지는 바람, 여자 그리고 돌에서 나타나듯 이 섬은 까만 화산암 즉 현무암으로 가득한 섬이다. 당연히 돌을 이용한 생활문화와 다양한 돌을 활용한 교제와 교류의 긴 역사가 존재하는 배경이 여기에 존재한다.

- 2백만 년 이전에 첫 태동을 시작한 돌의 섬, 화산섬 제주 전역에 걸쳐 흑룡만리의 모습으로 구성된 제주 밭담의 역사를 우린 겨우 천년의 역사로 소개하고 있다(2013, 제주밭담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제주 밭담의 가치를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는 연구진의 높은 기여도에 근거하여 그나마 천년정도의 역사라도 인정을 받은 결과이다.

- 그러나 유구한 제주섬의 탄생역사에 비추어 볼 때 밭담의 출현 시점은 훨씬 더 오래 전의 일로 보인다. 거의 구술로 전해오는 탐라국의 역사와 적은 양의 기록으로 밭담의 객관적 역사성을 입증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또한 밭담의 가치와 문화, 기능적인 내용들이 입증을 거치는 실증 연구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밭담의 기능을 선인들의 생활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그 속에 존재한 가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린 제주밭담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함께 추적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가 현재 척박한 입지에서 생존을 위해 버티는 세계 곳곳의 지역들과 공유함으로 제주정신의 글로벌한 승화를 실현하는 것은 제주후손에겐 당연한 의무이다.

- 이 장을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제주밭담의 농업기능은 밭담의 축조목적인 (1)소유권 표시를 통한 소유권의 주장, (2)밭담의 기능을 활용하여 척박한 땅에서 농사 실행을 통해 식량확보와 생계유지를 진행함과 동시에 (3)어려운 현실 타파 및 가족의 생활환경개선, 빈곤타파를 돕고 더 나아가 (4)수놀음을 통한 이웃들과의 상생, (5)품앗이를 통한 이웃을 돕는 선민정신, (6)통행인과 통행로를 갖지 못한 이웃 농민들이 밭담을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한 배려 정신과 (7)제주의 자연속에 사람의 삶이 진행되며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을 보호한 생활문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밭담의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는 독립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 FAO GIAHS 제주밭담농업시스템

- 정명철외(2014)는 농촌 무형유산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세계농업유산제도를 진단한 바 있다. 2002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독창적인 농업문화, 인류진화시스템,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시스템의 보존과 순응적 관리(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추진하였고 GIAHS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4년에는 생태문화경관의 중요성을 논하였으며, 2008년에는 천연자원의 사용 · 관리 · 규제에 관한 지침서를 제안하였고2) GIAHS의 농업유산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2년에는 농업유산 시스템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책과 법을 통한 GIAHS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GIAHS(Gr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와 환경과의 상호적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는 훌륭한 토지시스템과 경관"을 일컫는다. GIAHS는 인간 공동체와 영토, 문화 · 농업경관, 생물 물리학적 환경, 폭넓은 사회 환경 간에 형성된 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인간과 그들의 생계활동은 환경이 가진 잠재력과 제약사항에 지속적으로 적용해왔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경관과 생물학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왔다. 수많은 GIAHS지역의 복원력은 식량안보와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후 변동성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신기술, 사회적 ·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적응되어 왔다.

- GIAHS의 목표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동적보존, 지속가능한 관리, 생존력 제고를 통해 세계적 · 국가적 · 지역적 혜택을 증가시켜 GIAHS와 관련된 경관, 농업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국가적 인식제고
  2. GIAHS의 보존 · 관리, 소득창출,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현지 농가와 현지 ·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
  3. GIAHS의 보존, 진화적 적응, 생존력 지원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 및 인센티브 환경 촉진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역은 현재 21개국 52개 지역(2018년 6월 기준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청산도 구들장 논(2014년)', '제주밭담(2014년)', '하동 전통 차농업(2015년)', '금산 전통인삼농업시스템(2018)'이 지정되었다.

-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제주밭담과 관련된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차별성과 규모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민들은 지천에 깔려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당연시 여겼던 제주밭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농업유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토지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선정기준을 ▲식량안보, 생계수단기능(Food security, Livelihood) ▲전통농업지식, 기술(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농업생태환경(AgroBiodiversity) ▲ 문화, 지역사화의 역동성(Culture, community and dynamics) ▲농촌경관(Landscape)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밭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유산 가치를 논의해볼 수 있다.

〈그림 Ⅱ-1〉 GIAHS SITES LIST(2018년 6월 기준)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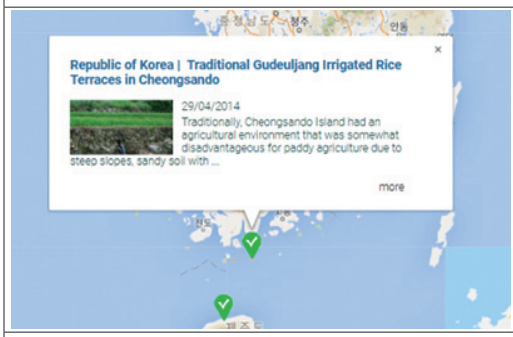
GIAHS DESIGNATED SITES

6 July 2018

Countries	Name of sites/systems	Year
Algeria	1. Ghout System (Oases of the Maghreb)	2011
Bangladesh	2. Floating Garden Agricultural Practices	2015
Chile	3. Chiloé Agriculture	2011
China	4. Rice Fish Culture	2005
	5. 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2010
	6. Hani Rice Terraces	2010
	7. Dong's Rice Fish Duck System	2011
	8. Pu'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2012
	9. Aohan Dryland Farming System	2012
	10. Kuajishan Ancient Chinese Torreya	2013
	11. Urban Agricultural Heritage – Xuanhua Grape Garden	2013
	12. Jiaxian Traditional Chinese Date Gardens	2014
	13. Xinghua Duotian Agrosystem	2014
	14. Fuzhou Jasmine and Tea Culture System	2014
	15. Diebu Zhagana Agriculture-Forestry-Animal Husbandry Composite System	2017
	16. Zhejiang Huzhou Mulberry-dyke & Fish-pond System	2017
	17. Traditional Mulberry System in Xiajin's Ancient Yellow River Course	2018
	18. Rice Terraces in Southern Mountainous and Hilly Areas, China	2018
Egypt	19. Dates production System in Siwa Oasis	2016
India	20. Saffron Heritage of Kashmir	2011
	21. Koraput Traditional Agriculture	2012
	22. 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2013
Iran	23. Qanat Irrigated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ashan	2014
Italy	24. Olive groves of the slopes between Assisi and Spoleto	2018
Japan	25. Noto's Satoyama and Satoumi	2011
	26.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2011
	27. Managing Aso Grassland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2013
	28. Traditional Tea-grass Integrated System in Shizuoka	2013
	29. 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2013
	30. Ayu of the Nagara River System	2015
	31. Minabe-Tanabe Ume System	2015
	32. Takachihogo-Shiibayama Mountainous Agriculture and Forestry System	2015
	33. Osaki Kodo's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paddy agriculture	2017
	34. 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2018
	35. Traditional WASABI Cultivation in Shizuoka	2018
Kenya	36. 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2011
Mexico	37. Chinampas Agricultural System in Mexico City	2017
Morocco	38. 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Oases of the Maghreb)	2011
Peru	39. Andean Agriculture	2011
Philippines	40. Ifugao Rice Terraces	2011
Portugal	41. Barroso Agro-Sylvo-Pastral System	2018
Republic of Korea	42. Traditional Gudeuljang Irrigated Rice Terraces in Cheongsando	2014
	43.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2014
	44. Traditional Hadong Tea Agrosystem in Hwagae-myeon	2017
	45. Geumsan Traditional Ginseng Agricultural System	2018
Spain	46. Malaga Raisin Production System in Axarquia	2017
	47. Salt production system of Añana	2017
Sri Lanka	48. The Cascaded Tank-Village System in the Dry Zone of Sri Lanka	2017
Tanzania	49. 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2011
	50. Shimbu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2011
Tunisia	51. Gafsa Oases (Oases of the Maghreb)	2011
UAE	52. Al Ain and Liwa Historical Date Palm Oases	2015

〈표 Ⅱ-6〉 국내 FAO GIAHS SITE

제주밭담농업시스템(2014)



청산도 구들장 논(2014)

하동 전통차 농업(2017)

금산 전통인삼농업시스템(2018)

1-3-1. Food security, Livelihood(식량안보, 생계수단기능)

■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제주 제주시(1만8천 가구), 경북 경주시(1만 6천 가구), 충북 청주시(1만 6천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7〉 농가 규모 상위 5개 시군구 현황(2017년~2018년)

(단위 : 천가구)

순 위	2017년		2018년	
1	제주 제주시	18.3	제주 제주시	17.6
2	경북 경주시	16.9	경북 경주시	16.4
3	충북 청주시	16.7	충북 청주시	16.4
4	경남 진주시	14.2	경북 상주시	13.9
5	제주 서귀포시	13.9	경남 진주시	13.7

■ 또한 제주도는 논벼농사와 비교하여 대부분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주된 2017년 기준으로 과수 재배면적이 21,486ha로 가장 많고, 생산량은 채소작물이 631,918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제주농산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 ha,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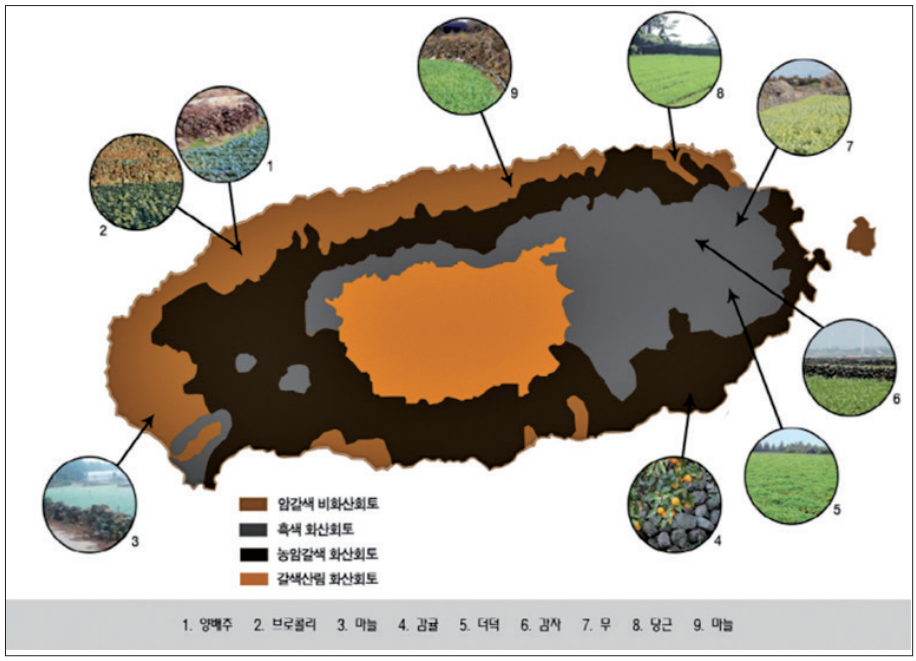
식량작물 (벼, 보리, 감자 등)		채소작물 (마늘, 양파, 당근 등)		과수 (감귤 등)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11,614	24,628	19,986	631,918	21,486	595,660	1,342	145

자료 : 최근10년간 제주도 농작물 생산의 변화, 통계청

■ 제주도의 77%가 화산회토이며 지역마다 토양의 특징과 밭담의 높이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이 달라진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토양에서는 주로 무, 귤, 당근 등이 재배되고 화산회토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양에서는 마늘, 양배추 등이 재배된다. 이렇듯 제주의 토양은 침투가 쉬운 투과성의 토양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밭농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 결과적으로 제주 밭담은 제주의 밭농업을 이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제주의 밭담과 함께 재배되어 온 밭작물들이 제주 사람들의 주요 식량자원이자 생계수단이라는 것에 있어 농업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용복(2006)은 밭담은 전통적인 담의 사용상 중요성과 농촌경관 조성요소이면서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구성하는데 비해 도시화에 밀리는 발전논리와 농업의 쇠퇴로 인해 밭담의 연평균 훼손율이 1.36%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밭담의 형성까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쇠퇴하면 복원도 힘들고 높은 경비 발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할 밭담 가치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하는 요인이 빠른 훼손율로 역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Ⅱ-2〉 토양 특성에 따른 지역별 주요 재배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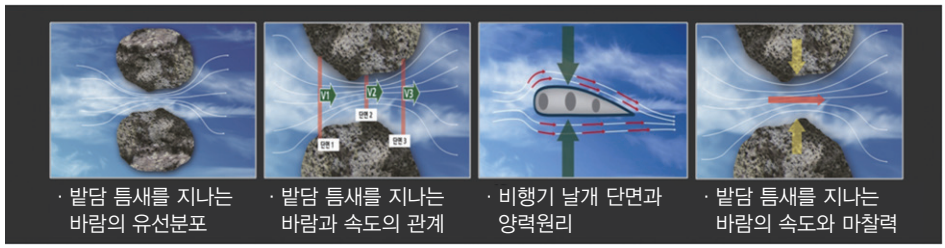
1-3-2. 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전통농업지식, 기술)

- 제주밭담은 개간과정에서 나온 돌을 이용, 바람과 토양관리를 위하여 조성되었다. 화산섬 제주의 농경지는 대부분 현무암'돌밭'이며 개간을 위해서는 돌을 캐내어 쌓아두어야 한다. 표토층이 가벼워 비바람에 돌이 드러나므로 계속 치워야 하는데 이로 인해 돌무더기인 '머

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돌을 활용하여 강한 바람을 막고 화산회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밭담을 쌓기 시작했다.

■ 그 결과 구멍 숭숭 뚫린 밭담은 강한 바람을 걸러내 부드럽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쓰러짐을 막아주고 농경지 보온작용을 했다. 또한 비에 의한 표토층의 유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으며, 목축이 성행하면서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농경지 소유권 개념이 자리잡아간 시기에는 경계표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주밭담의 재배 기술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아닌 돌담의 구조적 특성 자체가 재배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3〉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제주밭담



■ 또한 제주 밭담의 비배기술에 있어서는 토양에 대한 전통적 관리방법들이 존재하며, 씨앗의 발아를 돕는 진압농법과 주기적인 휴경을 통해 토지의 지력 증진 등을 위해 주기적인 휴경을 실시하는 밭놀림 관리방법, 그리고 해초거름 및 분뇨거름을 시비하는 등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 밭담에는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밭담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자체와 여러 비배기술들이 존재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데 있어 농업유산적인 가치가 있다.

1-3-3. Agro-Biodiversity(농업-생태환경)

■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동 ·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 · 식물의 서식환경은 제주밭담이 형성된 지역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조성되며, 밭담의 유형에 따라 서식하는 동 · 식물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난다.

■ 밭담이 형성되어지는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오름 경계형 밭담, 곶자왈 경계형 밭담, 하천 경계형 밭담, 습지 경계형 밭담, 조간대 경계형 밭담, 중산간 경계형 밭담으로 구분된다. 오름 경계형 밭담은 제주 전역에 분포되어있고 오름에서부터 기원하는 생태계와 관련

되어있으며 휘파람새, 꽃향유 군락 등이 서식하고 있다. 곶자왈 경계형 밭담은 동쪽과 서쪽 지역에 분포하고 곶자왈의 미기후로 인해 특정 생태계가 발달해있으며 황조롱이, 으름난초 등이 속한다. 하천 경계형 밭담은 마을 주변과 산의 중간지점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쇠살모사, 물장군 등이 속한다. 중산간 경계형 밭담은 해발 200m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며 노루, 애기뿔소똥구리 등이 서식한다. 조간대 경계형 밭담은 해안지대에 속하여 육상과 조간대 지역의 접점으로생태환경이 풍부하며 직박구리, 달팽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림 Ⅱ-4〉 밭담경계 유형별 서식 동식물

[오름 경계형 밭담]

[휘파람새]

[꽃향유 군락]

[곶자왈 경계형 밭담]

[황조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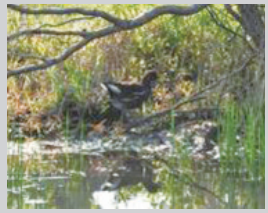
[으름난초]

[하천 경계형 밭담]

[쇠살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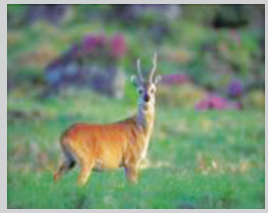
[물장군]

[습지 경계형 밭담]


[쇠물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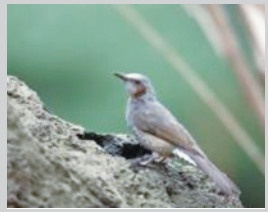
[제주도롱뇽]

[중산간 뱅듸 경계형 밭담]


[노루]

[애기뿔소똥구리]

[조간대 경계형 밭담]


[직박구리]

[달팽이]

■ 또한 토양의 상태에 따라 작지형 밭담, 빌레형 밭담, 사구형 밭담으로 구분되어진다. 작지형 밭담은 제주의 서쪽에 위치하며 지표에 직경 10cm 이하의 작은 돌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작지형에서는 작물을 기르기가 쉽고, 토양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이점이 있다. 빌레형 밭담은 제주의 동쪽에 위치하며 지표에 직경 3m 용암 원지형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형태이다. 사구형 밭담은 제주의 북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표에 모래가 형성되어있는 유형이다.

〈그림 Ⅱ-5〉 토양상태별 밭담 유형

[작지형 밭담]
·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취나물 등 재배

[빌레형 밭담]
· 마늘, 양파 등 주로 재배

[사구형 밭담]
· 당근, 마늘, 파, 양파 등 주로 재배

■ 이처럼 제주밭담은 해안과 중산간 지대 사이 섬을 두르고 있어 중산간지대의 난개발을 막는 장치 역할뿐만 아니라, 제주농업 유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제주밭담과 토양에 의해 다양한 서식활동이 조성되고 생태계가 보전되면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3-4. Culture, community and dynamics(문화, 지역사회 역동성)

■ 제주의 농업문화는 밭담이 조성된 지역의 토양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화산회토가 아닌 지역에서는 농업생산력이 화산회토 지역보다 좋아 흥겨운 노동요인 짤른 사댓소리를 불렀지만 화산회토 지역에서는 농업생산력이 좋지 않아 후렴구가 긴 진 사댓소리를 불렀다. 제례문화에서도 토양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비 화산회토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재산을 분배해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제사를 나누어 지내는 제례가 행해졌지만, 화산회토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좋지 않아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풍습으로 장남 혼자 제례를 지내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 음식문화에서는 제주 밭담에서 생산되어진 작물과 제주의 해산물을 조합시켜 만들어진 독특한 음식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주로 잡곡(조, 보리, 콩 등)과 고구마, 감자, 해조류(감태, 톳, 파래 등)을 혼합한 주식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곡물과 생선 어패류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전복죽, 옥돔죽도 현재까지 전승되어져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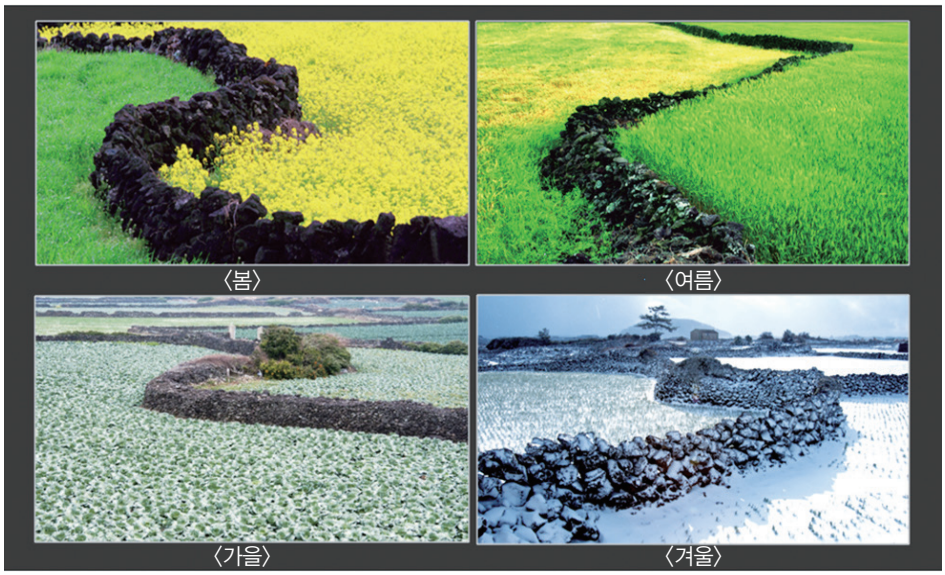
■ 농사를 지을 때 뿐만 아니라 제주 밭담을 쌓는 기술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바닷가에서 제주 해녀가 쉴 수 있는 불턱, 정주환경에 조성되어진 담장, 매장에 있어서 활용되어진 산담 들이 그 예이다.

- 더불어 제주 밭담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일례로 이웃 간에 서로 거들어가며 하는 수놀음(공동체 문화), 길이 없는 곳의 농경지에 이웃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잣길, 말과 소로부터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어진 케매기 등을 들 수 있다.
- 이처럼 제주 밭담에 의해 형성되어진 노동요, 제례문화, 독특한 음식문화, 생활문화, 주민공동체들이 생겨나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적인 가치가 있다

1-3-5. Landscape(농촌경관)

- 경관이란, 특정지역에서의 현상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혹은 내부적, 외부적 위치관계에 의해 주변공간과는 확실히 식별되며 일정한 특징을 잦는 지표의 한 구획으로 존재한다. 경관은 모든 무화를 배제한 자연의 형성에 의한 자연경관과 인류의 탄생 이래 인간의 삶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문화경관의 대상은 취락, 토지이용, 토지구분방법, 다양한 유형문화가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축적된 결과가 농촌경관으로 나타난다. 농촌경관의 요소로는 농가와 부속시설, 도로, 수로, 농경지, 임야, 종교시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자연 환경과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강성기, 2011 재인용)
- 제주밭담은 농업적 가치 이외에도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빼어난 문화경관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안가에서부터 중산간까지 제주섬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제주밭담은 검은색의 현무암과 곡선의 선형으로 이루어져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해안에 조성되어진 밭담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으로서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로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의 주요한 테마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 또한 농업유산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 제주의 밭담 보다 역사적 기간이 짧은 영국의 농경지 돌담은 역사, 경관, 야생 생물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둘담 제거를 희망하는 농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돌담과 관련한 경관구조 파괴는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토지 및 문화경관계획이 도입되어 들판의 돌담, 유적들을 제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타르 사이멘(Tir Cymen)이라는 농업 환경계획을 도입하여 돌담 복구를 위한 농장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돌담 파괴 금지 조항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규정(EEC 2078/92)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강성기, 2011 재인용)

〈그림 Ⅱ-6〉 제주밭담의 사계



2.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2-1. 제주 세계유산의 사회적 인식

- 그동안 대다수의 채널을 통해 '제주는 돌이 많은 섬, 구멍이 숭숭 난 검은 현무암의 문화가 많은 지역이며, 바람이 많은 지역, 화산석으로 지어진 돌담은 제주의 아름답고 특이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로 쉽게 접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년 대한민국 농림부의 농업유산 시스템의 도입과 실행으로, 국내의 농업시스템들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한국중요농업유산(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으로 제주밭담으로 입증된 제주농업의 역사와 다이나믹스가 '제주밭담농업시스템'으로 등재되었다.

- (1)제주의 식량공급수단과 농민의 생계유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2)제주지역의 고유한 농업기술과 지식체계를 보유 아직까지도 실행 중이며, (3)농업시스템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점, (4)제주밭담과 관련된 충분한 농업문화와 가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5)제주밭담으로 구성된 수려한 농업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유엔세계식량기구(UN FAO)가 추구하는 5가지의 깐깐한 심사규정을

통과하면서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은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FAO GIAHS Criteria) 제주밭담농업시스템으로 등재되었다.

- FAO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은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발달과정이며 그 안에 포함된 다이나믹스 즉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관련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 전통지식과 농업기술, 지역과 국가의 식량안보와 생계유지수단으로 현재도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생명력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보전하고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식량 농업 기구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이다(GIAHS 홈페이지, wikipidia).
- 이전의 밭담은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사지에 널려있는 제주의 검은 돌에 그치는 가치였다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하여 한꺼번에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보전, 전승의 가치가 있는 보물로 그 의미와 가치가 격상된 것이다.
- 과연 제주밭담 검은 돌담의 의미를 연구진이 찾아낸 것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가기엔 사실 그 의미는 너무도 지대하다. 그리고 그간 그 어느 누구도 지천에 널브러진 검은 돌에 의미를 두거나 사회적으로 가치를 공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주의 돌은 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는 당연한 도구였다.
- 제주인들에게 밭담과 돌담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적 농업가치를 인정받은 우수한 문화 밭담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우리의 제주밭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 본 프로젝트는 GIAHS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가치 공유와 정확한 홍보의 방향과 교육내용을 알아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밭담의 경관가치와 유산가치의 인식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이고 또한 제주의 다양한 세계차원의 환경과 문화관련 타이틀 속에서 세계농업유산은 어떤 정체성을 가치고 제주도민의 인식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숙제이다. 또한 밭담세계중요농업유산의 어떤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며 밭담을 활용한 제주농민의 지혜와 문화를 세상과 나누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오지의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우정의 손길을 내보일 것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 제주밭담의 심미적가치, 농업적가치가 세계식량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 외에도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인증가치는 우선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인증한 UNESCO Biosphere Reserves(2002),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2009), UNESCO Global Geoparks Network(2011) 등 3분야의 가치인증이 있다. 더불어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ICH) 무형문화유산에 2009년 제주의 칠머리당굿이 등재된 이후 2016년 12월 제주의 해녀가 인류가 소중히 보호하고 전승할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증되었다.

- 제주의 다관왕 타이틀 가치는 2002년 첫 등재된 UNESCO Biosphere Reserves를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도민과 국내에 지속적인 유네스코의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여 제주의 수려한 경관과 경관 속 녹아있는 생활문화와 제주 삶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해오고 있으며 이는 방문 관광객의 제주 경관과 세계적인 유네스코 가치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단한 가치공유의 시도 흔적인 제주세계유산의 홍보효과는 분명한 가치공유와 인식으로 나타나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한다. 홍보를 통한 가치인식의 확대는 현재까지 5개의 UNESCO와 1개의 UN FAO GIAHS 타이틀 확보를 통한 6회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을 통해 환경가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세계유산의 가치는 외국의 유산인지도에 관한 논문들과 비교하여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7년 진행된 '제주도 UNESCO 및 UNFAO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비교(유원희 외) 논문에서 지역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제주의 세계적인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그리고 로고의 인식 여부와 세계적인 유산 등재에 따른 영향인식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지역의 인지도를 측정하고 단정한 연구들을 기조로 설계되어 지었다.
- King(2014) 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 방문객을 중심으로 방문자의 유산지역 방문 결정에 세계유산의 가치인식과 그 브랜드의 표시인 유네스코 심볼, 엠블램과 지정유산의 마크를 알고 있는지 혹은 방문을 계기로 유산의 가치인식이 형성되는지 세계적 차원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결정하였다. 세계적 유산지역에서도 유독 많은 관광객이 방문지를 호주의 산호섬(Queensland)과 하와이 오아후섬에(Oahu) 위치한 다이몬헤드유산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방문자의 양해를 얻어 현장에서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호주의 산호섬 방문객 규모는 연 2,200만 명(2012) 규모이다. Queensland의 5 유산지역은 Australian Fossil Mammal Sites, Fraser Island, The Gondwana Rainforests of Australia, the Great Barrier Reef, the Wet Tropics of Queensland이며 해당 연구는 5 유산지역을 방문한 1,827명이 참여하였고 하와이 다이몬헤드유산지역은 712명이 참여하였다. 하와이는 연 8백만 미만의 방문객이 다녀가며(2013, 하와이 관광공사 기준) 연 140만명의 방문객이 다이몬헤드유산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비교분석의 목표는 단순한 가치 인식을 넘어 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이끌어 낼 근거를 제시함에 있다. 이런 세계적 규모의 유산지역을 선택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자발적인 인지의 경로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한 사전인지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실 우리 제주의 2002년 이전부터의 유네스코 가치 홍보와 공유 활동으로 인한 높은 가치 인식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827명 중 1,027명(60%)의 Queensland 방문객이 사전에 유산지역임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 반면 19%의 하와이 다이아몬드헤드 방문객이 유산지역임을 알고 또한 13%만이 방문 전에 유산지역임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등재의 의미 혹은 유산의 가치를 표하는 표시(logo)의 인식에 관하여 퀸즈랜드 방문객의 8%(147명)에 해당하는 적은 인원이 유산지역의 표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와이 다이아몬드헤드 방문객의 5%(33명)만이 유산지역의 표시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Dewar(2012) 등은 마카오의 성당을 중심으로 같은 설문을 진행하였고 약 34%의 방문객이 충분히 방문지의 유산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istoric Centre of Macao는 2005년 UNESCO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참조논문은 등재 후 3년이 지난 2008년에 시작하여 2009년에 마무리가 된 논문으로 389명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유산의 가치 인식을 비교분석한 경우이다. 두 논문의 객관적 비교를 통하여 마카오는 타 유산 지역 대비 유산가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거리의 표시판, 안내문, 관광객 대상 홍보 활동 등의 진행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방문자가 성당 방문을 시행하는 시점엔 이미 방문지의 세계유산적 가치나 의미정도는 최소한의 수준 정도라도 인지하고는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자연과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6가지의 세계적 차원의 유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유원희 외, 2017). 460명 의 데이터 분석결과 유네스코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 전체의 75.9%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타이틀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 세계유산 로고에 대한 인식 여부에서는 유네스코 로고에 대한 노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지역에 대한 긍정적 행동과 감정은 유산지역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방문자들의 긍정적 태도를 통해 유산 지역관리의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Drost A(1996), Silvanto, S.(2009)) 에 의해 확인 되었다.

- 460명의 설문자들이 자기기입한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자연유산의 인지도는 50%, Biosphere Reserves 14.6%, 세계지질공원은 30.2%, UN FAO GIAHS 세계농업유산은 11.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해녀는 8.5%의 인지도를 보였다. 같은 무형문화유산 제주칠머리당굿의 인지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민속신앙을 무속으로 여기는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해녀작업의 안녕과 수확을 비는 무속의식에 대한 거부감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문시 응답자의 첨언들로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의 사회적 인식을 통한 가치 확립에 관한 연구로 따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응답자의 유사가치의 인지경로는 'TV 프로그램' 등의 매스컴 홍보가 가장 높았으며(106명), 그 다음으로 '관광지내 설치된 안내도'(101명), '도로 표시판을 포함한 거리표지판'(85

명), '제주도청,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과 같은 제주도내 기관 홈페이지'(48명), '제주관광지도'(36명), '관광지홈페이지'(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생활 속 접촉 경로가 가장 높은 TV 프로그램과 관광지내 설치된 안내도에 가치 방안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또한 이에 대한 향후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의 유산 가치인식이 높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은 지역관광의 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자긍심 고취, 환경보호에 대한 동참의지, 지역경제 영향력 향상, 관광기반시설 개선과 관광해설사 교육 필요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제주 방문객과 주민 공통으로 보인 인식은 제주밭담 농업유산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는 밭에 위치한 돌담이라는 의견과 밭담과 돌담은 차이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인터뷰 과정 중 나타났다.
- 고성보(2007)는 제주밭담의 경관가치 평가를 1,004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관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비시장 재화인 제주 밭담을 Thrnbull의 비모수적인(Nonparametric method) 분포무관모형(distribution–free model)을 적용하여 제주 밭담의 경관적 가치를 추정하고 나아가 합리적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직불제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의 밭담과 제주경관에 대한 가치인식을 확인한 바 있다. 분포무관모형은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 다양한 질문을 통해 2.1%를 제외한 사람들은 제주 밭담이 제주의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내었고 제주의 이미지는 감귤–바다–밭담의 순으로 제주의 당연한 경관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92%가 제주 밭담은 당연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의했고 반면 1.3%만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힌 점을 보면 밭담의 문화적 위상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 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의미를 현대인들이 조상들의 힘든 삶을 기억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유지를 한 점, 이웃과 노동을 나누는 문화로 상생한 점에 대한 경외심을 논하며 경관적 가치의 우월성과 제주밭담 중심의 청정제주농업을 자랑하게 되는 계기로 아주 자랑스러워 하지만 유산의 어떤 점을 세상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선 우선 도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 사람들의 GIAHS밭담농업시스템에 대한 인식이므로 과연 어떤 요소와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은 너무도 당연한 연구과제인 이유이다.

2-2. 제주밭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현황

- GIAHS 제주밭담의 추진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농업유산 보존 · 관리 및 연계협력을 위한 한 · 중 · 일 Workshop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획 · 홍보사업 / 3년간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용 도록 제작/ 125page, 사진 97점 ▲제주밭담 사진 전시회 개최/ 10회 ▲제주밭담 특정지역 항공 촬영 : 핵심지역 5개 마을 ▲제주밭담 축제 / 2015년 ~2018년(4회)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교육용 동영상 보급 / 2015년 USB 1000개 20분 분량(국문과 영문 2종)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3대과제, 6대전략/ 단기 3년, 중장기 10년 계획 ▲제주밭담 테마공원 조성 / 구좌읍 월정리 1544/ 7,600㎡ / 2015년 5월 ▲ 제주밭담길 조성 / 월정리 진빌레 밭담길(2.24km, 도보 약 40분)이 있다.

- 둘째, FAO GIAHS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사업은 ▲제주밭담 디자인등록과 상표출원 / 디자인 2건, 상표출원 9건 ▲제주밭담 6차산업화 신규가공제품 개발 / 8종 ▲제주밭담 6차산업화 기존 가공제품 디자인개발 및 시설개선 지원 / 16개 업체 ▲제주밭담-Shop 조성 / 2개소 조성 완료, 1개소 공사 중 ▲제주밭담 6차산업화 농업인 조직체 구축 / 3개소(평대리, 신풍리, 동명리) ▲사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제주도 내 23기관 ▲ 제주밭담 연계 프로그램 코스 기반구축 / 월정리, 평대리, 신풍리. 난산리, 수산리, 동명리 ▲제주밭담 memento 디자인 개발지원 / 22개 업체 공모, 8개 업체 선정 ▲제주밭담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제주밭담 홈페이지 구축, 제주 밭담길 홍보영상 제작 / 6개 밭담길 제작 완료 ▲제주밭담 6차산업화 사업 언론홍보 / 협력업체 :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 ▲제주밭담 스토리텔링북 제작 / 제주밭담 이야기 4,500부 등 ▲제주밭담 사진공모전과 홍보물 제작 / 361개 응모, 26점 선정 ▲제주밭담 Value-up 아카데미 운영 ▲제주밭담길 걷기 행사 / 2018. 11. 03/10, 2회 개최 , 참여 인원 300여명 ▲대학생 소논문 경진대회 / 2018. 11. 9. 마감 , (총 25팀 참가)이 있다.

2-2-1. 국가중요농업유산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 기 간 : 2013년~2015년(단기)

■ 주관기관/추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정과 주관/ 제주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사

○ 농업유산 보존 · 관리 및 연계협력을 위한 한 · 중 · 일 Workshop / 2013.08. 26

○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획 · 홍보사업 / 3년간

해설 제주 밭 돌담 국가유산자원 조명 의미와 과제 2010년 12월 6일 목요일

'黑龍萬里' 세계유산적 가치 재평가

(특별연재)

돌담 길이 3만6000km 중 밭담 2만2000km
제주인 생존 버팀목·경관 가치도 높게 평가
복합유산 핵심자원 훼손 심각… 대책 절실

제주의 전역에 산재한 밭 돌담이 농어업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될 날을 애타게 두고 있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주의 자원에는 밭 돌담 외에도 돌염전과 원담, 불턱 등 제주의 전통 돌문화가 두루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제주의 돌문화가 국가자원에서 주신에 대대로 돌려쓰이듯 '유산' 자원으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자연+문화)의 핵심 자원으로 다양한 복합유산 추진에도 동력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돌담·제주의 돌담은 불과 없는 오랜에 따라 과탁, 검담, 잣벽담(자갈로 성처럼 넓게 쌓은 담)으로 구분되는데, 위치에 따라서는 축담(초가의 외벽), 울타담(초가 울타), 밭담(밭 경계), 뒤해장담(외적 침입 방지 용), 원담(갯담, 어로용), 보목담, 산담 등이 존재한다.

제주의 돌담은 시부면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예로부터 특별한 인공(에너지)로 쌓였다. 돌담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것으로, 실제 학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제주 돌담의 총길이는 3만6000km에 이 중 밭담은 2만2000km로 지구 주위보다 길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군사용이라면, 제주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살서 싸운 '삶' 자체이며, 제주인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다.

보물관광지는 제주 돌담을 동아시아권과 함께 한국의 100대 민속문화상징으로 선정했다. 제주 밭 돌담은 구좌읍 한대·행원, 조천읍 북촌, 애월읍 곽지·상귀, 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특히 경관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담과 다양한 가치·제주대 고성보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돌(돌기)담은 이같은 전통적인 인문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경관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고 교수는 연간 제주밭담의 경관가치가 평균 602억원으로 추산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은 한 세미나에서 "그동안 제주의 돌담은 나무 경계 기능과 가축 방목을 방지의 의 돌담은 나무 경계 기능이나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구좌읍 행원리 밭 돌담 사진·한국일보DB

제주의 밭 돌담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경제적·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좌읍 행원리 밭 돌담 사진·한국일보DB

의 돌담은 나무 경계 기능이나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구좌읍 행원리 밭 돌담 사진·한국일보DB

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유네스코 등에서는 제주의 돌담과 유사한 폐토적 경관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훼손 심대·제주도의 밭 돌담은 기능·복잡성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관계의 가치와 심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교수는 "연구결과, 돌담의 훼손율이 평균 11%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전전략·진보가능한 제주도 밭 돌담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총괄적인 방침이 부스에게 돌려줄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처럼하고 진단한다. 밭 돌담 관리자들 포함한 제주도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유산으로서의 상속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밭담의 보전과 관리는 관리자들에 1차적 관계를 둔 점근방식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밭담의 가치인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보전·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시영기자

FAO의 파비즈 코하잔(멕오른쪽)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과 세계농업유산 사무국의 제이 제인 밀러크루스(오른쪽 두번째) 기술담당관은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시 조천·신흥·김녕·하도 일대 밭담과 원담, 불턱, 돌염전 등을 돌아본 뒤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향신기자

FAO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자격 충분"

코하잔 의장 등 핵심관계자 제주밭담 답사 뒤 극찬
다섯가지 심의 영역 모두 충족 "독창성 탁월" 평가
지속 보전·전통 농업문화 발전위한 실천계획 주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핵심 관계자는 3일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이 충분하며 다섯가지 영역(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FAO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밭담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FAO의 파비즈 코하잔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과 세계농업유산 사무국의 제이 제인 밀러크루스 기술담당관은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시 조천·신흥·김녕·하도 일대 밭담과 원담, 불턱, 돌염전, 제주전통선센터 등을 둘러보고 언론과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하잔 의장은 세계농업유산 등재 심의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코하잔 의장은 밭담 답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액션플랜(실천계획)을 통해 산업화와 기계화 보다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통 농업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농업유산의 다섯가지 영역은 식량 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능, 전통적 지식 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적도 문화습관, 경관이 수려한 토지 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밭담이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코하잔 의장은 "제주는 기회의 땅이자 이웃다운 섬"이라며 특히 "제주밭담의 경관은 제주 홍미진진하여 이용(경작), 규모, 매우 독특한 풍광, 독창성 면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 FAO 관계자들이 제주 답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자치도, 제주 세계농업유산심사TF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도 동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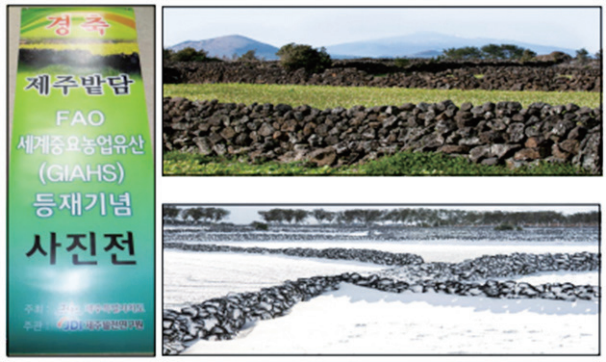
FAO 관계자들은 이날 조천에서 제주 돌문화의 하나인 원담 발굴과의 현장을 확인했으며, 김녕리에서는 목욕 감귤을 경작중인 귀농 경력 농부와도 만나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하는 등 제주의 돌문화의 경작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시영기자 sokang@hallla.com

○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홍보용 도록 제작/ 125page, 사진 97점

-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록 제주밭담 을 제작 및 발간하였다.
- 밭담의 구조와 유형 제주의 돌문화와 농업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전경들을 담았음. 그리고 각 파트별로 해설을 가미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했음 또한 영문 번역을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제주밭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주밭담 사진 전시회 개최/ 10회

- 2013년 1월에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에 이어 2014년 4월 1일 FAO 세계농업유산 등재 확정에 따른 기념 사진전이 2014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 로비에서 열렸다. 지역 사진작가들이 작품 종이 전시되어 제주밭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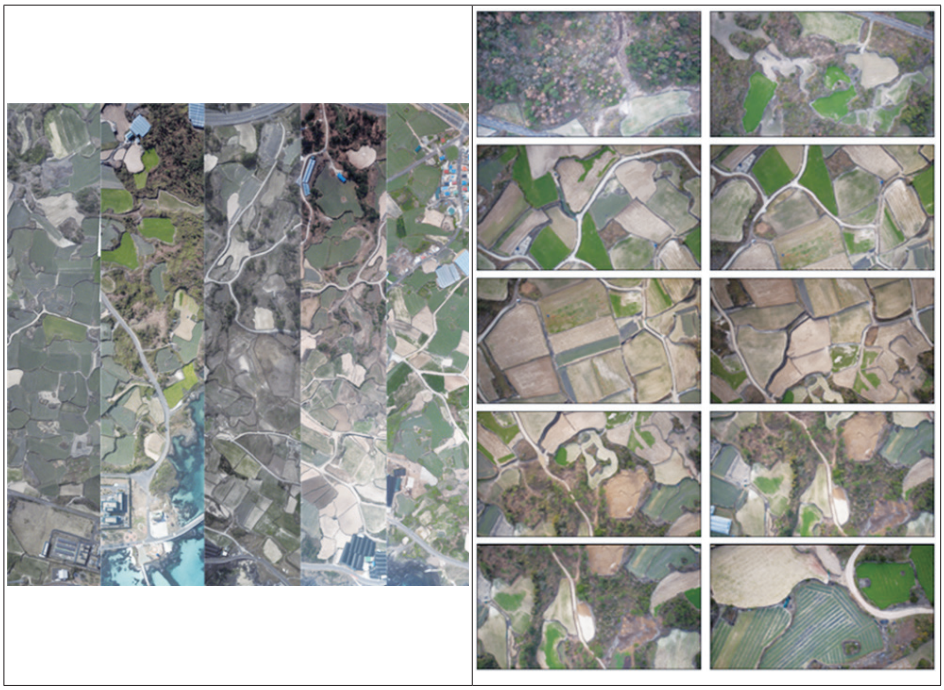


■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홍보를 위해 2014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토양학회 행사장에서 제주밭담 동영상 방영 및 종의 제주밭담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 제53회 탐라문화제가 열리는 데 맞춰 2014년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행사장에 제주 세계문화유산관을 설치하고 제주밭담 사진전을 개최했다.

○ 제주밭담 축제 / 2015년~2018년(4회)

○ 제주밭담 특정지역 항공 촬영 : 핵심지역 5개 마을



○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교육용 동영상 보급 / 2015년 USB 1,000개 20분 분량(국문과 영문 2종)

○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3대과제, 6대전략/ 단기 3년, 중장기 10년 계획

실 천 과 제	사업비(단위:천원)
보전지구 단계별 시행	11,000,000
제주밭담 특화브랜드 창출 및 농산업 확대	1,332,000
제주밭담 관광활성화	220,000
제주밭담 활용사업단 구성	1,000,000
(가칭)제주세계농업유산교육관 건립	3,261,000
밭담장인연합회 조직	720,000
밭담장인 발굴·지정	200,000
밭담 축제 개최	1,000,000
밭담가치 재발견 프로그램 운영	110,000
농업유산직불제 도입 추진(10년)	5,000,000
토지비축제 활용한 밭담의 공공자원화	4,620,000
데이터베이스 구축	3,000,000
밭담 관리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	1,000,000
합 계	32,46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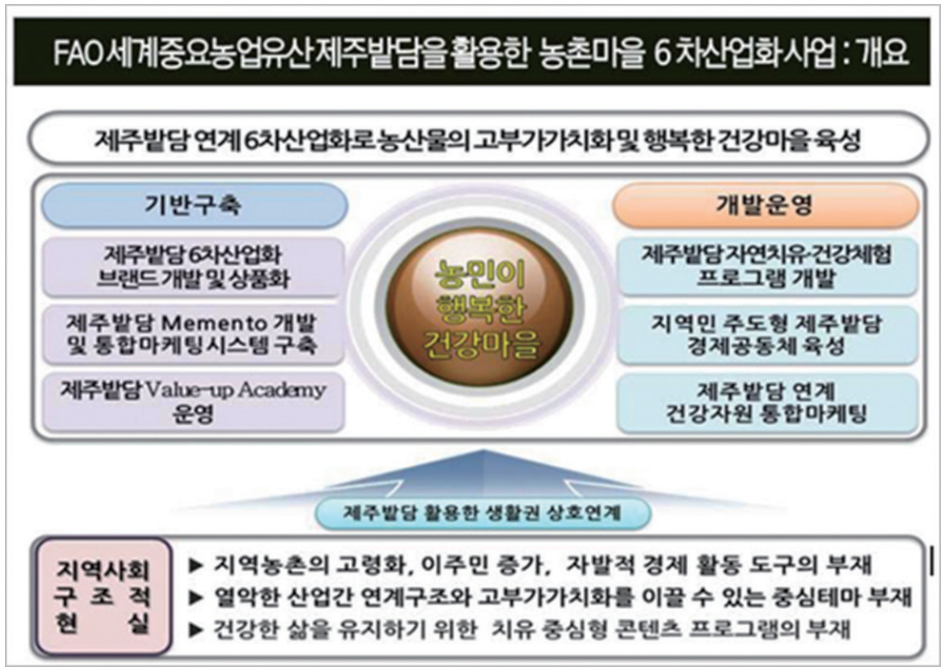
○ 제주밭담 테마공원 조성 / 구좌읍 월정리 1544 / 7,600㎡ / 2015년 5월

○ 제주밭담길 조성 / 월정리 진빌레 밭담길(2.24km, 도보 약 40분)

2-2-2. FAO GIAHS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 기 간 : 2016 ~ 2018년 (3개년)
- 추진기관/대행기관 : 제주시(주관기관), 서귀포시(참여기관)/제주연구원,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그림 II-7〉 FAO GIAHS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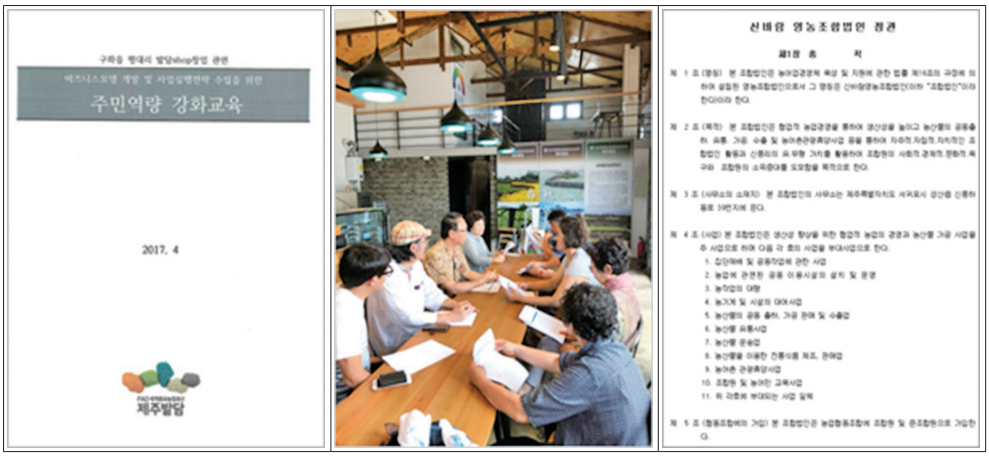
○ 제주밭담 디자인등록과 상표출원 / 디자인 2건, 상표출원 9건

○ 제주밭담 6차산업화 신규가공제품 개발 / 8종

○ 제주밭담 6차산업화 기존 가공제품 디자인개발 및 시설개선 지원 / 16개 업체

○ 제주밭담-Shop 조성 / 2개소 조성 완료, 1개소 공사 중

○ 제주밭담 6차산업화 농업인 조직체 구축 / 3개소(평대리, 신풍리, 동명리)



○ 사업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 제주도 내 23기관

협 약 기 관	협 약 내 용
돌빛나예술학교	밭담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밭담보전, 관리 구축
한라일보	제주밭담 가치인식과 브랜드 홍보
제주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주밭담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 구축 및 교육 등
제주커피수목원	제주밭담 가치 공유 및 6차산업 연계 등
제주시산림조합	제주밭담 브랜드 가치제고 및 활용사업 협력 등
제주의 소리	제주밭담 가치인식과 브랜드 홍보
김지순 요리제과 직업전문학원	제주밭담-Shop 창업지원 교육 및 레시피 개발 등
제주관광공사 외 13개 기관	제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KCTV제주방송	제주밭담 가치 공유 및 홍보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밭담 연계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 협력
지역주민 행복드림 JOB사업단	제주밭담 연계 마을관광 및 해설사 양성교육 연계

○ 제주밭담 연계 프로그램 코스 기반구축 / 월정리, 평대리, 신풍리. 난산리, 수산리, 동명리

○ 제주밭담 memento 디자인 개발지원 / 22개 업체 공모, 8개 업체 선정

○ 제주밭담 통합 마케팅 시스템 구축

○ 제주 밭담길 홍보 영상 제작 / 6개 밭담길 제작 완료(유튜브 검색 시청가능)

○ 제주밭담 6차산업화 사업 언론홍보 / 협력업체 :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

○ 제주밭담 스토리텔링북 제작 / 제주밭담 이야기 4,500부 등

- 도록 〈제주밭담〉은 제주농업의 미래이며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문화경관, 생물다양성의 매개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로 그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제작됐다.
- 스토리북 〈제주밭담 이야기〉는 밭담과 농업에 얽힌 어제와 오늘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 스토리텔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 제주밭담과 농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 제주밭담 사진공모전과 홍보물 제작 / 361개 응모, 26점 선정

○ 제주밭담 보전관리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제주밭담 Value-up 아카데미 운영

■ 제주밭담 축조기술 교육 및 실습

■ 권역별 해설사 양성으로 밭담문화의 체계적인 계승 · 발전과 일자리 창출

※ 수강생 요청으로 2017년 하반기 실기교육 중급반 과정 개설

합 계(인)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43	44	63	70	66

○ 제주밭담길 걷기 행사 / 2018. 11. 03/10, 2회 개최 , 참여 인원 300여명

■ 주요 행사로는 마을해설사를 동반한 밭담길을 체험하고, 밭담길 코스에 준비된 콘서트 등을 들으며 고즈넉한 농촌풍경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제주밭담길은 농촌체험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활용한 로컬푸드, 밭담 브랜드상품 판매 (밭담-SHOP 혹은 마을기업 연계)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민 소득증대와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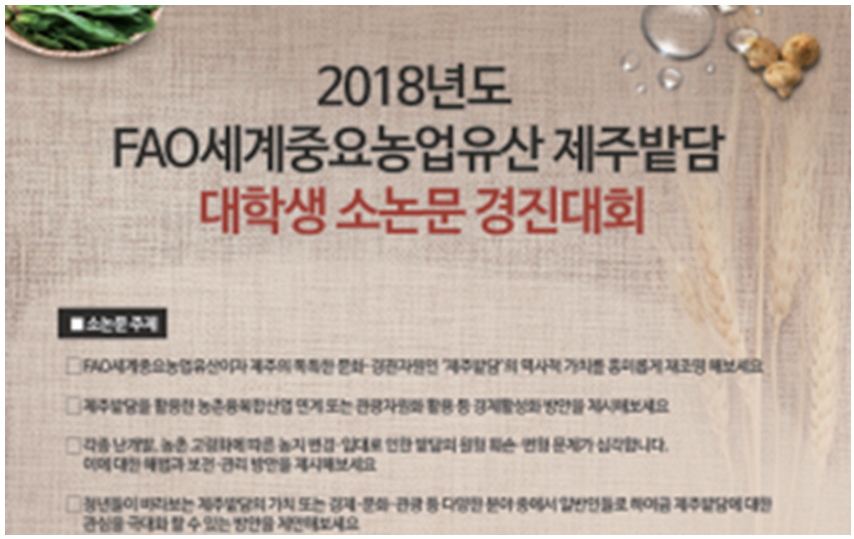
■ 제주밭담길은 제주 농촌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고, 지역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6개소가 있다. 구좌권역에는 월정리 '진빌레 밭담길', 평대리 '감수굴 밭담길'이 있고, 애월읍 수산리 '물메 밭담길'과 한림읍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 등 제주시 지역에 4개소가 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성산권역에 신풍리 '어멍아방 밭담길', 난산리 '난미 밭담길' 2개소가 조성돼 있다.

○ 대학생 소논문 경진대회 / 2018. 11. 9. 마감, 총 25팀 참가

■ 제주밭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술자료 · 관광자원 활용과 무엇보다 제주밭담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소논문 공모전에는 총 25편이 응모해 1차 심사결과 6편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 수상작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 올망졸망팀(제주대) / 제주밭담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구좌읍 평대리 밭담을 중심으로
- 김지훈(제주대) / 제주밭담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방향–기존 제주관광 유명 요소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 EBS팀(제주대) / 제주밭담의 교육적 가치 탐색 및 증진방안–교육현장 학습장소로의 지정을 중심으로
- 강지윤(제주대) / 제주밭담 인식 제고와 경제활성화 방안 – 도민 인식제고 방안과 SNS ·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방안 중심으로
- 김예현(제주대) / 제주밭담의 가치 증대 방안 – 제주, 한국, 세계로 밭담을 알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
- 장하늘(제주대) / 제주 바람막이의 재발견 – 제주밭담 관심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요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로, 언론 빅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과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제주밭담과 관련된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다. 둘째로, 설문조사는 사회 현상을 탐색하거나 사회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모집단 또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대표유산지역인 거문오름에서 제주밭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FGI)는 소수의 응답자들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해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밭담과 관련된 그룹으로 제주농민,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FAO GIAHS전문가, 제주밭담장인, 제주 문화 · 철학 · 사회연구가를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언론 빅데이터 분석

2-1. 언론 빅데이터로 바라 본 제주밭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제주밭담'에 대한 뉴스를 바탕으로 언론 및 사회적 관심도 추이를 분석함

※ 소셜분석 : 소셜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동향 및 국민관심사항 등을 키워드로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

2-1-1. 개요

■ 분석 주제 : 제주밭담

■ 분석 대상 : 2011년 1월 ~ 2019년 6월(8년 6개월) 소셜데이터

■ 분석 툴 : 빅카인즈

■ 분석 내용

- 연도별 뉴스 검색추이 분석
- 뉴스 생산 추이 분석
- 주요키워드 및 인물 · 지역 · 조직 연관도 분석

2-1-2. 연도별 '제주밭담' 검색 분석

○ 2011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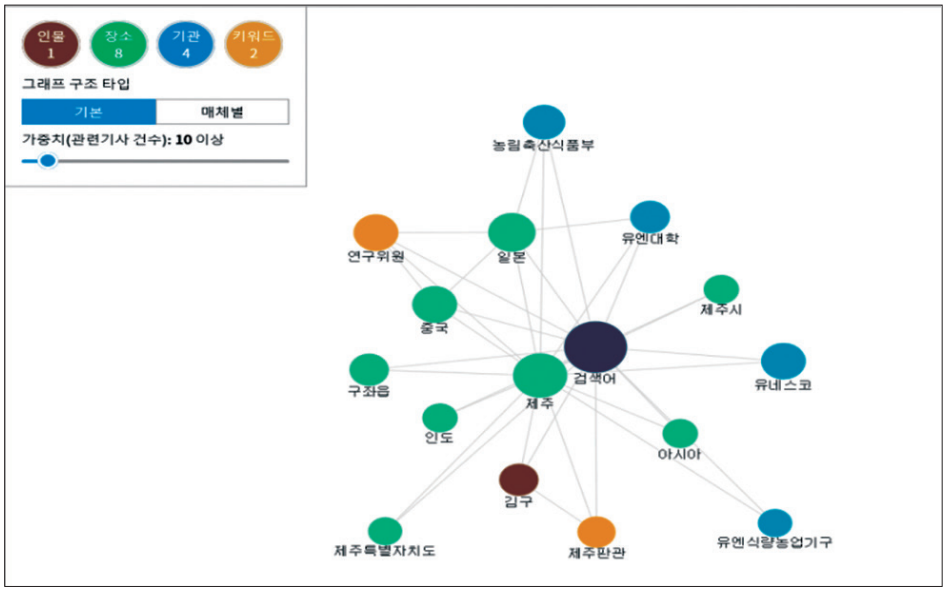
- 2014년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제주밭담이 등재되기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제주밭담' 검색을 한 결과 2010년 검색결과는 0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92건으로 나타났다.

■ 워드클라우드 분석 : '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 등재', 'FAO', '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1〉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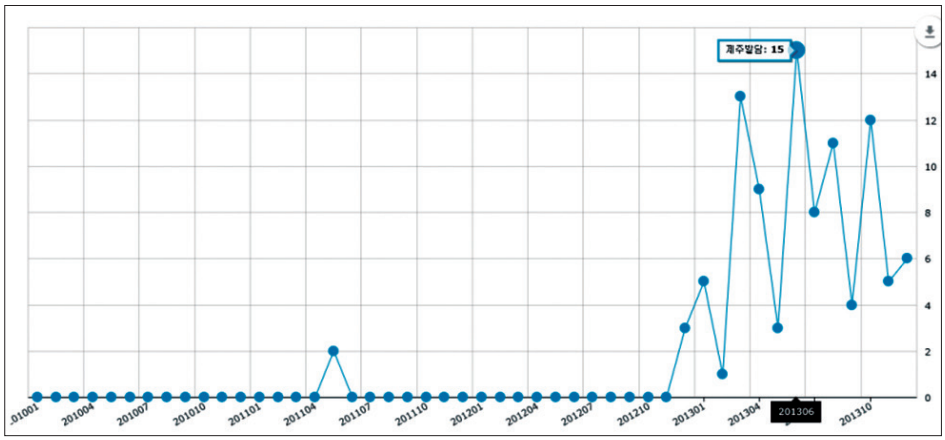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일본”, “중국”, “농림축산식품부”, “유엔대학”,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이 나타났다.

〈그림 Ⅲ-2〉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1년에는 2건, 2012년에는 3건, 2013년에는 총 92건이 검색되었으며, 2013년 6월에 15건으로 보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1년에는 보존해야 할 문화로 '제주밭담'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밭담'이 국가유산 자원으로 등재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2013년에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보존관리와 브랜드로서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후속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농업유산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이 필요하며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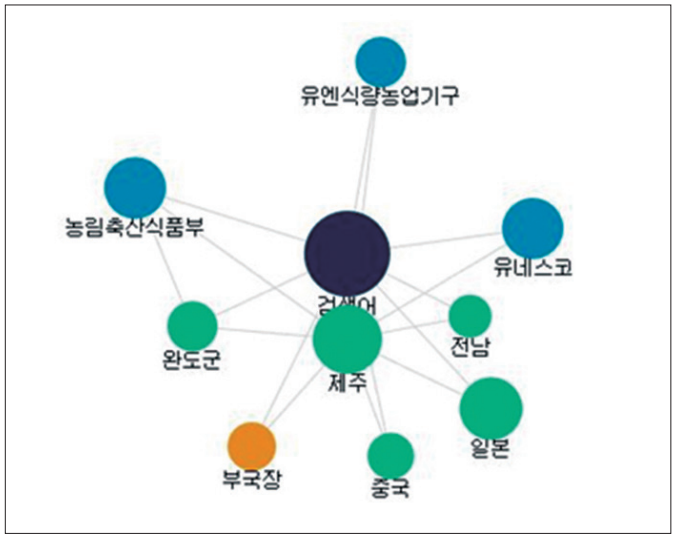
○ 2014년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농업유산'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4〉 2014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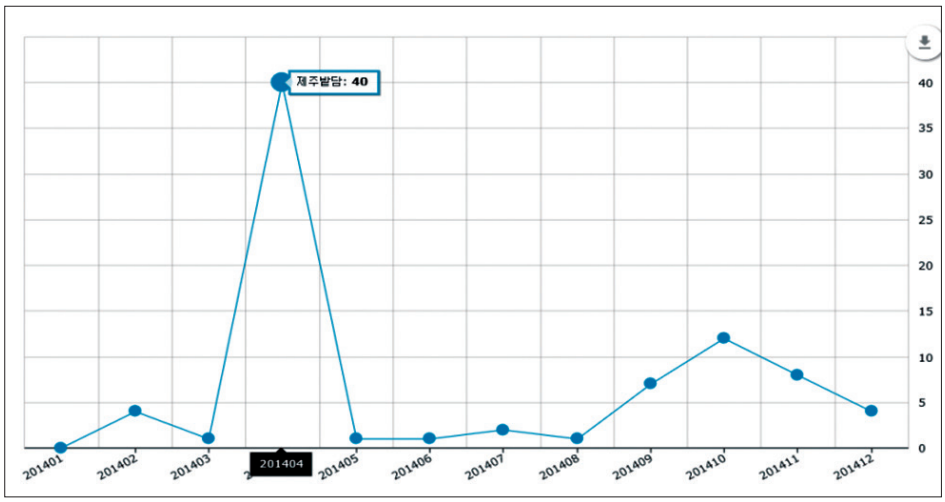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유네스코', 유엔식량농업기구',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관계도 분석에 나타났다.

〈그림 Ⅲ-5〉 2014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4년에는 총 81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4월에 40건으로 가장 보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 2014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4년 2월에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4월 3일 제주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이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그 이후 보도로는 농업 유산 브랜드화하여 농촌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제주밭담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유산 브랜드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12월까지 이어진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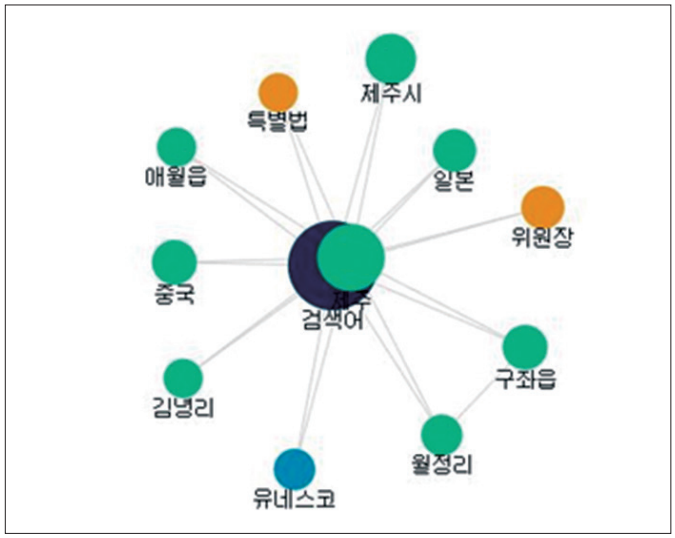
○ 2015년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관광자원’, ‘흑룡만리’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7〉 2015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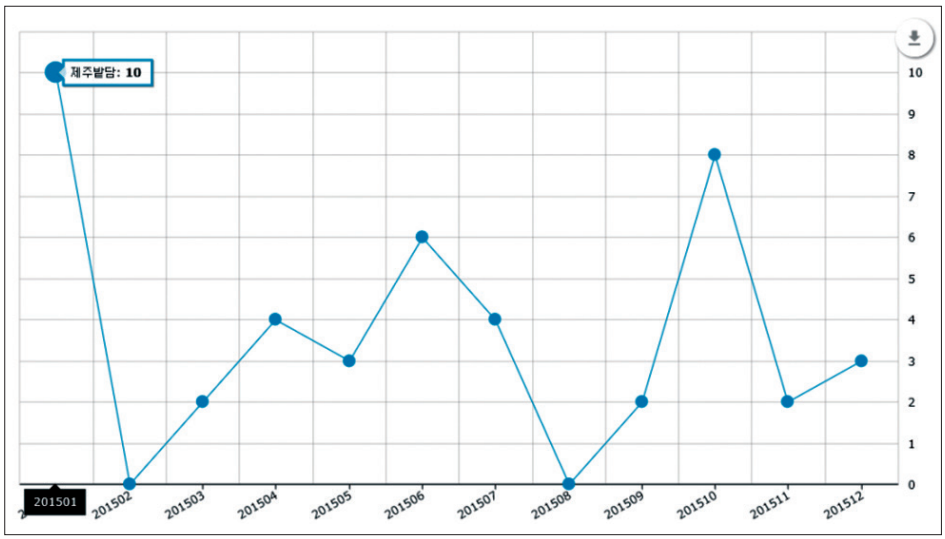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제주시’, ”월정리’, ”애월읍“, ”구좌읍“ 등 제주의 구체적인 지명이 관계도 분석에 등장하였다.

〈그림 Ⅲ-8〉 2015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5년에는 총 44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1월에 10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2015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5년 1월는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 주민 참여 보전 활용 전략 필요, 3월에는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브랜드 착수, 제주밭담을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14억원 투입, 4월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주년에 대한 기획 보도, 체험테마공원 조성, 밭담축제 개최 등 중장기 계획, 7월에는 5개국 청년들 김녕리 마을에 세계유산자원봉사단 활동, 9월에는 제주해녀 등재를 위해서는 제주밭담 벤치마킹 필요, 10월에는 제주 이주민 대상 '돌빛나예술학교' 개원, 10월에는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전승축제 개막 등이 주요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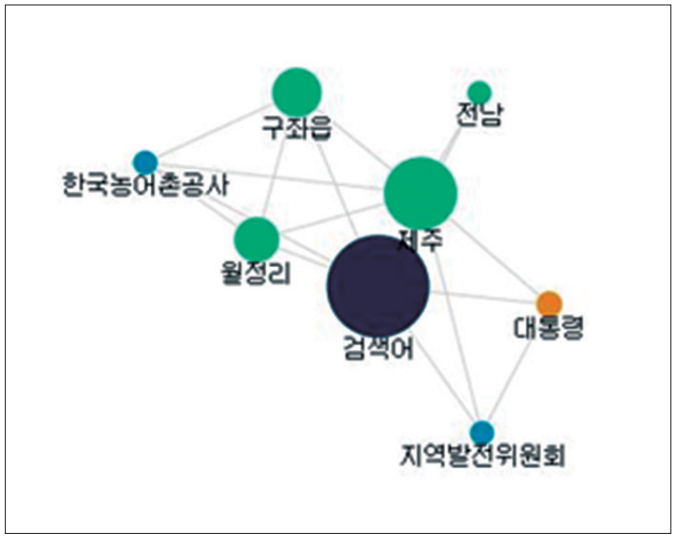
○ 2016년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 '산업화', '농촌마을 6차'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2016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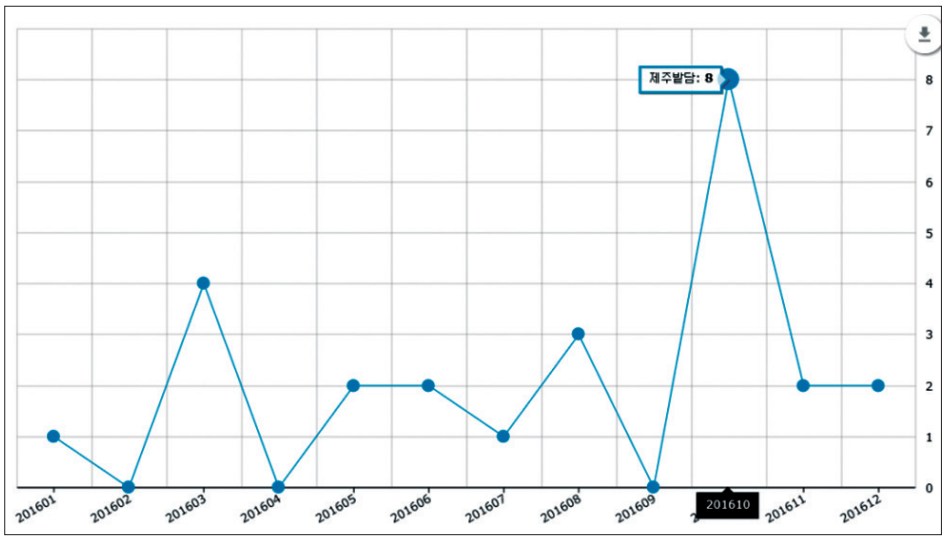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구좌읍'" "월정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관계도 분석에 나타났다.

〈그림 Ⅲ-11〉 2016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6년에는 총 25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8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2016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6년 3월에 제주밭담 스토리북 발간, 6월 제주시가 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스타트, 8월 제주밭담 활용 농촌 6차 산업화 탄력, 제주 밭담과 산담으로 배우는 인문학, 10월 제주밭담 관리 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수강생 모집, 제주밭담 축제 '천년의 밭담, 제주의 삶을 담다'라는 주제로 22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에서 팡파르, '흑룡만리' 제주밭담이 축제 명소로 용틀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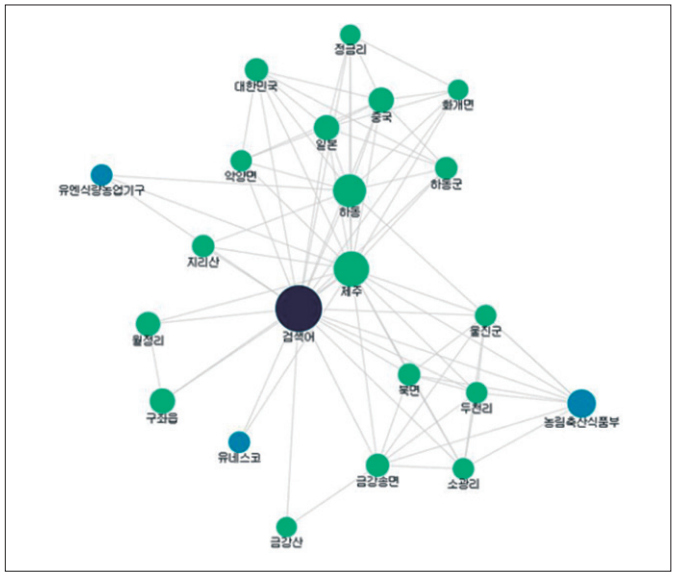
○ 2017년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 이 2014년부터 계속 가장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담양 대나무밭, '차' 등이 2017년 처음으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그림 Ⅲ–13〉 2017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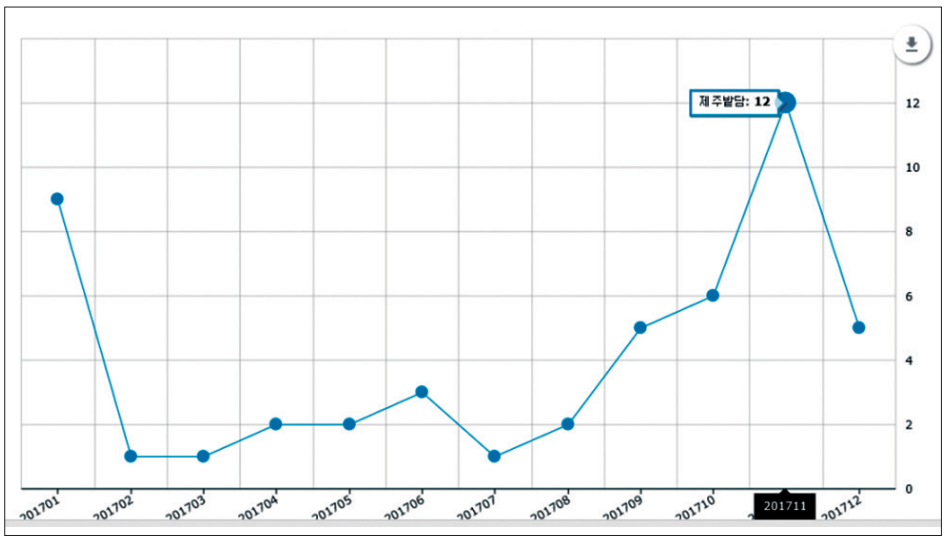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하동'", "구좌읍', "월정리", "지리산" 등이 관계도 분석에 나타났다.

〈그림 Ⅲ-14〉 2017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7년에는 총 49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11월에 12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Ⅲ-15〉 2017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7년 1월에 울진 금강소나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서귀포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로 806억원 투입, 3월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수강생 모집, 6월 제주연구원 제주밭담 구축사업단(단장 강승진) 도록 '제주밭담'과 스토리북 '제주밭담 이야기'를 1천부 제작해 무료 배포, 울진 금강송숲 생태테마관광지 조성 박차, 8월 돌빛나예술학교 사라져가는 돌담보존 위해 수강생 교육 교본 제작, 9월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 논의, 10월 제3회 제주밭담 축제 10월 14일과 15일 구좌읍 월정리 밭담 테마공원에서 개최, 흑룡만리 제주밭담 칠선녀 신화 馬축제로 재탄생, 11월 경남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12월 하동 녹차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보성 녹차 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 고조 등의 내용이 언론 보도되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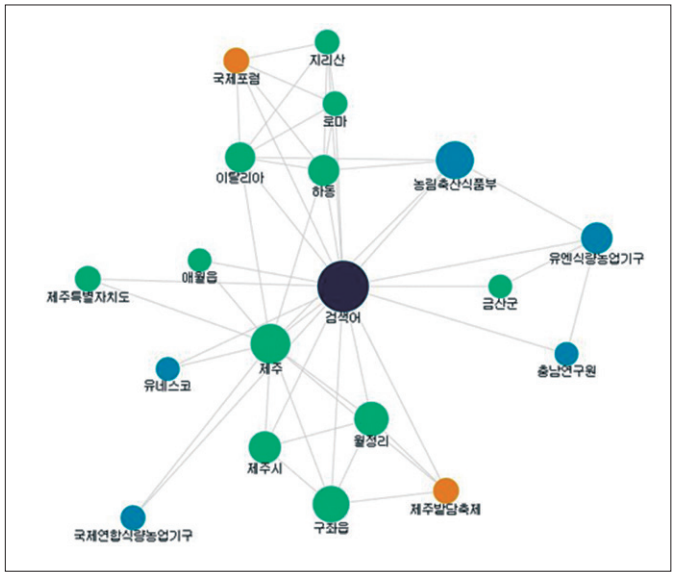
○ 2018년

■ 워드클라우드 분석 : "세계중요농업유산"이 2018년에도 가장 주요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담양 대나무밭", "하동 전통 차농업", "흑룡만리", "20개국 50여개 지역"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16〉 2018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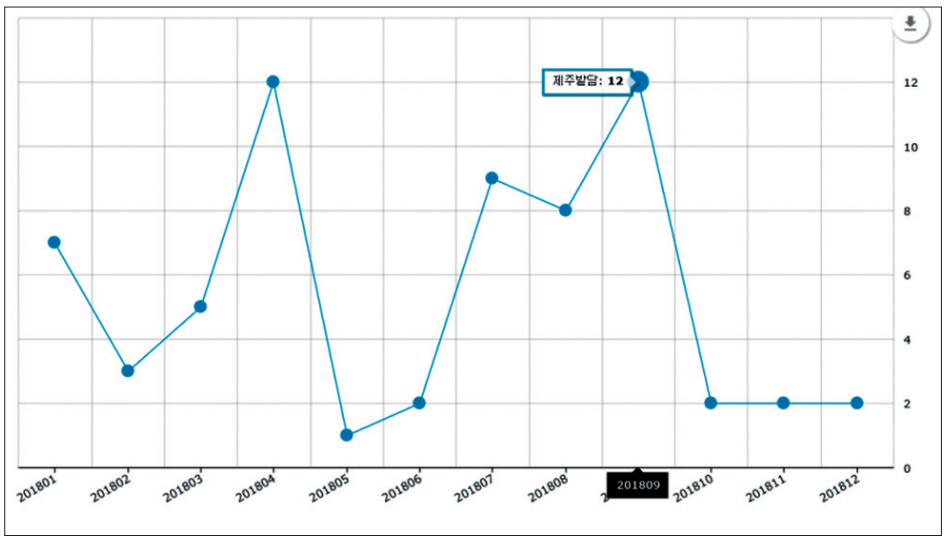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 "애월읍", "농림축산식품부', "월정리", "제주밭담축제", "국제포럼", "구좌읍", "월정리" 등이 관계도 분석에 나타났다.

〈그림 Ⅲ-17〉 2018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8년에는 총 65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9월에 12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Ⅲ-18〉 2018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8년 1월에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전북 부안 유유동 전통양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4월에는 제주 커피와인 밭담체험 등 6차 산업 메카 부상,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농촌문화 체험 테마로 주목, 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7월 금산 전통인삼농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제주 2020년 세계지질공원총회 제주 유치 추진, 9월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5개 기관 단체 업무 협약 체결, 제4회 제주밭담축제 9월 15일~16일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유산 중 절반가량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단 한 것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음, 10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 밭담 기반구축사업단은 2018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길 걷기 행사'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힘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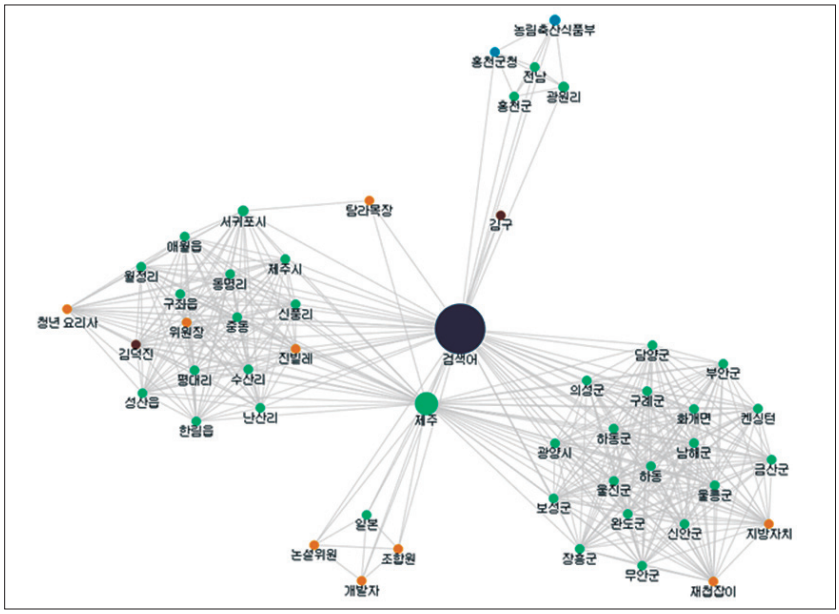
○ 2019년 1월 ~ 6월

■ 워드클라우드 분석 : 2014년도부터 꾸준히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던 "세계중요농업유산"이 2019년에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마을공동목장", "청산도 구들장 논", "돌빛나예술학교"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Ⅲ–19〉 2019년 '제주밭담' 관련 워드클라우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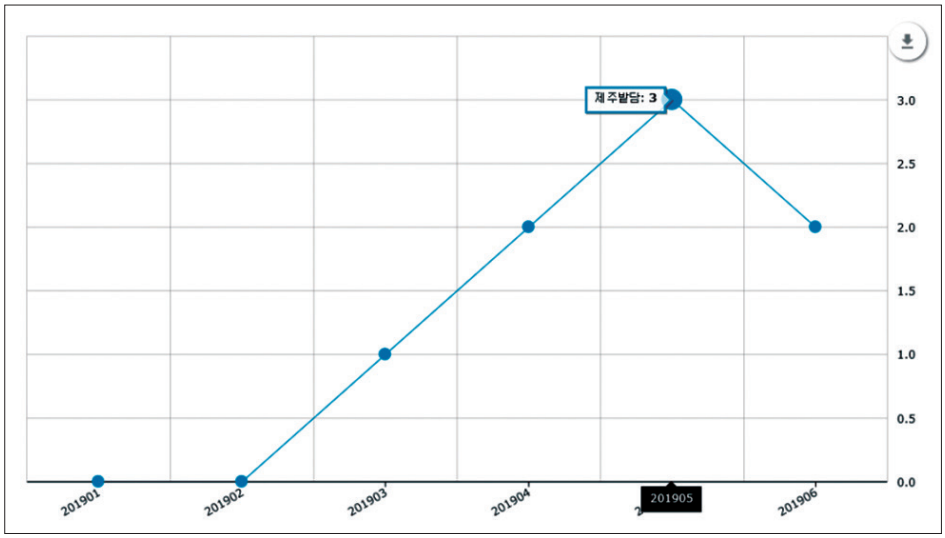
■ 관계도 분석 : "제주밭담"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라목장", "수산리", "월정리", "서귀포시", "애월읍", 평대리", "한림읍" 등이 관계도 분석에 나타났다.

〈그림 Ⅲ-20〉 2019년 '제주밭담' 관련 관계도 분석 결과



■ 월별 기사 건 수 분석 :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총 8건이 검색되었으며, 월별 기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5월에 3건으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Ⅲ-21〉 2019년 '제주밭담' 관련 월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 기사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분석

– 2019년 3월에 세계농업유산 '제주 밭담'이 관광자원이 되다, 4월 제주 마을공동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 검토, 5월 제주밭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끌로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둘빛나예술학교 공동주관 '머들이의 밭담 여행' 사업, 울릉도 화선섬 밭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전북 부안 유유동 전통양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4월에는 제주 커피와인 밭담체험 등 6차 산업 메카 부상,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농촌문화 체험 테마로 주목, 5월 하동 야생차 농업, 제주 밭담, 남해안 국방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가 행정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함, 6월 강원 홍천국 국내 최대 은행나무숲 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세부 내용 부록 참고)

2-2-3. 연도별 '제주밭담' 관련 키워드 발생 빈도 수 비교 분석

■ 2011년~2019년 '제주밭담' 키워드 발생 빈도 수 비교 분석

– 2011년부터 2013년에는 "농업유산","세계농업유산 등재","FAO", "흑룡만리" 등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였다.

–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흑룡만리", "월정", "김녕", "서귀포", "구좌읍" 등 제주밭담과 연관 높은 지역들도 빈도 수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 "테마공원", "관광자원" 등 제주 밭담의 보전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1〉 연도별 '제주밭담' 관련 키워드 발생 빈도 수 비교 분석표

순위	2011~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월~6월)
1	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제주밭담
2	세계농업 유산 등재	구들장	흑룡만리	산업화	구들장	구들장논	제주
3	FAO	농업유산	黑龍萬里	FAO	우리나라	우리나라	농림축산 식품부
4	김구	FAO	법적 근거	흑룡만리	담양 대나무밭	하동 전통 차농업	구좌읍
5	세계중요 농업유산	GIAHS	테마공원	유엔 식량 농업기구	구례 산수유	지속가능	월정리
6	GIAHS	지질트레일	농어업유산	서귀포시	GIAHS	흑룡만리	제주시
7	흑룡	월정	관광자원	농촌마을 6차	FAO	담양 대나무밭	유엔식량 농업기구
8	흑룡만리	김녕	FAO	구들장	금산 인삼	현무암	하동
9	돌문화	세계지질공원	GIAHS	전문가들	세계유산	도농어업유산 위원회	이탈리아
10	등재 신청	우리나라	장례위원장	고령해녀	농업유산	흑룡	제주특별 자치도

3. 설문조사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주도민과 제주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밭담의 매력성에 대한 인식 및 제주밭담의 전반적인 만족도(추천의도, 재방문의도, 경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3-1. 조사대상과 방법

■ 설문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거주민과 제주방문 관광객 총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 기간과 방법은 2019년 7월 20일부터 2주 동안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자기기입방식을 채택하였다. 총 27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지 5부를 제외한 265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총 265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er. 19(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표본의 특성

■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표본 총 265부에 대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265명 중 남성은 109명으로 41.1%였으며 여성은 156명으로 58.9%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10대 9명(3.4%), 20대 33명(12.5%), 30대 35명(13.2%), 40대 62명(23.4%), 50대 80명(30.2%), 60대 이상 46명(17.3%)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구분으로는 방문객이 114명(43.0%), 제주도민이 151명(57.0%)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졸업이 145명(5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65명(24.5%), 대학원 이상 40명(15.1%), 중학교 졸업이 15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46명(17.4%)로 가장 많았고 주부 41명(15.5%), 서비스직 38명(14.3%), 자영업자 37명(14.0%), 학생 24명(9.1%), 전문직 24명(9.1%), 공무원 19명(7.2%), 기술직 17명(6.4%), 무직 10명(3.8%), 농 · 어업민 9명(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n(%)
성별	남자	109(41.1)
	여자	156(58.9)
연령	15-20	9(3.4)
	21-30	33(12.5)
	31-40	35(13.2)
	41-50	62(23.4)
	51-60	80(30.2)
	61세 이상	46(17.3)
거주지	방문객	114(43.0)
	제주도민	151(57.0)
학력	중학교	15(5.7)
	고등학교	65(24.5)
	대학교	145(54.7)
	대학원이상	40(15.1)
총 계		265(100)

특성		n(%)
직업	학생	24(9.1)
	사무직	46(17.4)
	기술직	17(6.4)
	농 · 어업민	9(3.4)
	자영업자	37(14.0)
	공무원	19(7.2)
	주부	41(15.5)
	서비스직	38(14.3)
	전문직	24(9.1)
	무직	10(3.8)
총 계		265(100)

3-3. 연구 분석

3-3-1.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제주밭담 매력성에 대한 인식 비교

■ T-test는 두 그룹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 T-test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제주밭담의 매력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1. '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임을 이전에 알았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2.97점, 관광객이 평균 2.46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제주의 농로, 경작지, 밭담, 산의 조화가 탁월하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13점, 관광객이 평균 3.68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밭담경관 내 돌무더기와 담이 제주문화를 잘 보여준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12점, 관광객이 평균 3.68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밭담의 소유경계 역할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94점, 관광객이 평균

3.42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밭담이 토양유실을 방지한다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56점, 관광객이 평균 2.95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밭담이 토양 보온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38점, 관광객이 평균 2.81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밭담이 센바람을 순화시킨다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58점, 관광객이 평균 3.03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밭담이 들짐승 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67점, 관광객이 평균 3.07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제주밭담의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01점, 관광객이 평균 2.59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제주밭담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3.03점, 관광객이 평균 2.44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제주밭담이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등재가치가 있다고 여겨 진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04점, 관광객이 3.79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한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21점, 관광객이 평균 4.05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모두 4.0 이상의 점수로 두 집단 모두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나는 제주밭담이 제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24점, 관광객이 평균 4.03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나는 제주밭담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28점, 관광객이 평균 4.01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제주밭담은 외국의 돌담과 다른 문화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은 제주도민이 평균 4.24점, 관광객이 평균 4.01점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도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밭담의 매력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제주도민이 관광객 보다 더 높게 제주밭담의 매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제주도민과 방문객 간의 제주밭담 매력성 T-test 분석결과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p값
1. 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임을 이전에 알았음	제주도민	114	2.97	1.379	.001***
	관 광 객	151	2.46	1.193	
2. 제주의 농로, 경작지, 밭담, 산의 조화가 탁월함	제주도민	114	4.13	.888	.000***
	관 광 객	151	3.68	.687	
3. 밭담경관내 돌무더기와 담이 제주문화를 잘 보여줌	제주도민	114	4.12	.789	.009**
	관 광 객	151	3.86	.809	
4. 밭담의 소유경계 역할을 이전에 앎	제주도민	114	3.94	1.016	.000***
	관 광 객	151	3.42	1.061	
5. 밭담이 토양유실을 방지함을 이전에 앎	제주도민	114	3.56	1.234	.000***
	관 광 객	151	2.95	1.148	
6. 밭담의 토양 보온기능을 이전에 앎	제주도민	114	3.38	1.265	.000***
	관 광 객	151	2.81	1.128	
7. 밭담이 센바람을 순화시킨다는 것을 이전에 앎	제주도민	114	3.58	1.282	.000***
	관 광 객	151	3.03	1.157	
8. 밭담이 들짐승 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이전에 앎	제주도민	114	3.67	1.224	.000***
	관 광 객	151	3.07	1.144	
9. 나는 제주밭담의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음	제주도민	114	3.01	1.300	.005**
	관 광 객	151	2.59	1.124	
10. 나는 제주밭담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음	제주도민	114	3.03	1.265	.000***
	관 광 객	151	2.44	1.187	
11. 제주밭담이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있다고 여김	제주도민	114	4.04	1.008	.032*
	관 광 객	151	3.79	.914	
12. 나는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	제주도민	114	4.21	.887	.135
	관 광 객	151	4.05	.815	
13. 나는 제주밭담이 제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김	제주도민	114	4.24	.886	.047*
	관 광 객	151	4.03	.824	
14. 나는 제주밭담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여김	제주도민	114	4.28	.867	.009**
	관 광 객	151	4.01	.774	
15. 제주밭담은 외국의 돌담과 다른 문화배경이 있다고 생각함	제주도민	114	4.24	.905	.032*
	관 광 객	151	4.01	.783	

*p〈.05, **p〈.01, ***p〈.001

3-3-2.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에 대한 인식 비교

■ T-test(차이분석)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 간의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제주밭담 경관을 추천하고 싶다'는 항목에서는 제주도민이 평균 4.0점, 관광객이 평균3.73점으로 제주도민의 제주밭담 경관 추천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제주밭담 경관 재방문 의사가 있다'와 '제주밭담경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는 항목은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제주도민과 방문객 간의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 T-test 분석결과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p값
제주밭담 경관 추천의도	제주도민	114	4.00	.841	.009**
	관 광 객	151	3.73	.832	
제주밭담 경관 재방문 의도	제주도민	114	3.89	.856	.235
	관 광 객	151	3.77	.776	
제주밭담 경관 전반적 만족도	제주도민	114	3.91	.815	.334
	관 광 객	151	3.81	.812	

3-3-3. 제주밭담 매력성이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신뢰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기 위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제주밭담의 가치 인식" 관련 총7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7개 항목의 크론바하 알파는 0.912으로 나타났고, 표준화된 알파계수도 0.912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밭담의 기능 인식" 관련 총5개의 항목의 신뢰도인 크론바하 알파는 .920이며, 표준화된 알파계수도 .920으로 나타났다.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 인식" 관련 3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는 .845, 표준화된 알파계수는 .84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주밭담 경관에 대한 만족도' 측정 3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는 .928, 표준화된 알파계수도 .928로 나타났다,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대부분 0.9 이상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요인분석

- 요인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저변에 내재된 개념인 요인들을 추출해내는 분석방법이다.
-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직교회전(Varimax) 방식으로,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s)의 크기를 우선 고려하여 아이겐 값이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를 실시하였다.
- "제주밭담의 가치인식"은 제주밭담 매력성 항목 중 '제주밭담이 제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항목의 요인적재량 0.857,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한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49, '제주밭담이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등재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45, '제주밭담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여긴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13, '제주밭담은 외국의 돌담과 다른 문화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05, '밭담경관 내 돌무더기와 담이 제주문화를 잘 보여준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764, '제주의 농로, 경작지, 밭담, 산의 조화가 탁월하다'항목의 요인적재량 0.626으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밭담의 기능인식"은 제주밭담 매력성 항목 중 '밭담이 들짐승 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41, '밭담이 센바람을 순화시킨다는 것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30, '밭담의 소유경계 역할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26, '밭담이 토양유실을 방지함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685, '밭담의 토양 보온기능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673으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인식"은 제주밭담 매력성 항목 중 '제주밭담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840, '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임을 이전에 알았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786, '나는 제주밭담의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771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밭담경관 만족도"는 '제주밭담 경관을 다른 사람에게 추전할 의향이 있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922, '제주밭담경관을 위해 재방문 의사가 있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956, '제주밭담경관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항목의 요인적재량 0.927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요인 적재량은 모든 항목이 0.6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총분산 설명력은 72.722와 87.447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의 표본 적합도값은 0.741과 0.873로 나타나 적합성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 값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제주밭담 매력성과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요인분석		
		요인적 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제주 밭담의 가치 인식	제주밭담이 제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김	.857	6.474	30.541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	.849		
	제주밭담이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등재 가치가 있다고 여김	.845		
	제주밭담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여김	.813		
	제주밭담은 외국의 돌담과 다른 문화배경이 있다고 생각함	.805		
	밭담경관내 돌무더기와 담이 제주문화를 잘 보여줌	.764		
	제주의 농로, 경작지, 밭담, 산의 조화가 탁월함	.626		
제주 밭담의 기능 인식	밭담이 들짐승 출입을 방지하는 것을 이전에 앎	.841	3.397	53.489
	밭담이 센바람을 순화시킨다는 것을 이전에 앎	.830		
	밭담의 소유경계 역할을 이전에 앎	.826		
	밭담이 토양유실을 방지함을 이전에 앎	.685		
	밭담의 토양 보온기능을 이전에 앎	.673		
제주 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 인식	나는 제주밭담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음	.840	1.038	72.722
	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임을 이전에 알았음	.786		
	나는 제주밭담의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음	.771		
총 분산 설명력 = 72.722%, KMO= .879,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 2956.161 (df=105, p=.000)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	제주밭담 경관 추천의도	.922	2.623	87.447
	제주밭담 경관 재방문 의도	.956		
	제주밭담 경관 전반적 만족도	.927		
총 분산 설명 = 87.447%, KMO= .741,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 647.416 (df=3, p=.000)				

○ 회귀분석

- 회귀분석이란 변수들 중 하나를 종속변수로 나머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질 때 독립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하는 통계기법이다.
- 제주밭담에 대한 인식요인이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주밭담의 가치 인식 요인이 제주밭담 경관만족도에 가장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 인식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밭담의 기능인식은 제주밭담 경관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제주밭담에 대한 인식요인이 제주밭담 경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계수		유의확률
		B	표준오차	ß	t	
제주 밭담 경관 만족도	(상수)	.004	.043		.095	.924
	제주밭담의 가치 인식	.700	.044	.701	16.088	.000
	제주밭담의 기능인식	.038	.044	.038	.880	.380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 인식	.120	.044	.120	2.748	.006
R제곱 = .507, 수정된 R제곱 = .501, F=89.050***						

4. 전문가 인터뷰

- GIAHS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AO GIAHS 제주밭담의 가치 및 향후 콘텐츠 방향 정립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인터뷰 대상은 제주농민 3인,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3인,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 3인, 제주밭담장인 3인, 제주 문화 · 철학 · 사회 연구가 3인으로 총 15인이 선정되었다.
- 인터뷰 내용은 제주밭담의 주요 문화경관, 유산적 가치, 사회적 가치,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글로벌 공유활동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하였다.

4-1. 제주농민 인터뷰

○ 농민 1

농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고등학교 졸업
연령	50대
직업	농축산업 관련직
직업경력	30년 이상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소박한 제주인의 소유욕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조상의 삶의 정신적 지주역할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흔디모영 잘살아보세! 서로 돕는 문화의 우월성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농업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요즘 시대에 맞게 관광홍보 스타일의 비디오, 유튜브 영상자료 가 만들어지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세계적 관광과 무엽 등 박람회 포럼을 참여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밭담은 자연스럽고 돌담은 조경 등 인위적이다.

○ 농민 2

농민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고등학교 졸업
연령	50대
직업	농축산업 관련직
직업경력	30년 이상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우직한 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천년농업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의 지역정신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관광홍보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비디오 영상자료 시리즈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관광박람회 등 국제 참여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농민 3

농민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50대
직업	농축산업 관련직
직업경력	21~3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검은색 현무암이 끊임없이 이어진 모습과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지역성과 깊게 연관되어 존재되어 있는 모습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여정이 담긴 그 의미가 유산적 가치로 느껴진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화산섬 제주의 형성과정, 강한바람의 영향에 적응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 농경지의 경계선을 통해 제주민의 증자 균분 상속제 등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제주밭담의 가치와 제주돌들만이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축제, 정보센터 활용,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 등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주민들의 세계 농업유산 보유에 대한 자긍심 및 중요성과 가치인식이 담겨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4-2.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인터뷰

◯ 해설사 1

해설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60대
직업	유산 해설사
직업경력	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오면서 밭담과 함께 살아온 동반자와 같은 삶의 현장이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자연, 지질, 문화유산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인들의 삶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가정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학교교육 및 해설사 등 언론홍보가 필요하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흑룡만리의 밭담의 가치 등 적극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해설사 2

해설사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60대
직업	유산 해설사
직업경력	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독특성, 잠재력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역사성, 자연 문화성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고유성, 공유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공교육에서부터 성인까지의 연계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언론, 행정, 민간 공조체제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행정이 주체적으로 학생 및 자생단체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용도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 해설사 3

해설사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60대
직업	판매 · 서비스직/유산 해설사
직업경력	11~2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경관 속에 사람이 있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만의 농업법 중 하나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마을을 걸으면서 정서적으로 주는 안정감과 오름 위에서 바라보는 밭담이 주는

느낌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도정과 연계한 보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밭담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공유 및 복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전세대가 시청할 수 있는 TV프로그램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세미나. 전세계 관련 대상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4-3.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 인터뷰

○ 전문가 1

전문가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박사
연령	60대
직업	연구원
직업경력	6~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흑룡만리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세계적으로 특유한 인문학적 농업유산 가치, 돌을 밭담으로 쌓인 무용에서 유산가치 생산, 열악한 환경극복을 위해 밭담으로 농업에 기여한 것이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인의 정서적 상징, 열악한 환경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유지를 위한 지혜 등 이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밭담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한 제주알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야 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언론, 방송등과 연계하고 밭담축제와 밭담길 걷기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UNESCO, FAO)자원을 통합화한 홍보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FAO GIAHS, UN대학과 연계한 공유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기능간의 차이가 있다.

○ 전문가 2

전문가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석사
연령	50대
직업	연구원
직업경력	6~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문화적 자산가치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밭이라는 농업유산이 품고 있는 모든 가치, 농업 · 관광 등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환경적 가치, 교육적 가치 등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농업유산의 측면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문화적 가치를 필두로 과거~현재~미래를 이어가는 제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우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재미를 불러 일으키는 놀이와 체험, 이론과 실기를 통한 깊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교육프로그램을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미와 공감을 홍보컨셉으로 다양하게 활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채널 다각화가 필요하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류와 밭담 축제 시 교류 집중 등을 들 수 있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돌담은 돌을 활용한 담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고 밭담은 밭을 두른 돌담을 의미함. 돌담이 밭담보다 의미 폭이 넓기는 하지만 제주사회에서는 밭담은 밭담이라고만 부르는 만큼 돌담을 밭담 이외의 돌담으로 의미를 좁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 전문가 3

전문가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박사
연령	70대 이상
직업	교수
직업경력	30년 이상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농민의 삶이 깃들여져 있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농업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알려줄 것이다(밭작물재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사람들 생활문화가 농업이다. 제주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쌓으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제주 밭담이 허물어질 때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실습을 하도록 하고 농업과 기상관계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밭담속에 있는 농작물 성장과정을 볼 수 있도록 년 중 실습(현장답습)하도록 하고 포토존도 있었으면 한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먼저 이주해 온 외국인들에게 제주에 있는 밭담을 답사하고 안전한 돌담쌓는 교육 행사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 축산업(말과소)에 따라 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밭담을 쌓았다. 그리고 태풍 · 비 등에 흙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제주도 우수축제인 들불축제에서도 밭담 쌓는 바령팟(말과 소의 분뇨로 농사를 짓는 밭. 유기농)을 만드는 돌담축제도 같이 하는 것이 외국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다. 여기에 밭갈기, 씨뿌리기, 밭볽리기, 민요도 첨가하면 이색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다르다. 농사와 조경의 차이. 그러나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학문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4-4. 제주밭담장인 인터뷰

○ 제주밭담장인 1

제주밭담장인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50대
직업	농축산업 관련직
직업경력	11~2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의 작지만 소박한 희노애락 정신이 깃든다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밭담의 농업기능과 경관기능이 바로 유산적 가치이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돌담의 형성이 다 제각각이듯이 제주의 정신이 모여 틀을 형성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이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유치원 및 초등학교때부터 교재를 통해 밭담의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영상자료와 현장답사, 체험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언론포럼이나 국제포럼, 밭담축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밭담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해수나 비바람을 막아 농작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돌담은 경계선과 비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바람의 훼로를 차단함이다.

○ 제주밭담장인 2

제주밭담장인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40대
직업	생산/기능/기술직
직업경력	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의 토양과 어우러진 대표적인 제주다움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의 지리적 · 기후적 특성을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 및 극복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경작활동 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밭담의 역사 및 기능을 상세히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다른 나라의 밭담, 돌담과의 차별성이나 유사성 등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밭담은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투박한 느낌이 있고 돌담은 기능적 측면에 미적 측면을 많이 가미 하여 정돈된 느낌이 있다.

○ 제주밭담장인 3

제주밭담장인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거주지	제주
학위	대학교 졸업
연령	50대
직업	생산/기능/기술직
직업경력	10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밭담 자체의 아름다움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도의 지리적 · 지역적 · 문화적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만의 독특한 경계방식으로 제주도 자체 돌로 시공이 가능하며 일자리(석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미디어나 관광코스에 밭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전달했으면 한다.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지역적 특성과 자연 친화적이며 실리적인 시공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아무래도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밭담은 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외담 형식의 막담으로 많이 시공을 하며 지반 침하나 폭우를 동반한 태풍에 취약하다. 일반 돌담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겹담 형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며 밭담의 단점을 보완하며 인테리어 시공으로 벽채 시공도 많이 한다.

4-5. 제주 문화/철학/사회 연구가 인터뷰

○ 제주연구가 1

제주연구가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석사
연령	50대
직업	연구원/전문 통번역
직업경력	1~5년 이하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선인의 삶의 계승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선인의 삶의 지혜와 계승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제주지역의 문화적 지위 상승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현장학습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어떤 지역에 어떤 유산이 있는지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세미나나 국제심포지엄의 탁산공론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의 '리노베이션 스쿨'프로그램과 같이 함께 현지에서 3박4일 간 보고 참여하고

제안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획기적 시스템을 발굴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기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제주연구가 2

제주연구가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석사
연령	40대 이상
직업	연구원
직업경력	1~5년 이상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 전통방식의 활용과 계승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의 자연자원과 전통방식을 생활에 응용한 구조물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사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영상 제작 및 현장 참관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축제 개최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전세계 농업유산지와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을 진행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밭담은 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으로서, 돌담의 한 종류이다.

○ 제주연구가 3

제주연구가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자
거주지	제주
학위	학사
연령	60대
직업	전문직
직업경력	30년 이상

■ 질문1. 귀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제주밭담의 문화경관은 무엇입니까?

■ 응답1. 제주의 생활이 문화경관으로 연결됨

■ 질문2. 제주밭담의 유산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2. 제주농업가치 증대

■ 질문3. 제주밭담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3. 관광자원 및 홍보가치

■ 질문4.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4. 시각적 프로그램 제작 및 교과과적 기술 교육 필요

■ 질문5.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5. 입체영상제작 필요

■ 질문6. 제주밭담의 글로벌 공유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6. 유튜브 제작 및 유포해야 한다.

■ 질문7.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7. 제주밭담은 농업을 위주로, 주로 외담으로 돌 하나를 500~1,000㎜ 높이까지 쌓아 밭 주위로 바람막이 역할과 말과 소 등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돌담은 집 울타리소서 집의 경계나 바람막이 등의 역할을 하며 외담, 겹담, 견치, 대석 쌓기 등 그 용도에 따라 석공이 쌓는다. 또한 돌 조경 역할도 한다.

Ⅳ. 연구결과

○ **제주밭담의 농업기능과 제주생활문화는 독립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주밭담의 농업기능은 밭담의 축조목적인 ▲소유권 표시를 통한 소유권의 주장 ▲밭담의 기능을 활용하여 척박한 땅에서 농사 실행을 통해 식량확보와 생계유지를 진행함과 동시에 ▲어려운 현실 타파 및 가족의 생활환경개선, 빈곤타파를 돕고 더 나아가 ▲수놀음을 통한 이웃들과의 상생 ▲품앗이를 통한 이웃을 돕는 선민정신 ▲통행인과 통행로를 갖지 못한 이웃 농민들이 밭담을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한 배려 정신과 ▲제주의 자연속에 사람의 삶이 진행되며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을 보호한 생활문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밭담의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는 연계되어 있다.

○ **제주밭담은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농업유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토지이용시스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제주의 농가인구는 전국대비 3만2천가구(2017년), 30만1천가구(2018년)로 전국대비 비중이 높다. 또한 제주도의 77%가 화산회토이며 지역마다 토양의 특징과 밭담의 높이에 따라 재배되는 작물이 달라진다. 제주의 토양은 침투가 쉬운 투과성의 토양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밭농사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밭담은 제주지역 밭농업의 필수요건으로 밭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곧 그 기반요건인 밭담의 보전을 전제로 한다.

■ 제주의 바람은 토양 속의 수분 증발을 활발하게 하여 씨앗의 발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강한 바람은 표토의 비산을 불러와 파종한 씨앗을 겉으로 드러내버리기도 하고, 자라나는 작물들을 쓰러트려 버리기도 한다.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농업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토양을 보존하고 관리하느냐하는 문제가 농사의 성패에 직결된다. 밭담은 그 자체가 악조건의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농업시스템으로 바람의 저항을 잘 받는 유선형 형태이고, 돌이 많은 기공이 있는 현무암이어서 마찰력 증가하며, 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 바

람이 잘 빠져나가므로 밭담이 받는 저항이 감소되어 잘 무너지지 않는다.

-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생물다양성은 오름, 곶자왈, 하천, 습지, 뱅듸, 조간대 등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생태계 다양성'과 화산회토와 비화산회토의 토양, 아열대와 온대기후, 강수량 등에 의해 나타나는 '종 다양성' 그리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생육환경및 전통지식에 기대어온 전통농법이 22만여 개의 서로 독립된 밭담의 '유전자 다양성'을 갖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주밭담은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대 사이에, 섬을 두르고 있는 띠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손길이 중산간지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 제주도에서는 전통적 생활양식이 온전하게 유지되던 시기에 돌 자원이 없었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같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 그것도 완전히 고립된 해양 상의 섬지역에서는 다른 재료보다도 훨씬 견고한 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지혜의 소산이었다. 다행히, 해양 상에 고립된 제주도에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엄청난 돌 자원이 지척에 널려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돌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은, 자연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제주의 독특한 문화경관은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땅의 형상에서 기인한다. 제주밭담은 서로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형에 맞게 계단형식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어 독특한 제주의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

○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분석(언론보도자료)과 제주 거문오름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밭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1년~2012년에는 제주밭담의 보도건수가 각각 2건, 3건으로 아주 미미했지만 2014년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전인 2013년도에는 총 92건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키워드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농업유산 등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기사 주요 내용으로 2011년에는 보존해야할 문화로 '제주밭담'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밭담'이 국가유산자원으로 등재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2013년에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보존관리와 브랜드로서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후속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 2014년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중요성을 타지자체보다 먼저 인식한 제주특

별자치도는 4월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청산도 구들장과 함께 등재되었다는 보도가 40건으로 제주도민에게는 일상이었을 "제주밭담"의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 유산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제주밭담에 대한 매령성 인식차이를 보면 제주밭담의 가치인식, 제주밭담의 기능인식,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인식에 대해 제주도민이 관광객보다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 데이터는 제주지역신문 위주가 많았고 전국적인 보급망을 가진 신문은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으로 제한되어 보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결과 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밭담의 인식이 도민보다 낮을 결과와 연계하여 볼 때 전국단위 보도를 통한 '제주밭담'의 전국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 2015년 초에는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과 주민 참여 보전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보도와 제주밭담 브랜드 착수와 제주 밭담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예산 투입, 제험테마공원 조성, 밭담축제 개최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으며 10월에는 제주 이주민 대상 '돌빛나예술학교' 개원 등이 보도되었다. 이는 제주밭담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관광자원화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과 주민 참여 보전 전략의 필요성 대두 등 "제주밭담의 활용과 보전"이라는 논의 속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돌빛나예술학교'의 개원이 제주 밭담의 활용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2016년에는 제주밭담 스토리북 발간, 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스타트, 제주 밭담과 산담으로 배우는 인문학,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수강생 모집 등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지향하는 제주 생활경관의 독창성, 생활 및 농업문화 가치를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밭담의 6차 산업화,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등 제주밭담의 유지와 계승, 그리고 가치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2017년에는 제주연구원 제주밭담구축사업단 도록 '제주밭담'과 스토리북 '제주밭담 이야기' 1천부 제작 무료 배포, 돌빛나예술학교에서 사라저가는 돌담보존 위해 수강생 교육 교본 제작 등의 내용은 제주밭담의 차세대 계승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주며,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 논의, 제3회 제주밭담 축제 개최, 흑룡만리 제주밭담 칠선녀 신화 馬축제로 재탄생 등 제주밭담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2018년에는 울릉도 화선섬 밭 농업, 전북 부안 유유동 전통양잠농업, 하동 하개면 전통차농업,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제주밭담 농촌문화체험이 6차 산업으로 주목 받고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5개 기관 단체 업무 협약 체결, 제4회 제주밭담축제 개최, 제주 밭담길 걷기 행사 등 2016년부

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제주밭담활용 6차 산업화에 대한 진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9년 상반기(1월~6월) 언론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마을공동목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밭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끌로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돌빛나예술학교 공동주관 '머들이의 밭담 여행' 사업이 진행되며 하동 야생차 농업, 제주 밭담, 남해안 국방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가 행정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제주밭담이 FAO 제주중요농업유산 등재된 해에는 제부밭담 연관 보도자료가 총8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44건, 2016년 25건, 2017년 49건, 2018년 65건, 2019년 상반기 8건으로 최근 들어 제주밭담에 대한 언론보도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제주밭담의 사회적 인식 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거문오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회귀 분석결과 제주밭담의 가치인식, 제주밭담 홍보에 대한 사전인식이 제주밭담경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제주밭담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고 제주밭담에 대한 홍보를 이미 접해본 응답자일수록 밭담경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다. 또한, 제주밭담의 기능인식은 제주경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밭담이 제주농업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제주밭담의 기능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연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밭담경관에 대한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밭담의 가치인식과 홍보인식을 강화하고 기능인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GIAHS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AO GIAHS 제주밭담의 가치에 대하여 인터뷰한 결과, 그룹에 따라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차이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기준과 동일한 맥락을 보였다.

- 제주농민의 경우 밭담을 예로부터 농업과 함께 해오던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인식하고 조상의 힘든 삶을 기억하며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유지의 기반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모두 제주밭담과 제주 돌담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제주인의 개척 정신과 삶의 지혜를 제주밭담과 연관지어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의 경우 제주밭담의 경관성에 주목하여 정서적으로 주는 안정감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제주인의 삶과 연관시켰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제주밭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행정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FAO GIAHS 전문가 및 학자의 경우 제주밭담의 농업 유산적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밭담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밭담축제와 밭담길 걷기 등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국가 간의 연구교류를 통해 국내외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제주밭담장인의 경우 밭담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밭담과 돌담 간 기능 및 시공방식에 명확한 차이인식을 보였다. 밭담은 농작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밭의 경계를 만들어 외담 형식의 막담으로 시공을 하며 돌담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겹담 형식으로 시공을 한다고 응답해 제주밭담과 제주돌담은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제주 전반의 문화/철학/사회 연구가를 인터뷰한 결과 제주밭담을 관광자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고 시각적 프로그램, 입체영상제작 등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이후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선정하는데 있어 토지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선정기준 5가지(식량안보 및 생계수단기능, 전통농업지식 및 기술, 농업생태환경, 문화 및 지역사회의 역동성, 농촌경관)에 부합하는 제주밭담 연구를 지속하여왔고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제주밭담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축제, 사진전, 밭담길 개발, 밭담을 활용한 상품개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진행해 왔다.

- 그러나,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선정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FAO의 목표는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과 가난, 대를 잇는 농민의 암울한 미래를 보장하고 동시에 인류와 지역의 식량 확보와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면 농촌지역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FAO가 지향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의 본질은 농민으로부터 시작되며 농민의 생계 및 문화에서부터 전파된다. 제주의 경우에도 제주인의 오랜 철학이나 사회구조 형성과 배경, 민속자원의 농업지식과 전통 등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밭담농업유산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밭담의 FAO GIAHS 등재 진행과정을 공유 및 홍보를 꾸준히 해왔지만 제주밭담을 중심으로 한 제주농민들의 진정성(농민컬처, 농업문화, 농업기술 및 지혜, 밭담의 형태와 기능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의 홍보와 공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사회 · 교육 개발 중심의 유네스코 홍보와 같이 FAO GIAHS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밭담의 유래와 역사성 및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를 통해 FAO GIAHS 제주밭담의 농업적 기능과 가치, 제주농업문화의 우수성, 제주농업문화에 내재된 사회 및 문화 인식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밭담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찬

란한 생존의 지혜와 문화 및 역사를 규명하고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언론데이터분석, 설문조사, 그룹인터뷰(제주농민, 제주밭담농업유산 해설사, FAO GIAHS전문가 및 학자, 제주밭담장인, 제주 문화/철학/사회연구가)를 통해 제주밭담의 사회적인 인식을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제주밭담의 가치를 규명할 방향을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 제주는 화산섬으로서 농업환경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제주인들은 밭담이라는 농업문화를 활용하여 현재까지도 보존, 지속되고 있다. 고대 문헌에서도 밭담의 유래, 축조과정, 기능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역사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수놀음, 품앗이 등 제주전통문화와 연계하여 농민의 생계유지, 수려한 경관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제주밭담으로서,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 제주농업문화, 생활문화에 기반을 둔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인식확산을 위해 제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인의 생활문화는 농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인은 돌을 나르고 쌓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이유로 제주밭담이 허물어질 경우 제주농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며, 제주밭담의 필요성이 조명되고 이를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교육 ·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주는 밭작물 재배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 제주밭담이 곧 제주농업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확인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계층별로 구분된 프로그램으로 밭담 속에 있는 농작물 성장과정을 볼 수 있도록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밭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제주밭담의 중요성, 인식 또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둘째, 제주밭담의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제주밭담 축제, 밭담마을조성, 밭담길 코스 등 다양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지만 밭담축제기간을 포함하여 일시적인 유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밭담 축제의 기능을 확장하여 제주밭농업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밭갈기, 씨뿌리기, 밭 밟기, 제주농업민요 부르기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제주농업문화와 제주밭담의 연계성을 갖출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야 한다.

- 셋째, 제주밭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세계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밭담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등은 세계적으로 홍보되기에 언어의 한계가 있어 외국인들의 제주밭담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며 세계농업유산 지역과 상호교류, 동아시아 세계농업유산학회(ERAHS) 참가, 세계농업 아카데미아(이태리농업대학원, UN대학 등)와 연계한 공유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제주밭담 확산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제주의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만의 이색적인 농업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앞서 제시한 제주농민과 제주문화에 기반을 둔 제주사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본 연구의 언론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감소하는 제주밭담의 인식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족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짚어본다면 첫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FAO GIAHS 제주밭담 등재신청서, 몇 개의 선행연구로 제주농민과 제주밭담과 연계해서 연구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밭담의 사회적 확산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언론 빅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제주밭담을 보고 경험한, 소비자 생산기반(SNS)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그룹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의 신뢰성을 위해 인터뷰 문항을 사전에 설계하여 모든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룹에 따라 이해정도가 달라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제주밭담을 연구할 때 제주농민과 제주문화에 기반을 두어 제주밭담을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질적인 인터뷰 진행 시 계층별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맞는 집중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밭담의 사회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진행 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향후에는 본고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주밭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하여 제주밭담의 보전과 유산적 가치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 검토 등 지속가능한 제주밭담의 보전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1. 설문지

조사표 번호 □□ - □□□

■ 제주밭담가치에 대한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제주학연구센터 주관으로 2019 제주학연구비 공모사업인 'FAO 세계중유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내 제주 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정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동안 느낀 점과 생각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을 학술적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선생님의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 지역과 국가의 관광과 세계유산의 위상에 관한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 소통하는데 아주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수료 유원희

1. <u>일반사항</u> 질문입니다. 번호에 V표시 해주세요.

1. 성별	①남	②여			
2. 거주지	①제주도민	②관광객			
3. 학력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③대학교(재학, 휴학, 졸업)	④대학원	
4. 연령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
5. 직업	① 학생	② 사무직	③ 기술직	④ 농림어업	⑤ 자영업
	⑥ 공무원	⑦ 주부	⑧ 서비스직	⑨ 교직/연구원	⑩ 무직

※ 제주 밭담은 해당지역의 밭에서 나온 돌들을 담으로 쌓아 주변화산토지역의 밭농사를 가능케 한 담입니다.

* 자료 : 구글 이미지

2. 다음은 **밭담의 매력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밭담이 FAO세계중요농업유산(GIHAS)라는 것을 이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도의 농로, 경작지, 밭담, 산의 조화가 탁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밭담경관내 돌무더기, 많은 형태의 담들이 제주문화를 잘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밭담경관내 돌담이 소유경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밭담농업시스템은 토양유실을 방지한다는 점을 이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밭담농업시스템은 토양 보온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밭담농업시스템은 센바람을 순화시킨다는 점을 이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8. 밭담농업시스템은 들짐승 침입을 방지한다는 점을 이전에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제주밭담의 홍보자료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제주밭담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제주밭담이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 등재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더 홍보되길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제주밭담이 제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제주밭담이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제주밭담은 외국의 돌담과 다른 문화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제주밭담경관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제주밭담 경관을 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제주밭담 경관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제주밭담 경관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 연구제목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소　　속 : 전) 제주연구원 제주밭담사업단장

○ 성　　명 : 강승진

-. 제목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2.2 제주밭담 -> 제주밭담 가치

-. 2.2 제주밭담 내용속에 2.2.?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추가

-. 2.3.2에서 사회적인식 -> 사회적 인식
-. 연구결과에서 설문조사 내용과 연계된 결과를 제시해야 함
예) 제주밭담과 제주돌담 간 인식도, 이해도 정도
예) 제주밭담의 농업유산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방안
예) 제주밭담의 농업유산 가치와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방안 등

-.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참고자료 첨부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자 문 의 견 서

○ 연구제목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소　　속 :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성　　명 : 김 지 택

1) 연구논문의 목차 검토

○ '2. 이론적 고찰'에서 '2.1. FAO GIAHS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2.2. 제주밭담'의 순서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1. FAO GIAHS 제주밭담 농업시스템'보다 '2.2. 제주밭담'의 의미 폭이 더 넓음. 때문에 제주밭담의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FAO GIAHS로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일 것임.

○ '2.2, 제주밭담' 하위항목 가운데 '2.2.2. 밭담의 기능과 농업과 생활 (철학과) 문화'는 제목이 모호함.
- 이 항목에서 밝히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즉, 밭담의 기능을 통해서 농업과 생활문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 농업, 생활문화를 각각 고찰하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함.
- 혹, 밭담의 농업적 기능과 생활문화로 나뉜 것이라면 밭담의 기능이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밭담의 농업기능과 생활문화'라 해도 무방할 것임.

○ '2.2, 제주밭담' 하위항목 가운데 '2.2.3. 사회적 인식 속 돌담과 밭담의 차이'는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지 모호함.
- 돌담은 돌로 된 담을 통칭하는 것이고, 밭담은 밭은 두른 돌담을 의미함. 제주사회에서는 전달하려는 의미에 따라 혼용될 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상정할 수 없음.
- 즉, 돌담과 밭담은 등가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돌담>밭담) 당연히 인지(인식이 아니라)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이 항목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음.

○ '2.2, 제주밭담' 하위항목 가운데 '2.2.4. 제주농민이 인식하는 제주밭담유산의 의미'
- 제주농민은 현재도 제주밭담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밭담을 일차적으로 유산으로서 인식한다고 볼 수만은 없음. 따라서 이 제목은 '제주농민이 인식하는 유산으로서 제주밭담의 의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2.3. 사회적 인식'에서 2.3.1.과 2.3.2.는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핵심은 이 항목들이 아니라 다음 항목이므로.

○ '4. 연구결과'에서 '4.2. 한국학계...'는 '학계'로 수정하여 국내외 농업유산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일 것임.

○ '5. 결론 및 제안'에서 '5.1.'에서는 '결론'이 먼저 요약되어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자 문 의 견 서

○ 연구제목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소　　속 :

○ 성　　명 : 안행순

매우 필요한 연구가 아닌가 한다. 밭담이 갖는 지역의 전통적인 지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계승해간다는 것은 GIAHAS가 지향하는 바이다. GIAHS인증은 농촌부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적 혜택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IAHS로 인해 지역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전통적인 농업의 지혜가 확실하게 미래세대로 계승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국가농업유산이나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높아 각 지역이 지역자체에서의 가치확산은 물론, 타 지역과 연계하여 농업유산의 가치보존 및 농촌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농업생태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실적을 쌓고 있다. 몇 년 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열린 GIAHS국제포럼 행사의 규모는 제주포럼에 필적할 정도였다.

제주 밭담이 갖는 유산적 가치는 이미 FAO에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고 밭담이 어떻게 농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농업유산의 출발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하게 제기된 것이리라.

연구내용은 초기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의 지속성이야말로 앞으로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과 그에 관련한 생물다양성, 농촌경관, 지식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보전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제주 밭담의 농업시스템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동아시아의 농촌지역과 공동으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보전하려는 장기적 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자 문 의 견 서

○ 연구제목 : FAO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속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 소　　속 : 한국관광연구학회

○ 성　　명 : 정윤지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이 2014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밭담의 유산적, 사회적 가치도 폭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밭담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주 밭담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요농업유산을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로 편입하여 농업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TV, 신문, 잡지, 브로슈어, 블로그, 웹사이트 등의 매체, 포럼 및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농민 선정, 현장 실습, 시범 및 보급 사업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중요농업문화 시스템에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 외에 GIAHS 라벨 제품 개발, 농촌 체험 관광과 같은 농업문화시스템 보존 방식을 채택하고, 농업유산에 대한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유산지역의 농민들도 스스로가 농업유산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과 같은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벗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제주밭담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 관광정보 책자나 홈페이지에 제주밭담이 하나의 필수적인 attraction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밭담에 관한 책자나 엽서를 제작, 판매하여 '흑룡만리' 제주밭담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밭담이 포함된 올레코스에서는 제주 밭담의 의미가 담긴 스토리텔링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3.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2011년~2013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본보 '흑룡만리 밭담' 기획 농식품부 장관 표창 한라일보가 '흑룡만리 밭담' 기획을 연재하며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밭담의 보존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지역언론의 보도가 국가적인 의제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20131227
제민일보	제주 섬이 만들어낸 풍경 한라산과 오름들 사이로 바람이 떠돈다. 사방팔방 너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탓에 막아서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라산이 그리고 오름이 바람을 껴안아준 덕에 우리네 삶이 이어진다.	20131218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16)에필로그 제주밭담은 제주인이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일궈 온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바람결을 따른 곡선, 현무암의 검은색 등은 제주섬의 선과 색을 대표하는 제주 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20131218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15)세계농업유산 등재 동향 세계농업유산 등재 "끝이 아닌 시작" 실천계획 중요FAO 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강조정부 제주도 지역협의회 구성 등 도민 참여 적극 유도 제주밭담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될 수 있을까. 예상보다는 더디지만 가능성은 여전하다.	20131204
한겨레	제주 밭담과 청산도의 구들장 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제주 밭담과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을 찾아간다. '돌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구릉과 암석이 많은 청산도에서는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구들장 논을 만들어냈다.	20131203
한겨레	12월 3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사기획 창 '해양대전 북극'(한국방송1 밤 10시) 북극 항로를 놓고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쟁탈전을 담은 2부작 가운데 1부인 '코리안 골든 루트를 열다' 편. 얼음으로 뒤덮였던 북극 바다가 녹으면서 4254㎞의 북극 항로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20131202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14)아태지역 농업유산 워크숍 부각농업주체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 형성은 과제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향한 제주밭담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13일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은 제주밭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0131120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성큼' 제주TF팀 밭담 가치 알리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정부측 FAO 협조 요청 특위 한국 개최 제안도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이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세계농업유산 등재TF팀과 정부 관계자 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에 참석해 밭담의 가치를 알리고 등재 과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13111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흑룡만리 돌담밭’, 제주 관광분야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충분 제주 밭담의 보전과 활용관리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정비개발과 환경개선, 가치제고 위해 총 15억원 투입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연계해 축제 관광상품화 모색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 밭담’의 보전과 활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20131106
한라일보	제주밭담 보전 활용 ‘밑그림’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 밭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자원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완충지역을 대상으로 밭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밭담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1106
제민일보	밭담, 쓰라린 노동과 풍토가 만든 대지 예술 〈위크앤팡〉 제주미학기행 [김유정의 미학기행 멋과 미] 33. 판관 김구(4) ▲ 밭담, 삶의 대지예술, 세화, 2013. 김구, 참된 행동 깨끗한 용모 정중한 말 사사로운 일보다 공적 일에 민첩 제주의 밭담 역사적 원형 풍토적 상징 랜드마크 돌담 잡담 쌓기 전형 보여	20131103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12)중 일 등록사례와 제주 시사점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이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25곳. 이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동남아시아에 분포돼 있다.	20131023
제민일보	어릴적 신동...이규보가 천거하고 안향과도 친분 31. 판관 김구(2) ▲ 경계를 이루는 밭담 좌천된 나이 24세 임기 마친 나이 29세 5년여 동안 제주서 판관 지내 제주 민중들 억울함 탄원 김구 밭담 쌓고 경계 삼아 소유권 분명히 함 지포 김구의 등용 김구의 자는 차산(次山), 초명(初名)은 백일(百鎰)이었다가	20131020
제민일보	제주미학기행 제주미학기행 김유정의 미학기행, 멋과 미 – 31. 판관 김구2 어릴 적 신동 이규보가 천거하고 안향과도 친분 지포 김구의 등용 김구의 자는 차산(次山), 초명(初名)은 백일(百鎰)이었다가 구(垢)로 고쳤다. 호는 지포(止浦), 본관은 부령, 지금의 부안이다. 아버지는 고려 신종 때의 문신인 김의(金宜)로, 신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20131019
한라일보	[사설]제주농업유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한 조사에 의하면 제주돌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여㎞로, 이 가운데 2만2,000여㎞가 밭담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돌담은 지구(地球)를 약 3바퀴, 밭담은 2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다. 제주의 돌 밭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칭하는 이유다.	20131010
제민일보	해외 시스템 벤치마킹 전담 조직 필요 해외 시스템 벤치마킹전담 조직 필요 제발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보고서 발표 농업유산발굴 추진위 구성 자체 역량 강화도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해 중국 일본 시스템 벤치마킹, 전담 조직위원회 신설, 자체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1009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농어업유산 자원실태 파악해야" 제주지역 농어업 농어촌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농어업 농어촌유산 자원실태를 파악하고 가칭 '농업유산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더 나아가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20131009
한라일보	제주밭담 원형 훼손 가속화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능 제주전역 훼손율 평균 11% '심각' 갈수록 빨라져도시화 경지정리 농업형태 변화 너무 흔해 저평가경관직불제 도입 보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등 제안 제주대 고성보 교수(산업응용경제학과)에 따르면 제주의 돌담(밭담)의 총길이는 3만6000여km, 밭담은 2만2000여km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20131009
제민일보	해외 시스템 벤치마킹 전담 조직 필요 제발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보고서 발표 농업유산 발굴 추진위 구성 자체 역량 강화도	20131008
제민일보	제주 돌문화 상징 '밭담'의 역사적 기원 〈위크앤팡〉 제주미학기행 [김유정의 미학기행 멋과 미] 29. 판관 김구(1) ▲ 쓰라린 섬의 밭담 장대하게 펼쳐진 밭담은 기록상 800년의 세월 동안 이룩한 땀과 눈물의 상징 판관 김구 밭담 쌓아 소유권 분명히 한 조치는 지방토착 세력 미움 사는 행동 용어의 혼란과 폐해 대를 이어 세습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31006
제민일보	제주미학기행 제주미학기행 김유정의 '미학기행' 멋과 미 – 판관 김구1 제주의 돌문화의 상징, 밭담의 역사적 기원 용어의 혼란과 폐해 대를 이어 세습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함부로 바꿔 사어(死語)로 만들어버리는 일은 무슨 때문일까.	20131005
제민일보	'세계화'한다면서 콘텐츠 개발 남의 일 '세계화'한다면서 콘텐츠 개발 남의 일 제주잠녀 유네스코 등재 안갯속 ②부서 간 공조 미흡 걸림돌 조례 전담 때 부터 시작된 부서 간 미루기 여전 복합유산농업유산 등 각개전투 역량결집 주문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란 타이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친 영향력을 컸다.	20131003
제민일보	말로는 '세계화' 한다면서 조례 전담때부터 시작된 부서간 미루기 여전 복합 농업유산 등 각개전투 역량결집 주문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란 타이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친 영향력을 컸다.	20131002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10)제주미학의 정수 땅의 경계선 넘어 계절 변화 담아내는 새로운 풍경"도시화에 밀린 천덕꾸러기 아닌 제주살릴 문화자원" 제주밭담의 바람결을 따른 곡선, 현무암의 검은색 등은 제주섬의 선과 색을 대표하는 제주 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 한국의 거주생활 부문에서 제주 돌담을 한옥, 온돌, 초가와 더불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했다.	20130925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SBS	제주 '흑룡만리' 세계 농업유산 등재 추진	20130921
	제주의 흑룡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끝없이 이어진 현무암 돌담이 꿈틀거리는 흑룡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흑룡만리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JIBS 안수경 기자입니다.돌담을 모두 이으면 10만리까지 간다는데서 유래한 제주 흑룡만리.현무암 돌담은 녹두밭을 감싸안듯 애워쌓습니다.	
한라일보	한 중 일 협력 한 목소리 세계농업유산 등재 발판 기대	20130904
	중국과 일본 등재 과정 노하우 공유 계기밭담 등재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기 도정부 역할 등 뒷받침되면 연내 등재 가능 제주밭담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한라일보	[월요논단]흑룡만리	20130902
	짧으면서도 아주 긴, 한 편의 시다. 흑룡만리. 제주 밭담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 한 구절에는 제주인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이 느껴진다. 거친 바람 속에서 박토를 묵묵히 일궈나가는 제주인의 한숨과 땀이 느껴진다. 바야흐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제주인의 기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라일보	"제주밭담 새로운 농업유산 유형"	20130829
	제주의 상징이자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기존 논농업시스템 위주의 세계농업유산과 차별화된 '새로운 스타일'의 농업유산이라며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한라일보	[사설]세계농업유산 도전 제주밭담의 과제	20130828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登載)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농업유산 보존 관리 및 연계 협력을 위한 한 중 일 워크숍'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라일보	농업유산 보존에 머리 맞댔다	20130827
	제주밭담이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유산 보존 관리 및 연계 협력을 위한 한 중 일 워크숍'이 2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다수의 세계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농업유산을 보존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라일보	"제주밭담을 '오래된 미래'로 가꿔야"	20130827
	강승진 박사, 보존 관리 위한 전략 제시제주밭담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핵심마을참여 유도-행 재정적 지원 등 담아 먼 훗날에도 제주밭담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농업환경 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밭담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제민일보	"도시 확산과 도로 건설, 제주밭담 위협"	20130826
	강승진 연구위원, 보존지역 지정 방안 등 강조 ▲ '농업유산 보존 관리 및 연계협력을 위한 한 중 일 워크숍'이 26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한 중 일 농업유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제주밭담의 보존방안 등이 논의됐다.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밭담 심의 앞두고 관심 집중 국제적권위 타케우치 심의위원 오늘 기조연설"亞, 세계농업유산 선도 한 중 일 연계 기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 보존관리와 연계협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이 25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막이 올랐다.	20130826
서울신문	조상 지혜 담긴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잰걸음 제주 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130823
한라일보	제주밭담 가치 알릴 절호의 기회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노력중인 가운데 농업유산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20130822
한라일보	돌담 세계 농업유산 등재 워크숍 26일 개최 국가농업유산 제2호인 제주 돌담밭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한 한중일 Workshop이 26일 오전 10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20130821
제민일보	1차산업 명과 암, 근본적 대책 필요 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어려움 가중 제주지역 1차산업이 2년 연속 조수입 3조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농가 부채도 증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20130820
제민일보	농가소득 늘어도 빚 갚느라 '헉헉' 제주지역 1차산업이 2년 연속 조수입 3조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농가 부채도 증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0819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8)밭담 길이 고려 중기 재산권 다툼 방지 경계용 밭담 쌓으면서 확산소 말 방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서 형성되기도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훼손 심각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제주밭담은 화산섬의 땅덩이를 잘게 쪼개며 구불구불 흐른다. 검은 현무암 물결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제주 전역으로 이어진다.	20130731
한라일보	"돌문화 밭담, 제주 아껴야 하는 이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제주의 돌문화와 밭담을 이해하고 그 진수를 만끽하려는 관심과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 일대를 찾아 제주 돌문화 답사에 나섰다.	20130722
한라일보	"돌문화 밭담, 제주를 아껴야하는 이유"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토요일인 지난 2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마을 일대를 찾아 제주 돌문화 답사에 나섰다. 답사에는 제주지회 회원과 가족은 물론 답사를 신청한 일반인..	20130721
제민일보	"농촌 농업 위기 6차산업화 해법" 고령화 과소화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0717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7)제주도와 제주밭담 돌의 나라 제주 농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레 형성삼재(三災)의 섬 기후적 특성에 대비한 생활 불가피 제주는 화산섬이다. 수백만년전 바다에서 솟았다는 거대한 땅덩이에는 제주의 탄생에서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이 깊이 새겨져 있다. 섬 어디를 가나 마주하는 화산활동의 흔적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며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는다.	20130717
한라일보	제주건축학회, 하도리 돌담 답사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가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 2013년 1차 건축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답사의 주제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밭담이다.	20130716
제민일보	제주밭담을 찾아 떠난다 제주밭담을 찾아 떠난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20일 건축답사 제주인의 지혜와 삶의 흔적이 담긴 밭담을 찾아 떠나는 건축답사가 진행된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오는 20일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2013년 1차 건축답사를 가질 예정이다.	20130716
제민일보	제주밭담을 찾아 떠난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20일 건축답사 제주인의 지혜와 삶의 흔적이 담긴 밭담을 찾아 떠나는 건축답사가 진행된다.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오는 20일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2013년 1차 건축답사를 가질 예정이다.	20130715
한라일보	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전 활용 청사진 국가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중인 '제주 밭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오는 7월부터 잇따라 착수된다.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원조사, 복원 정비, 축제, 석공 장인 발굴 지정, 농가소득화, 체험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밭담의 지속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0619
한라일보	이동필 장관,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필(사진) 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3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참석해 제주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 시스템 등 국내 주요 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협력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0619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5)세계농업유산(GIAHS)의 국제동향 [특별기고/이응철 교수 일본 국립 사가(佐賀)대학 농학부] 중국 일본 칠레 등 범국가 차원 등재 열기주민 자긍심 브랜드 강화 등 '농촌 재발견'제주밭담 제주인 삶 문화 동시 부각 필요	20130619
한라일보	[백록담]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밭담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온천마을 휴양지에서 열린 세계농업유산 국제회의는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 국제회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프로그램과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총회와 다름없다.	20130612
한라일보	[편집국에서]한번 잘못한 선택은 4년을 후회한다 제주지역에서 공무원이 최고 선호 직업으로 꼽혔다. 일반도민이나 취업준비생 모두 공무원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사와 공기업 직원순이다. 이유는 직업 안정성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와 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20130610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49호 발간	20130606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이 제주돌담을 특집기사로 조명한 ‘삶과 문화’ 49호(사진)를 발간했다. ‘제주돌담, 바람을 뚫다’를 주제로 세계농업기구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제주돌담을 도민 생활사와 연계해 살펴보고, 돌담에 홀려 사진을 찍어온 사진작가들을 만나봤다.	
제민일보	「삶과 문화」 49호 발간	20130605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 이하 재단)의 기간지「삶과 문화」49호가 발간됐다. 이번은 ‘제주 돌담’을 특집기사로 조명했다. ‘제주 돌담, 바람을 뚫다’를 주제로 세계농업기구의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제주 돌담을 도민의 생활사와 연계해 살펴보고, 돌담에 홀려 사진을 찍어온 사진작가들을 만나봤다. 제주 밭담의 가치..	
한라일보	“제주밭담 보전 활용계획 뒤따라야”	20130605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재 이후에 제주밭담의 종다양성과 경관, 문화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관계자들은 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4)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	20130605
	각국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 잇따라 경쟁 치열세계농업기구 핵심 관계자 제주방문 사실상 실사신청서 보완 8월 제주 개최 한중일 워크숍 분수령 제주의 상징이자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의 반열에 오를수 있을까.	
한겨레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제주밭담, 농업유산 등재할 가치”	20130605
	‘제주밭담’은 하나하나 제주 사람들의 땀으로 빚어졌다. 800여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밭담은 경계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헤쳐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밭담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이 녹아들어 ‘돌의 섬’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주의 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한라일보	[사설]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전제조건	20130604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서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포럼에 공식 참석,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라일보	FAO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자격 충분”	20130604
	지속 보전 전통 농업문화 발전위한 실천계획 주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핵심 관계자는 3일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며 다섯가지 영역(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FAO, “제주밭담, 농업유산 등재할 가치”	20130604
	‘제주밭담’은 하나하나 제주 사람들의 땀으로 빚어졌다. 800여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밭담은 경계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헤쳐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밭담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이 녹아들어 ‘돌의 섬’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밭담 '호평' 세계농업유산 '성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를 추진중인 '제주밭담'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이 이어졌다. 제주밭담이 서류심사와 실사, 그리고 국제기구가 자문 요청한 후속 보완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0130603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국제포럼 무엇을 남겼나 제주인 지혜 문화 경관 역사 차별성 등 찬사FAO 한중일 국제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계기신청서 보완 시급 도민 공감대 형성도 과제 제주의 상징이자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주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30603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분수령 제주의 농업유산인 '흑룡만리 제주 밭담'을 국가농업유산에 이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다가왔다. 우리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공식 일정으로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GIAHS 국제포럼과 한 중 ..	20130522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3)제주밭담의 유형 지역마다 농업형태 토양 기후 달라 밭담 유형도 저마다돌 쌓인 형태 따라 크게 한줄 외담과 두줄 겹담으로 구분걸어 다닐 수 있는 잣길에서 선조들 지혜와 이웃 배려도 제주 밭담은 바람을 걸러주는 '거대한 그물'이다. 도 전역을 수놓은 현무암 물결은 바람을 막아 농토를 보호하고 농작물을 길러냈다.	20130522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2)제주밭담의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엔 밭과 밭의 경계라고 기록농사 위해 밭의 돌 골라내며 생긴 산물로 추정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주는 수많은 조각을 짜 맞춘 듯하다. 사방에 펼쳐진 검은 밭담은 섬이라는 덩어리를 잘게 쪼개며 구불구불 흐른다. 도 전역을 수놓는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으로 손꼽힌다.	20130508
한라일보	[편집국에서]도시계획조례 심의 도의회 역할 주목 한라일보가 22일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한라일보는 이날 명실상부한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재삼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라일보는 창간에 맞춰 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을 집중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 생물권, 자연유산, 지질공원에 이은 세계유산 시리즈 물이다.	20130429
한라일보	[사설]'黑龍萬里 제주밭담' 집중 조명한다 마닐라가 위치한 필리핀제도 최대의 섬 루손(Luzon Island).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라 불리우는 이푸가오 다랑이논으로도 유명하다. 이푸가오 다랑이논은 해발 1000~1500m 고지대에 형성돼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산줄기가 모두 크고 작은 논이다. 논둑을 이으면 지구의 반바퀴인 2만2400㎞에 이른다.	20130423
한라일보	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 집중조명 한라일보는 창간 4반세기를 앞둔 올해 24주년을 맞아 제주의 소중한 전통유산인 '흑룡만리 제주밭담'을 집중 조명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가치를 발굴 선양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온 한라일보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세계유산 시리즈다.	2013042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창간24특집/흑룡만리 제주밭담](1)프롤로그 길이 2만2000여 km '黑龍萬里' 세계의 보물로고려때 경계쌓기 기록 제주 미학 정수로 평가국가농업유산 첫 지정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본보, 밭담 가치 발굴 보존 활용위한 방향 제시 제주의 상징 중 하나인 밭담이 후손에 물려줄 '유산자원'으로서 보전관리는 물론 브랜드로 활용해 나가는데 분수령을 맞았다.	20130422
한라일보	[목요담론]제주밭담과 지역유산의 중요성 '유산(遺産)'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 풀이된다. 선대가 삶을 영위했던 방식과 재산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대들이 이어받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편이 됨은 물론이다. 근래 들어 제주지역에서도 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0418
한라일보	[백록담]'흑룡만리 제주밭담' 내셔널 트러스트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해안에 위치한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지구상에서 규모면에서나 경관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주상절리대이다. 규모면에서 비교할 순 없지만 제주의 대포 지삿개 주상절리대를 연상시킨다.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해안을 따라 뻗은 100여m 높이의 현무암질의 절벽을 따라 약 4만여개의 주상절리가 바닷가에 늘어서 있다.	20130417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주의 농업유산이자 명물인 '제주 밭담'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시각에서 조명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30402
한라일보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세계농업유산 신청 정부는 최근 '제주 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밭담'은 오는 5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FAO총회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표를 거쳐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등재 ..	20130401
한라일보	[편집국에서]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동참합시다 '지슬'이 돌풍이다. 지슬은 제주4 3을 다룬 독립영화다. 관객몰이가 다른 지방까지 번지고 있다. 4 3 65주기와 맞물려 당분간 바람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전국 누적관객수가 5만여명이다. 상업영화 관객수와 견주어 만만치 않은 숫자다.	20130401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작업 본격화 밭담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지표 설정 등 제시보존 활용 위한 3대과제 6대전략 실행계획 주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밭담'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0328
한겨레	거친 바람 품어내는 '밭담' /너그러운 제주인 닮았네 제주의 검은 밭담은 '돌의 섬' 제주도의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제주도 어디를 가도 보이는 숭숭 구멍이 뚫린 현무암 밭담은 비바람에 결코 눕지 않는다. 세찬 바람은 투박하고 거친 돌틈과 돌틈 사이로 빠져나간다.	20130318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겨레	거친 바람 품어내는 '밭담' 너그러운 제주인 닮았네 제주의 검은 밭담은 '돌의 섬' 제주도의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제주도 어디를 가도 보이는 숭숭 구멍이 뚫린 현무암 밭담은 비바람에 결코 눕지 않는다. 세찬 바람은 투박하고 거친 돌틈과 돌틈 사이로 빠져나간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가면 밭과 오밀조밀 이어진 제주 밭담의 원형을 볼 수 있다. 검은색 제주도 현무암의 돌담이 끝없이 이어져 흘러..	20130317
경향신문	'흑룡만리' 제주 밭돌담, 과연 10만리나 이어졌을까? 커먼 현무암의 밭돌담이 끝없이 이어진다. 길이가 10만리에 이른다고 해서 '흑룡만리'로 불리는 제주 밭돌담의 정확한 길이와 가치는 얼마나 될까.	20130312
경향신문	'흑룡만리' 제주 밭돌담, 과연 10만리나 이어졌을까? 제주 밭돌담이 지난 1월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관자원으로서의 인문학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세계농업유..	20130311
한라일보	"제주밭담 총 길이 전수조사해야" 조례 장인 육성 등 세계농업유산 등재 방안 제시"훼손지역 조사 2만2108㎞ 추정치는 오차 '흑룡만리' 대신 유물의 가치 담긴 명칭을"	20130311
한라일보	"제주밭담 총 길이 전수조사해야"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생태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밭담의 총 길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30310
제민일보	농업유산 가치 도민공감대 필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도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농업유산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지역 자원의 브랜드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0309
제민일보	농업유산 가치 도민공감대 필요 8일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전략서 제기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도	20130308
한라일보	농업유산 제주 밭담 조명 잇따라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제주 밭담을 조명하는 전국단위 워크숍을 비롯해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 농촌 유산 보전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30306
한라일보	[사설]세계농업유산 가능성 큰 제주밭담 '제주밭담'은 도내 농경문화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제주인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유산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제주돌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여㎞로, 이 가운데 2만2000여㎞가 밭담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제주의 돌밭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30304
한라일보	국내외 전문가들 보완 충고 잇따라 "밭담만으로 한계" 경작시스템 농업문화 등 중시도 TF팀,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후 이달말 제출 '흑룡만리 제주 밭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보완해야 할 난제를 만났다. 등재 신청서 준비 자문과정에서 국내 외 전문가들이 제주 밭담의 국제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밭담만으로는 등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충고를 했기 때문이다.	2013030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밭 한평사기 경관직불제 축제 제안 보존 활용 위한 6대 전략 세부과제별 실행계획 제시가치확산 자발 참여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도화 등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흑룡만리 제주 밭담'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초안이 공개됐다.	20130301
한라일보	'돌담밭' 내달 세계농업유산 신청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전문가 TF팀을 구성 가동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20130213
한라일보	[사설]돌담 보전 관리방안 마련 서둘러야 제주 돌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만2000㎞ 가량이 밭담이다. 구좌읍 평대 행원, 조천읍 북촌, 애월읍 곽지 신엄, 한경면 용수리 일대의 밭담이 특히 경관가..	20130128
한라일보	후손 물려줄 자원 보전관리 새전기 세계식량농업기구 2002년 도입 엄격 심사11개국 19개소 등재 19개국 31개소 후보에제주 돌담밭 3월쯤 신청 보완 대책 필요 제주 돌담 밭이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이 새로운 브랜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주도와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제주 돌담 밭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방침이다.	20130128
한라일보	제주밭담 훼손율 평균 11% '심각' 제주 전역에 산재한 밭(돌)담은 구좌읍 평대 행원, 조천읍 북촌, 애월읍 곽지 신엄, 한경면 용수리 일대가 특히 경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30125
한라일보	농업유산 '돌담밭' 보전 활용 전기 주의 상징 중 하나인 '돌담 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본보 21일자 1면)을 계기로 보전관리와 브랜드로 활용해 나가는데 분수령을 맞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후속대책에 착수, 오는 3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 이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포럼에 발표, 등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0123
한라일보	[열린마당]밭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의미 밭담이 '흑룡만리(黑龍萬里) 제주돌담밭'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 돌담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10만 리가 된다고 한다. 끝없이 이어진 그 모습이 흑룡의 꿈틀거리는 모습을 닮았다 해 '흑룡만리'라 부른다. 제주의 대표적 경관의 하나인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밭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20130123
한라일보	[사설]지키고 보듬어야 할 문화유산 '돌담' 제주의 밭 돌담이 돌염전 원담 불턱 등과 함께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을 통해 체계적 보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0121207
제민일보	밭담, 노동미와 자연미의 기막힌 융합 밭담 역사적인 의미, 풍토적 상징, 랜드 마크 등 제주 대표 문화 지표 미학적 가치 노동미와 자연미의 융합, 노동과 자연이 만든 대지 예술 밭담, 노동과 생산의 상징물 어떤 것도 익숙하다보면 종종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잊게 된다.	20121207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黑龍萬里’ 세계유산적 가치 재평가	20121206
	돌담 길이 3만6000km 중 밭담 2만2000km제주인 생존 버팀목 경관 가치도 높게 평가복합유산 핵심자원 훼손 심각 대책 절실 제주의 전역에 산재한 밭 돌담이 농어업 국가유산자원으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유산자원으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주의 자원에는 밭 돌담 외에도 돌염전과 원담, 불턱 등 제주의 전통 돌문화가 두루 포함돼 있다	
제민일보	환경과 웰빙	20110507
	환경 맞선 선조들의 지혜 담은 유산 곳곳에 널린 돌 쌓아 토지경계, 바람막이, 농작물 보호 등 이용 매년 훼손 심각 경관적 가치 1000억원 이상 보호대책 시급 삼다라 불리는 제주에 육지사람들이 처음 왔을때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제주돌담이다.	
제민일보	척박한 자연환경 맞선 선조들의 지혜 담은 유산	20110506
	〈위크앤팡〉 환경과 웰빙 [김종우의 우리생의 아름다운 녹색] 보존해야할 문화 : 제주돌담	

〈 2014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중도일보	금산인삼수출 3000만달러 달성 '쾌거' 금산군이 올 한해 주요성과와 이슈가 됐던 금산군정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금산인삼 수출 최고액 달성을 비롯해 인삼약초산업의 새로운 도전, 삶의 질 향상 등 금산발전의 변화를 가져온 사안들이 뽑혔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금산인삼 수출 3000만달러 달성 ▲금산인삼 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삼효능 과학적 검증 ▲깻잎 3년 연속 400억원대 매출	20141231
중도일보	[금산 10대뉴스]금산인삼수출 3000만달러 달성 '쾌거' 금산군이 올 한해 주요성과와 이슈가 됐던 금산군정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20141231
한라일보	[2014년 한라일보 선정 10대 뉴스] ① 304명의 목숨 앗아간 세월호 참사	20141225
한라일보	본지 흑룡만리 제주밭담 일경언론상 제주밭담 역사와 유형 조명보존 방안 다각도 모색평가 본지 강시영 부국장과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가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이 선정하는 일경언론상을 수상했다. 강 부국장 등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일경언론상 시상식에서 '흑룡만리 제주밭담' 기획기사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41211
한라일보	제주MBC 제주밭담 다큐 제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진용)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제주 밭담(연출 김연화, 촬영 김기호)'이 이달 24일 밤 11시 15분 방영된다. 최근 제주 밭담은 농업용 기계의 사용을 불편하게 하고 토지 측량 등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허물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바람을 이겨낸 제주 밭담의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보여준다.	20141124
한라일보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일경언론상 한라일보 특집기획 '흑룡만리 제주밭담'이 올해의 일경언론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은 최근 심사를 거쳐 제18회 일경언론상 수상작으로 한라일보 강시영 부국장과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의 '흑룡만리 제주밭담'(장려상) 등 모두 3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1118
국제신문	본지기획 '부산을 극지연구 ' 18회 일경언론상 장려상 선정 국제신문 기획시리즈 '부산을 극지 연구 허브로'가 올해 일경언론상 장려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은 제18회 일경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지 해양수산부 오상준, 사진부 박수현, 서울경제부 정옥재 기자가 보도한 '부산을 극지 연구 허브로' 등 3건을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20141117
국제신문	기둥1-오상준 박수현 정옥재 기자, 일경언론상 수상 조봉권 기자 국제신문 기획시리즈 '부산을 극지 연구 허브로'가 올해 일경언론상 장려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은 제18회 일경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지 해양수산부 오상준, 사진부 박수현, 서울경제부 정옥재 기자가 보도한 '부산을 극지 연구 허브로' 등 3건을 뽑았다고 16일 밝혔다.	20141117
한라일보	2014 지역신문 컨퍼런스 한라일보 금상 수상 한라일보사가 '2014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기획보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금상을 수상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동 이하 지발위)는 지난 3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4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라일보는 이날 '흑룡만리 제주밭담-세계농업유산 등재' 기획보도 (팀장 강시영 편집부국장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로 수상	20141105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경인일보	[로컬 네트워크]군포중앙도서관, 시인 작가 시민과 대화 군포시중앙도서관에서는 사람책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인과 동화작가가 시민과 만나 시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4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소극장에서는 김영애 시인이 '누가 시를 쓰는가'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 김 시인은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14년간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2008년 시인으로 등단해 한국시인협회원, 군포문인협회..	20141104
경기일보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람책' 활동 시인 작가와 시민 만남 특강 개최 군포시 중앙도서관에서 '사람책'으로 활동하는 시인과 동화작가가 시민과 만나 시와 책에 관해 이야기한다. 현재 군포에 거주하며 각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김영애 시인과 박소명 동화작가는 최근 신간을 발행한 기념으로 군포시민과 만나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시와 책 쓰기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	20141104
한라일보	"'제주밭담기획' 지역유산 브랜드 극대화" 한라일보사가 '2014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기획보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금상을 수상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동 이하 지발위)는 지난 3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4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라일보는 이날 '흑룡만리 제주밭담-세계농업유산 등재' 기획보도 (팀장 강시영 편집부국장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로 수상의 영예를 안..	20141103
한라일보	제주 밭담 등 국가농업유산 정부 지원 명문화 제주도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안정적 예산확보와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사진) 위원장은 30일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1031
한라일보	지혜로운 사람들 제주밭담을 쌓다 박소명 그림책 '흑룡만리'옛 이야기 방식으로 밭담의 가치 담아 화산섬 거친 땅 곳곳을 가로지르고 서있는 검은빛 밭담. 봄여름가을겨울 그 땅에서 자라고 뽑히고 다시 자라는 곡식처럼 오랜 생명력을 이어온 존재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늘상 눈에 걸리는 밭담이어서 그랬을까. 세월의 파고에 밀려 밭담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걸 미처 몰랐다. 지난 4..	20141031
한라일보	[그곳에 가고 싶다](84)김녕 월정지질트레일 길열림 행사 동굴위 사람들 이야기길을 걸으며 25일 출발지 김녕어울림센터서 행사 다채'웃당 보민' '빙떡' 등 제주어 노래 선사김녕 돗제와 월정 해신제 재연도 관심거리 최근 며칠 비날씨가 이어져서 그런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다. 그래도 낮시간대는 햇살이 따갑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하늘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게 영락없는 가을이다.	20141024
문화일보	화산암반 깨서 밭 일군 고단한 삶 탐라의 마지막 '민낯'을 만났습니다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두르고 있는 섬입니다. 채도가 다른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빛깔과 고운 모래사장, 화산이 빚어낸 독특한 해안 지형, 한라산과 억새가 물결치는 오름 . 제주야말로 여행의 욕망을 넘어서 '그곳에서 살기'를 꿈꾸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두 세대 이전 쯤으로 시간의 태엽을 감는다면 제주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었습니다.	2014102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문화일보	화산암반 깨서 밭 일군 고단한 삶 탐라의 마지막 '민낯'을 만났습니다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두르고 있는 섬입니다. 채도가 다른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빛깔과 고운 모래사장, 화산이 빚어낸 독특한 해안 지형, 한라산과 억새가 물결치는 오름 .	20141022
국민일보	[뉴스파일] '김녕 월정리 지질 트레일' 10월 25일 개통 제주관광공사는 화산 지형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 월정리 지질 트레일'을 25일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은 제주관광공사가 2010년 수월봉, 지난 4월 산방산 용머리해안에 이어 조성한 세 번째 지질 탐방길이다. 전체 길이 14.6㎞로 지질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걸으면 5시간가량 소요된다. 이 코스에는 세계중요농업..	20141020
한라일보	[백록담]제주관광의 새로운 비전 '지질트레일' 유네스코의 국제보호지역 프로그램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는 세계지질공원(Global Geo Park Network GGN)인 것 같다. 국내는 물론 각국과 세계 유수의 관광명소들이 앞다퉈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갖는 관심은 열풍에 가깝다. 최근 캐나다 스톤헤머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는 11개소가 신규 인증받았다. 총회 개최국 캐나다를 비..	20141020
한국일보	제주 김녕 · 월정 지질트레일 25일 개통 제주관광공사는 20일 "세계지질공원 제주의 핵심명소인 만장굴이 위치한 지역을 아우르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 · 월정 지질트레일'을 오는 2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41020
한라일보	[길 路 떠나다]김녕 월정지질트레일 동굴위 사람들의 옛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명품길길이 14.6km 김녕 월정지역의 모든 것을 담아내코스 곳곳 바다와 밭을 매개체로 한 포인트 눈길잘 보전된 월정리 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핵심 제주는 세계지질공원이다. 지질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곳보다 뛰어나다는 뜻이다. 이런 제주에 수년전부터 지질과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합쳐진 관광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	20141017
서울신문	[이 주일의 어린이 책] 흑룡 똬리 튼 제주 밭담의 비밀 제주 밭담 이야기 흑룡만리/박소명 지음/민들레 그림/우리아이들/40쪽/1만2000원	20141004
한라일보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 '명품 브랜드' 예감 다양하고 독특한 지질자원 민속 문화 경관 '한눈에' 수월봉 산방산 용머리 이은 세번째 지질트레일 개발 제주관광공사, 이달 25일 길 열림 행사 막바지 준비 제주관광공사가 또 하나의 지질트레일을 선보인다.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이다. 지난 4월 산방산 용머리 해안 지질트레일을 개발해 길 열림행사를 한 이후 또 하나의 명품 지질크레일 코스를 예감케 한다. 이..	20141003
한라일보	세계지질공원 '동굴 위사람들의 이야기 길' 녕 월정 지질트레일 개발14.6km 오는 25일 개통식세계농업유산 '밭담'도 연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쾌거에 발맞춰 제주에 세번째 지질트레일 작품이 선보인다. 제주관광공사는 세계지질공원 제주의 핵심명소로서 만장굴이 위치한 김녕 월정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을 오는 25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2014100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충청투데이	금산인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금산인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금산군,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논의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일 공주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금산인삼의 농업유산..	20140924
중도일보	금산인삼 국가농업유산 등재 머리맞대 [대전=중도일보]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일 공주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0923
중도일보	금산인삼 국가농업유산 등재 머리맞대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일 공주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부대학교 강신정 교수의 '금산 인삼농업의 특징과..	20140923
충청일보	금산인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금산=충청일보 정해구기자]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19일 공주시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에서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	20140923
대전일보	금산인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금산]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금산인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부대학..	20140923
MBC	세계농업유산 등재된 '제주 밭담' 관광명소 추진 활발 밭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 현무암을 쌓아 만든 제주도의 밭담. 올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 밭담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140910
MBC	'흑룡만리'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관광자원으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유산, 제주 밭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밭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 현무암으로 쌓아 만든 말 그대로 밭담인데 이 밭담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의 평야 지대를 모자이크 조각처럼 흐르듯 잘게 쪼개고 있는 검은색의 밭담. 현무암을 쌓아 밭의 경계..	20140909
한라일보	종이 콜라주 이용 기운생동 제주馬 연고 없는 제주에 정착해 말(馬) 조형작업에 몰두해온 유종욱씨. 도자조형으로 흙의 물성을 이용한 작품을 주로 선보였던 그가 이번엔 종이 작업으로 말이 있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2014081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중부일보	관광공사 선정 여름 힐링여행 21선 – 한국의 섬 을릉도 도동항 본격 휴가철인 여름철에 복잡하고 북적대는 바다와 계곡을 피해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은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관광공사는 휴가철인 여름철을 맞아 우수한 힐링여행상품 21선을 6일 선정했다. 힐링여행상품을 섬 7선, 내륙권 8선, 해안권 6선 등 3개로 나눠 뽑았다.	20140706
한국일보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여름힐링여행 21선' 본격 휴가철인 여름철에 복잡하고 북적대는 바다와 계곡을 피해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관광공사는 휴가철인 여름철을 맞아 우수한 힐링여행상품 21선을 6일 선정했다.	20140706
아시아경제	구례 산수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세계농업유산(GIAHS)으로 가는 궤도 진입 성공"[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구례 산수유농업'이 마침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구례군은 2013년 9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1?2차 심의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3개 자원이 심의에 올라 16일 국가중요농업유산 ..	20140625
매일경제	[어제의 문화 내일의 유산을 여행하다]제주 밭담 세계농업기구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산하기구에서 한국의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밭담을 '세계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들장논에 이어 '흑룡만리'라 불리는 신화적 존재 제주밭담을 여행 모티브로 소개한다.	20140514
한라일보	[편집국에서]서귀포시의 전향적인 행정조정력 절실 본보가 22일로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독자와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 한라일보는 문화관광부의 10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됐다. 도내 일간지로서는 유일하다. 한라일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사람중심의 신문, 칭찬하는 신문,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20140428
한라일보	본보 '흑룡만리 제주밭담'기획연재물 이달의 기자상 선정 한라일보가 지난해부터 기획 보도한 '흑룡만리 제주밭담'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심사회의를 열고 제28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한라일보 강시영 부국장과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의 '흑룡만리 제주밭담' 등 모두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흑룡만리 제주밭담'은 한라일보가 지난해 초부터 이어온 기획 연재..	20140424 20140424
한라일보	본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이달의 기자상 선정 한국기자협회, 강시영 강경민 김지은 기자 기획보도 한라일보가 지난해부터 기획 보도한 '흑룡만리 제주밭담'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심사회의를 열고 제28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한라일보 강시영 부국장과 강경민 차장, 김지은 기자의 '흑룡만리 제주밭담' 등 모두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0423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매일경제	[어제의 문화 내일의 유산을 여행한다]완도 구들장논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찾아 나서다	20140423
	21세기 들어 국제기구의 두드러진 활동 가운데 '지정 마케팅' 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최근에 완도 구들장논과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되자 두 가지 문화에 대한 여행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청산도 구들장논과 주변 여행지를 소개한다.	
한라일보	[사설]본보 '10대 특별기획' 지역 의제 선도한다	20140423
	한라일보가 22일 창간 4반세기 25돌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10대 특별기획을 선보였다. 한라일보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해 제주를 넘어,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제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한라일보	[창간 25돌]한라일보가 걸어온 길	20140423
	창간 이래 지역현안 비전 발전적 대안 제시제주가치 재조명 유네스코 3관왕 달성 선도에코힐링 트레킹 주도 제주명품브랜드 정착제주언론사중 10년연속 우수신문 선정 유일신문-웹-모바일-SNS 결합 종합미디어 표방	
한라일보	[한라일보 창간 25주년]창간 10대 기획	20140422
	'제주-중국 말하다'부터생명의 숲 살리기밭담 제주를 넘어 세계로세계환경수도 방안 제시 한라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10대 특별기획을 선보인다. 4반세기 역사를 이어온 언론으로서 또다시 다가올 4반세기와 100년을 준비할 제주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다짐이다. 10대 기획은 '제주와 중국을 말하다', '세계인의 보..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제주를 넘어 세계로	20140422
	본보 등재 과정서 밭담의 미래가치 지속적 담론화농업유산 보존 활용 위한 인지도 제고 노력 절실 한마디로 '흔한 것의 재발견'이었다.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보존 활용 가치를 인정 받았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도 주목 받고 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밭담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	
한라일보	창간 25돌 맞아 10대 특별기획 펼친다	20140422
	'세계의 보물섬'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가 오늘 창간 25돌을 맞았다. 창간 사반세기 동안 제주의 미래 아젠다를 발굴해온 한라일보는 역사적인 25돌을 맞아 10대 특별기획을 선보인다. 이는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 사반세기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우리 사회의 길라잡이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10대기획은 ▷제주와 중국을 말하다 ▷세계인의 보..	
한라일보	[사설]한라일보 4半世紀,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140422
	도민성원 속 '제주 대표신문' 우뚝사람 중심 신문으로 제2창간 다짐올곧게 '언론의 正道' 걸어나갈 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제주도민의 파수꾼이 되겠다." 지난 1989년 4월 22일 고고성(呱呱聲)을 울리며 탄생한 한라일보의 다짐이다. 그리고 4반세기(半世紀)가 흘러 오늘 창간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국민일보	[톡톡! 한국의 문화유산] 화산섬 제주 미학의 걸작 밭담 하늘에서 보면 제주는 커다란 그림판과 같다. 중앙에 한라의 큰 봉우리가 우뚝 솟았고, 북에는 제주시가, 남에는 서귀포시가 자리 잡았다. 해안을 도는 길들이 한 바퀴 두 바퀴 타원형을 그리고, 크고 작은 오름 둘레로 각종 작물을 심은 밭들이 조각보처럼 붙어 있다. 바다를 향해 흘러내린 지형 때문에 밭 모양은 같은 형태가 없다. 밭담이 드러내는 선도 각각...	20140422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과 농업의 중요성 [현장시선] 농업은 흔히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제주에선 특히 그렇고 농업을 뺀 제주는 상상하기 어렵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농업이 곧 제주이고, 제주의 미래도 제주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주가 지난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때도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어온 농업..	20140418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기획특집 시의 적절" 한라일보 제9기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노상준)는 16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4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한달간의 신문 보도와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40417
한라일보	지속적 관리위해 낮은 인지도 끌어올리기 시급 보존 활용 실천계획서부터정부와 행정의 지원과 함께공감대 위한 도민교육 필수 제주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또 다른 시작이다. 세계적인 인증에 걸맞은 보존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러한 후속 조치 없인 자칫 허울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농촌경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최우선 과제다. 행정 중심이 ..	20140414
한라일보	농업유산 브랜드화해 농촌경제 활력 中 '벼-물고기 공생시스템'日 '계단식 논 산책투어'로보존 활용 두마리 토끼 잡아,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이들 두 나라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찌감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주목하고 그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곳은 25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40410
제민일보	사설 – 제주밭담 차별화된 콘텐츠 이어져야 사설 – 제주밭담 차별화된 콘텐츠 이어져야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생물권보존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지역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 4월 1일에는 '제주밭담'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등재..	20140409
한라일보	서서히 사라지던 밭담의 가치 일깨우다 제주 농업 지켜온 버팀목 불구 각종 개발 등으로 훼손 가속화원형 파괴에 밭담 자체 소멸도제주밭담 브랜드 가치 높아져 농촌발전 원동력 마련 큰 수확체계적 보존 관리 활용에 탄력	20140409
한라일보	"밭담 등재 농촌변화 전환점" 정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이동필 장관 "제도 정비 지붕없는 박물관 등 모색"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과 등재 기념 세미나가 지난 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	20140407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정부 “세계농업유산 에코뮤지엄 조성”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식품, 휴양시설이 융합된 종합 휴양공간인 에코뮤지엄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세계농업유..	20140407
한라일보	[편집국에서]생색만 내는 이름뿐 4 3추념일은 곤란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1일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확정했다. 제주밭담은 제주인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다. 이번 밭담 등재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12개국 27개소로 늘었다. 세계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환경에 적응하면서 100년 이상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제반여건..	20140407
한라일보	[사설]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밭담 ‘제주밭담’이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구들장논과 함께 지난 1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登載)됐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20140407
한라일보	“제주밭담 농업유산 가치 뛰어나” 밭담은 제주 사람들이 이뤄낸 역사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농업을 이어온 흔적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제도 총 책임자인 마사히토 에노모토 부국장은 5일 제주시 신흥리와 하도리 일대 밭담을 둘러보고 이렇게 밝혔다. 4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제주를 찾아 밭담 현장을 답사하는 ..	20140407
한라일보	“제주밭담 농업유산 가치 뛰어나” “밭담은 제주 사람들이 이뤄낸 역사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농업을 이어온 흔적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제도 총 책임자인 마사히토 에노모토 부국장은 5일 제주시 신흥리와 하도리 일대 밭담을 둘러보고 이렇게 밝혔다. 4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제주를 찾아 밭담 현장을 답사하는 ..	20140405
서울신문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에 국내 첫 등재 전남 완도 옆 작은 섬인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밭담이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20140404
무등일보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농업유산 등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은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FAO가 선정하고 있다. 알제리의 사하라 오아시스시스템, 케냐의 마사이족 목축..	20140404
경향신문	[포토뉴스]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청산도구들장논,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 농업 유산중 처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GIAHS)에 등재된 청산도 구들장 논 .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청산도 구들장 논과 더불어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등 2곳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4040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부산일보	완도 구들장 논 등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제주 밭담'이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고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11개국 25개 농업유산이 등재돼 있다.구들장 논은 우리나라 전통의 구들장 방식을 논..	20140404
제민일보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사진)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사진) FAO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보존가치 높다" 평가 국내 첫 지정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제고 기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제주 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제주 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인정해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서를 전달한다고..	20140404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은? 제주밭담은 제주전역에 분포한다. 면적이 542ha에 이르며 표본조사결과 길이는 2만2108km나 된다.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화산섬이다. 화산섬이라는 돌이 많은 지형적 특성은 섬의 척박한 농업환경을 가져왔다. 제주인들은 토양에서 골라낸 돌을 이용하여 2만2000㎞가 넘는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을 막는 기재로 활용했고 생물종 다양성과 농업문..	20140404
한라일보	정부 "세계농업유산 에코뮤지엄 조성" 제주밭담과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유산과 전통문화, 식품, 휴양시설이 융합된 종합 휴양공간인 에코뮤지엄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세계농업유산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20140404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됐다 식량농업기구 등재 확정 유네스코 3관왕 이은 쾌거보존 활용가치 높게 평가 FAO, 오늘 지정서 전달식제주도, 자원조사 보존관리 활용방안 종합계획 추진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의 반열에 올랐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제주인의 삶이 녹아있는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20140404
한라일보	본지,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견인차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라일보의 '제주밭담' 기획 보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밭담의 보존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0404
한라일보	농업유산제도 도입 배경 사례 한눈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무엇인가. 세계농업유산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라고 명명한 유산제도다. 제주밭담은 FAO에 '제주밭담 농업시스템'란 제목으로 신청서를 내 최종 등재가 결정됐다. 이 제도는 도입된지 오래..	2014040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이동필 농림 “밭담, 제주인 개척정신 지혜에 감탄” 4일 대전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이 장관 “제도 정비 지붕없는 박물관 등 활용 모색”FAO “등재는 시작단계 다각적 보전관리방안 중요”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이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FAO(유엔 식량농업..	20140404
헤럴드경제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우리나라 농업유산 중 처음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되었다고 3일 밝혔다. FAO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다. ..	20140403
한라일보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등재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의 반열에 올랐다.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제주인의 삶이 녹아있는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농업의 역사이자 농업인들의 지혜이며, 농촌지역 공동체요람인 ‘제주밭담’이 지난 1일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	20140403
한국일보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됐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올랐다. 우리나라 농업유산 중에선 첫 등재다.	20140403
세계일보	제주 ‘밭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청산도 구들장 논우리나라 농업유산 중 처음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사진)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사진)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20140403
세계일보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청산도 구들장 논우리나라 농업유산 중 처음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사진)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사진)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20140403
파이낸셜뉴스	‘청산도 구들장 논’등 FAO 세계중요유산 등재 우리나라 농업유산중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처음 등재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AO는 ‘청산도 구들장 논’에 대해 우리나라 전통의 구들장 방식을 논농업에 활용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은 땅을 ..	20140403
전북도민일보	유종욱 개인전, 말에게 말을 걸다 유종욱 작가가 12일부터 17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스무 번째 개인전’말에게 말을 걸다’를 펼쳐 보인다. 홍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전업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말(馬)’이 좋아 ‘말(馬)’을 사랑하고, ‘말(馬)’에 조형미를 담기 시작한 작가. 대학원 시절 조랑말의 상징성에 관한 논문을 쓴 후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0여 ..	2014031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국민일보	제주밭담 2만2천㎞ 상반기 세계농업유산 등재 전망 제주밭담에 대한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가 빠르면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세계농업유산 등재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밭담 도록 편찬과 제주밭담 중점관리지에 대한 DB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또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밭담정비 탐방코스 및 테마공원 조성 등에 나설 ..	20140214
국민일보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2014년 상반기 가능 제주밭담에 대한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가 빠르면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세계농업유산 등재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밭담 도록 편찬과 제주밭담 중점관리지에 대한 DB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또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밭담정비 탐방코스 및 테마공원 조..	20140213
제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속도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속도 도, 4월 이전 최종 지정여부 결정 전망 보전관리 종합계획 등 기반 구축 나서 제주밭담에 대한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가 빠르면 상반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밭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등재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	20140213
제민일보	제주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속도 도, 4월 이전 최종 지정여부 결정 전망 보전관리 종합계획 등 기반 구축 나서 제주밭담에 대한 세계농업유산(GIAHS) 등재가 빠르면 상반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밭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등재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40212

〈 2015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국일보	돌담, 그 아름다움 너머 제주의 돌담은 2014년에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선인들의 지혜와 과학, 거기에 최근에는 경관 차원의 아름다움까지 부각되며 세계인들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올레를 비롯한 제주의 들녘을 걸으며 돌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한다. 그들에게 돌담의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	20151227
한라일보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16일쯤 결정 '제주해녀'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평가가 11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에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위촉 자문위원회 위원 7명은 이날 해녀박물관을 방문, 해녀 조업 방식과 해녀 문화에 대한 전시물을 둘러봤다. 구좌읍 지역 김홍철 임백연 어촌계장과 해녀들을 만나 해녀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들었다.	20151211
한라일보	"세계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에 국비 지원은 '0'"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서귀포시 서홍 대륜동, 새누리당) 위원장은 4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51204
경향신문	감귤고장 제주에서 열리는 감귤박람회, 지질트레일 둘러보세요 11월, 제주색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다채롭게 열린다. 감귤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감귤전문박람회인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6일 개막해 15일까지 열흘간 감귤의 고장 제주 서귀포시에서 진행된다. '제주의 미래, 세계 속의 명품 감귤'을 주제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며 19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20151106
한겨레	'울멍줄멍한' 돌담 제주 문화의 아이콘 "돌, 돌, 그저 돌이다. 밭과 바다 사이 경계선으로 높직한 돌담을 쌓아놓았다. 육지에서 논두덩이나 밭두덩을 이 섬에서는 돌로 담을 쌓는다."(〈동아일보〉 1931년 8월18일) 일제 강점기 제주도 기행에 나섰던 한 여행자는 제주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제주도는 돌의 섬이다. 이방인들이 본 제주도는 사방이 온통 돌투성이와 돌담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20151101
중부일보	'올레길 걷자' 최정상 셰프들이 만든 요리 맛보세요 제주올레 21코스 토끼섬 바닷길[주말 제주권 가볼만한 곳] '올레길 걷자' 최정상 셰프들이 만든 요리 맛보세요 제주올레 21코스에서는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열린다. 국내 최정상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는 행사도 만날 수 있다. 흑룡만리(黑龍萬里)로 불리는 밭담에 깃든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제주밭담 축제'를 비롯해 '물메 로하스 축..	20151030
한라일보	10월 마지막 주말 "어디로..?" 10월을 뒤로 하고 11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말(31일 11월 1일) 제주에선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열린다. 국내 최정상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는 행사도 만날 수 있다. 흑룡만리(黑龍萬里)로 불리는 밭담에 깃든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제주밭담 축제'를 비롯해 '물메 로하스 축제', '제주옹기굴제'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20151030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경향신문	‘흑룡만리 제주밭담’ 축제로 즐기자 제주밭담축제 첫 개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소재로 한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도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주시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제주밭담 축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제주 밭담은 2013년 1월에 정부로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고, 지난해 4월1일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어업유산자원(GIAHS)에 등재됐다.	20151025
울산매일	제주 유채밭과 청보리밭 가른 밭담 풍경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유채밭과 청보리밭 풍경.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15 제주밭담 축제’가 30일 개막돼 내달 1일까지 열린다. 〉	20151025
한국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축제로 거듭난다 세계농업유산 지정 기념 첫 행사 구좌종합운동장서 30일 개막 검은색 현무암이 1만리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고 해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 불리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제주시 구좌종합운동..	20151025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전승축제 30일 개막 검은 용이 용틀임을 하듯이 구불구불 이어진 제주밭담의 아름다움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거무스름한 현무암으로 쌓은 제주밭담의 과학성과 창의성, 역사성을 인정해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등재했다.	20151023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축제에서 만나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제주시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제주밭담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농어	20151023
경향신문	“울퉁불퉁 제주 돌담 바람의 통로였네요” · 제주, 이주민 등 대상 ‘돌빛나예술학교’ 문 열어 제주 돌담은 바람과 맞서는 ‘벽’이 아니다. 바람의 통로다. 제주 돌담에는 돌과 돌 사이 ‘틈’을 바람에 내주는 여유가 있다. 대충 쌓은 듯 보이지만 제주의 거친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는 견고함을 갖는 이유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서귀포시 호근동 마을의 밭. 가을볕 아래 남자 예닐곱명이 무거운 ..	20151012
한라일보	제주해녀 등재 제주밭담 벤치마킹 필요 제주해녀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제주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과 과제’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현재 최초로 지정할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신청 ..	2015092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전남일보	세계 어디 또 있을까 22,100㎞ 밭담 삼다도라 했던가.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다는 화산섬 제주. 구멍 숭숭 뚫린 검은 돌이 가득한 불모지에서 세찬 바람을 막아내고, 농토를 만들기 위해 현무암을 쌓아 만든 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불리는 제주 밭담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미학을 연출한다. 어느 곳에서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작품이 되는 제주 돌..	20150911
머니투데이	세계의 청년들, 한국의 자연유산에 매료되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봉사자들 – 러시아, 폴란드, 터키 등 세계 각국서 참가자 모여 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 러시아, 폴란드, 터키 등 5개국 청년들이 제주 김녕리 마을에 세계유산자원봉사단 활동을 위해 모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하고 유네스코WHV아시아사무국, 국제워크캠프기구가 공동 주관하고 글로..	20150721
한라일보	故 조영필 서기관 눈물의 영결식 “사랑하는 동생 영필아. 이제 놓아주련다. 너하고 같이 오래오래 하고 싶지만 이제 놓아주련다.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거라. 영필아 너는 멋진 녀석이었다. 사랑한다. 잘 가거라” 고별사를 읽던 故 조영필(53) 서기관의 형 조성필씨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엄숙했던 영결식장도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20150709
한라일보	故조영필 서기관 영결식 도청葬 으로 엄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공무원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조영필(54) 지방기술서기관의 영결식을 9일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청장(葬)으로 엄수했다.	20150709
세계일보	하늘에서 받은 서기관 임용장 애도 물결 이어져 지난 1일 중국 버스사고로 숨진 고(故) 조영필(54) 서기관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3일 오전 제주도청 제1별관 3층 308호에 마련된 조 서기관 분향소에는 이날 하루에만 200~300명이 찾았다.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과 구성지 도의회 의장, 박규헌 부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 강덕재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대진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20150703
한라일보	제주메밀산업 육성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 메밀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나서 제주지역 메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 메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	20150609
한라일보	제주메밀산업 육성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지역 메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메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메밀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20150608
한라일보	1면용 – 아소 스트레이트 광복 70년 수교 50년 제주와 일본을 말하다/제5부. 세계중요농업유산 아소 (2)보전 활용 방안 아소가 제주밭담에 던지는 시사점 지역 내 기관 단체 참여 확대 민간 차원의 연구 모임 활발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의 농업은 초원 관리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해마다 들불 놓기(노야키)에 이어 방목, 풀베기로 농토를 일군다. 생산성이 낮았던 화산성 토양은..	20150608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와 일본을 말하다 – 7면 기획면 광복 70년 수교 50년 제주와 일본을 말하다/제5부. 세계중요농업유산 아소] (2) 보전 활용 방안 지역사회가 손잡고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 아소 세계농업유산 사무국 50여개 기관 단체 참여 기업 힘 보태 초원 유지 위한 기부금 제도 활성화 직판장으로 소비자와 신뢰 형성 교육 홍보 활동도 구마모토현 아소시 다이칸보(대관봉 935m)에서 내려..	20150608
국민일보	제주메밀, 세계명품화 사업 추진한다 제주도가 제주메밀의 세계 명품화 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신화에 등장하는 작물 중 하나인 메밀을 문화상품으로 스토리텔링화해 집중 육성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메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	20150601
한라일보	7면용 기사 – 아소는 어떤 곳 구마모토현 아소는 어떤 곳? 세계 최대의 칼데라 위에 펼쳐진 초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어 지질공원에도 등재 인위적 관리 시스템 속에 다양한 동식물 공존 아소(阿蘇)지역은 일본 구마모토현 북동부에 위치하며 7개 시 정 촌으로 구성돼 있다. 아소시를 중심으로 오구니, 미나미오구니, 우부야마, 니시하라, 미나미아소, 타카모리가 둘러싼 형태다. 세계..	20150601
머니투데이	성산일출봉, 서남향에서 보니 주둥이 긴 새머리네 성산일출봉의 모습이 그토록 다양하게 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의 모습은 보는 위치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주차장 쪽에서 본 성산일출봉은 바닥 넓은 청동대접을 엎어놓은 형상이다.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주둥이가 길고 머리가 납작한 새 머리 같고 왼쪽에서 보면 장갑 낀 주먹처럼 보인다. ..	20150514
한라일보	제주인의 노동 자연의 융합체 '돌담' 오랜 세월에 걸쳐 제주인들의 노력으로 쌓은 돌담의 의미는 오늘날 무엇일까. 자연,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제주돌담'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서로 제주인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돌문화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미술평론가 김유정씨가 제주의 자연과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제주의 돌담을 담은 글과 사진을 엮어 '제주 돌담'을 펴냈다.	20150514
세계일보	'성산 오조 지질트레일 길 열림 행사' 화산 바다 사람 모두 '한자리에' 이야기 품은 길 제주는 2010년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그중 성산일출봉은 한라산, 만장산, 우도 등과 함께 핵심지질 명소로 지정되어 세계지질공원(GGN)에 가입됐다. 이러한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관광상품인 지질트레일 네 번째 코스인 성산 오조 지질트레일의 명품 도보코스가 공개됐다.	20150504
한라일보	제주밭담 보전 활용 사업 탄력 받을 듯 제주도가 올해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보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농어업유산 위원회가 꾸려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된 농어업유산위원은 모두 20명으로 제주도가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2015042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기획/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주년– 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주년 (하) 밭담 보전관리 토대 마련 지속적인 관심 절실 제주도, 올해 체험테마공원 조성 밭담 축제 개최 중장기계획에 오는 2025년까지 324억원 투입 국비 확보 관건 주민 참여 경제활성화도 필요 올해부터 제주밭담의 보전 관리를 위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150402
중부일보	2015년 4월 1일자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 “광교신청사, 도민 부담 나누는 지방채 발행 옳아” 경향신문(서울) = ‘박범훈 사단’ 연수원 건립 때 ‘땅투기’ 국민일보(서울) = “혈세 낭비 · 공직 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 것” 동아일보(서울) = 엄마에게 날개를 서울신문(서울) = 관피아 원천봉쇄 복지부동 부작용 세계일보(서울) = “수십번..	20150401
한라일보	기획 1/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주년(상)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1주년 (상) 밭담 보전 활용 위한 새로운 전기 오랜 세월 제주농업 키워온 가치 인정 올해 테마공원 밭담축제 등 사업 윤곽 지난해 4월 1일이었다. 제주밭담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됐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제주 농업을 지켜온 밭담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은 것..	20150401
국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관광자원으로 변신 “길이가 지구 반바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밭담’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선보인다. 제주도는 제주 밭돌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14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농어업유산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밭담 문화축제 밭담 테마공원 조성 탐방로 시설 학술행사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 등을 추진한다.	20150311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브랜드 착수 테마공원 탐방로 축제 등 개최 지난해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밭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14억원을 투입해 밭담 테마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고 밭담 문화축제와 학술행사..	20150309
한라일보	“한라일보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보 등 11년 연속 선정은 전국 4곳 뿐 한라일보가 201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면서 11년 연속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록을 이어갔다. 전국에서 11년 연속 선정된 신문은 한라일보를 포함해 4개사뿐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우병동)는 27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중부매일을 비롯한 지방일간지 27개사와 지역주간..	20150128
한라일보	한라일보 전국 지역신문 중 대표 입증 한라일보가 201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면서 지역신문발전법이 시행된 첫 해부터 11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에 선정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20150127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제민일보	제민포럼=「제주밭담」의 역사 산책 제민포럼=「제주밭담」의 역사 산책 황인주 지난해 4월 제주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밭담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다행히도 열흘 전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특별법에 농어업유산을 정부가 지원하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밭담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밭담유산의..	20150123
한라일보	[편집국 25시]백 번의 말보다 필요한 것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러한 물음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난해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도 이 같은 물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년에 걸쳐 형성돼 오면서 제주농업을 지켜왔지만 밭담은 훼손되고 있다. 농업이 기계화되고 도시가 확산되면서 그 속도는 거세다. 한 예로 제주시 한경면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밭담의 길이가 ..	20150113
한겨레	'청산도 구들장' 보존 예산지원 길 확대 제주의 밭담과 해녀,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농어업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쪽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	20150113
한라일보	"밭담은 진정한 '협치 사례' 주민 참여 보전 활용전략 필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등보존가치 공감 활용 방안 모색 제주도 전역에 분포해 있는 밭담을 보전하기 위해선 지역 공동체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두배로! 제주의 가치를 두배로!'를 주제로 한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이 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150112
한라일보	"밭담은 진정한 '협치 사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해 있는 밭담을 보전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유산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밭담 보존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50109
한라일보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 제주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보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오는 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와 함께 '농어업 유산의 가치를 두배로! 제주의 가치를 두배로!' 를 주제로 한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	20150107

〈 2016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부산일보	경북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7호로 지정됐다. 30일 농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울진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울진금강송 숲 군락지와 함께 산지농업문화유산이 임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농업생산시스템 위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산림을 중심으로 한 임..	20161230
한라일보	내년 제주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건, 지역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신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관광을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 등 총 4건을 발굴해 지역발전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범위 내에서 국비기준 최대 3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발굴된 2017년 제주 행복생활권 선..	20161218
중부일보	[주말 제주권 가볼만한 곳] 세계 유일 감귤 전문 박람회 '제주감귤박람회' 세계 유일 감귤 전문 박람회 '제주감귤박람회' 세계 유일의 감귤 전문 박람회인 '제주감귤박람회'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감귤 품종과 가공제품, 농기계 등을 전시한다. 우수 감귤 경진대회와 감귤 요리 경연대회, 제주 감귤 국제마라톤대회, 감귤 조형물 콘테스트, 감귤 퀴즈대회, 감귤..	20161111
한라일보	한라일보 지역신문컨퍼런스 3년 연속 수상 한라일보의 NIE를 활용한 제주어 지키기('제주어지킴이기자단'이 떴다)가 2016 전국 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라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4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제1연수원에서 '2016 지역신문 컨퍼런스 독자의 힘, 지역의 힘'을 주제로 열..	20161106
한라일보	"고령해녀 위한 제주 '할망바당' 행정지원 무관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해녀를 위한 '할망바당' 조성 및 지원사업과 관련, 무관심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31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좌남수 위원(더불어민주당, 한경 추자면)은 "현재 고령해녀가 60%인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할망바당에 대한 지원은 종패 몇개 뿌리..	20161031
제민일보	제주관광 매력 알리는 파수꾼 제주관광 매력 알리는 파수꾼 [제민일보사 2016 제주관광대상 수상업체탐방] 특별상 부영심 '2016 제주관광대상' 특별상에 선정된 부영심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 유적, 축제 등 제주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파수꾼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11년째 제주관광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온 부영심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0161027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매일경제	주말 가을 정취 '물씬' 전국 곳곳 단풍 탐방객들로 북적여	20161023
	말 가을 정취 '물씬' 전국 곳곳 단풍 탐방객들로 북적여 전국 곳곳이 흐리고 간간이 비가 내렸지만, 단풍에 물들려는 탐방객의 들든 마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중부일보	[주말 제주권 가볼만한 곳] 제주올레 걷기축제 음식문화축제 이중섭예술제 나눔대축제	20161021
	제주올레 걷기축제 음식문화축제 이중섭예술제 나눔대축제 선선한 바람과 금빛 억새를 따라 걸으며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는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21 22일 열린다. 토요일인 22일에는 2코스를 역방향(온평포구광치기해변 14.5㎞)으로 걸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국민일보	'흑룡만리' 제주 밭담, 축제 명소로 용틀임	20161021
	한라산 자락 아래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검은 물결. 마치 용의 꿈틀거림이 끝없이 계속되는 형상을 보는 듯해 붙여진 '흑룡만리' 제주 밭담이 이색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제주도는 '천년의 밭담, 제주의 삶을 담다'를 주제로 22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밭담 테마공원에서 '제주밭담 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일보	제주 돌담 길이 지구 반바퀴 넘는다	20161019
	밭담 2만2,000㎞ 달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2~23일 제주 밭담 축제 검은색 현무암이 1만리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고 해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 불리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 밭담'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16 제주 밭..	
제민일보	제주밭담 축제 22일 팡파르	20161019
	'천년의 밭담, 제주의 삶을 담다' 주제 프로그램 풍성 제주도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제주밭담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제주밭담이 2013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한라일보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수강생 모집	20161005
	제주발전연구원의'제주밭담 6차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단'은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아카데미 사업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에서는 제주밭담 축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주밭담에 대한 전문지식, 현장 견학, 밭담 쌓기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라일보	제주 밭담과 산담으로 배우는 인문학	20160829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이순배)은 '제주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각 지역민과 지역 특색에 맞는 독서와 문화, 역사, 철학 및 기타 학문을 융합한 통섭형 인문학 강의 등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독서동아리 회원과 도서관 활동가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제민일보	제주밭담 활용 농촌 6차산업화 탄력 제주밭담 활용 농촌 6차산업화 탄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본격 추진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6차산업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20160816
경향신문	돌, 바람, 여자 때문에 '삼다도'라고? "제주도가 그냥 섬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즐긴다'는 목적으로서의 여행을 오는 이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즐기는 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섬이 되는 게 아니라, 파괴될 수밖에..	20160808
머니투데이	'물을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고을' "변해가는 제주는 제주가 아닙니다 시끄럽다. 외지인이 주인공인 듯하다. '바람, 돌, 해녀' 대신 맛집과 '올레길' 그리고 정체 모를 박물관, 땅값이 거론된다. 이쯤 되면 어디를 말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물을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고을' 제주다.그게 서글프다는 이가 있다. 그러다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김형훈 지음, 나무발전소 펴냄)라고 외쳤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라고 했듯..	20160729
한라일보	제주시, 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스타트' 제주시가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발전연구원과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가 대행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3개년간 이뤄지며 사업비는 모두 39억2400만원이 투입된다.	20160621
아시아경제	구례군, 세계농업유산(GIAHS)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한 중 일 농업유산 전문가들, 구례 산수유농업현장 방문하여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례 산수유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국제적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60621
한라일보	바람부는 메밀꽃밭으로 오세요 하얗게 피어난 메밀꽃은 아련한 향수를 전해준다. 오는 28~29일 서귀포시 성읍리 사이프러스 골프장 인근 보롬왓 일대에서 '제2회 보롬왓 제주 메밀밭 개방'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행사로 수년전부터 메밀농사를 짓고 있는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공동대표 홍은희 오승현) 농부들을 중심으로	20160524
한라일보	"지역 특화자원 활용한 신산업 발굴을"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회장 양광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제14차 서귀포시 미래발전 CEO 포럼'이 지난 20일 서귀포시내 엠스테이호텔 제주에서 경제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날 제주 출신의 오성익 국토교통부 과장(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총괄과장)은 '상생 소통 협력을 통한 품격있는 문..	2016052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중부일보	전기차엑스포, 국내외 145개 업체 참가 현대차 아이오닉 첫 선	20160318
	전기차엑스포, 국내 외 145개 업체 참가 현대차 아이오닉 첫 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이번 주말 전 세계의 각종 전기자동차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진행된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 스마트 그린시티'를 주제로 한 올해 전기차엑스포에는 전기차 관련 국내 외 145개 업체가 참..	
영남일보	비뚤배뚤 초록 봄 담은 밭담	20160311
	◆봄날의 가장 큰 울림, 밭담 봄바람은 '바늘'. 겨울엔 허공을 마구 찔러댄다. 봄이 되면 급강하해서 지구의 살갗(대지)을 마구 문질러댄다. 피가 송글송글 맺힌다. 그것도 '봄꽃'. 봄철이라면 제주공항 착륙하기 1분 전부터는 기내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려봐야 된다. 제주 상공에서만 제대로 조감할 수 있는 제주산 봄컬러가 있기 때문. 그 색은 ..	
파이낸셜뉴스	[여의나루] 어촌을 살리려면	20160310
	유엔 산하에는 많은 국제기구와 각종 유산제도가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소중한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해 인류의 삶과 생활을 윤택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산제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용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일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세계..	
한라일보	"사계절 담긴 제주밭담 한눈에 보세요"	20160306
	제주밭담의 사계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북이 발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밭담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주밭담 아카데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한라일보	"제주해녀 세계농업유산 등재 주민 참여가 전제"	20160107
	'액션플랜' 맞춰 브랜드 가치 높이는 과정 중요제주밭담 지정 사례 교훈 홍보 등에 집중 조언 제주도가 밭담에 이어 해녀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해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한 중 일 세계중요농업유산 워크숍..	

〈 2017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세계일보	하동녹차,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 경남 하동군의 하동녹차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결정을 받았다. 하동군은 하동 전통차 농업이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 선정에 이어 2년 만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로 1200여년을 이어온 하동녹차가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리산 하동의 전통차농업이 척박한 자연환..	20171214
경남도민일보	[아침을 열며]한국 농업의 반가운 소식과 반대의 현실 화개 골짜기의 녹차 농업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 방법과 생물 다양성, 전통농업지식 등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의 밭담 농업시스템이 등재되어 있는데 하동 화개골 녹차의 선정은 또 하나의 쾌거이며 반가운 소식이다.	20171206
광주일보	하동에 밀린 보성 녹차 그동안 뭐 했길래 흔히들 녹차 하면 보성을 떠올리게 되고 보성 하면 녹차를 떠올린다. 그만큼 보성의 녹차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녹차 산업은 지역 농가소득의 대표적 효자 종목이었다. 물결치듯 일렁이는 차 이랑과 아름드리 삼나무가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보성 녹차밭은 2013년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	20171205
광주일보	하동녹차 세계농업유산 등재 보성 녹차 위기 보성 녹차 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하동녹차가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서다. 녹차 경쟁력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군수 부재로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경남 하동군의 지역 전통 차(茶)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20171204
경남도민일보	[사설]하동 전통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하동 전통차 농업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다. 약 1200년 전 처음 뿌리를 내린 하동 전통차 농업이 마침내 인류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농업유산이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통농업의 가치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여는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1201
서울경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하동군 "척박한 환경 극복하고 대한민국 유산으로 자리잡아" 경남 하동군 전통차(茶)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극했다.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29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유산으로 자리 잡은 지리산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며 GIAHS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2014년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 ..	20171130
디지털타임스	하동 전통차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1200년 이어온 유산 1200년 전 신라 시대부터 전통차 농업을 이어온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다. 경남 하동군은 지역 전통 차(茶) 농업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하동 전통차 농업이 신라시대부터 1200여 년 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보전 계승해온 대..	20171130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서울신문	하동 녹차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한민국 차 시배지인 경남 하동군 지리산 일대에서 1200년 동안 이어온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에 이어 세 번째다.하동군은 2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신라시대부터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보전 계승되는 하동 전통차 농업을 전 세계가 보전해야..	20171130
부산일보	'하동 전통차 농업' 세계농업유산 등재 지리산 자락에서 1200년 역사를 이어온 경남 하동의 전통차(茶)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경남 하동군은 지역 전통차 농업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 국내 시설 세 번째 등재, 차 관련 산업 국내 최초, 하동茶 인지도 상승 기대	20171130
경남신문	하동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하동군의 전통차(茶)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동군은 지난 28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하동의 전통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하동 전통차 농업이 신라시대부터 1200여년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보전 계승해 온 대한민..	20171130
한국일보	하동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茶산업으론 국내 처음, 郡, 정금리 천년차밭, '관광휴양형단지' 조성 녹차 가공식품 개발도 추진 경남 하동군은 지역 전통 차(茶) 농업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FAO가 하동 전통차 농업이 신라시대부터 1,200여 년 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보전 계승해온 대한민국..	20171129
머니투데이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 10월말 현재 17개국 38개 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20171129
경남도민일보	하동 전통 차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하동 전통 차 농업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q)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하동군은 29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 전통 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으로 1200여 년간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계승해온 대한민국 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고 밝혔다.하동 전통 차 농업은 201..	20171129
아주경제	'하동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리산 화개지역에서 1200여년간 보전 · 계승해온 전통차농업이 전세계가 함께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개지역 하동 전통차농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2002년부터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	20171129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문화일보	하동 전통차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경남 하동의 전통차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하동군은 29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리산 자락의 하동 전통차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후 3년 만의 성과다.	20171129
제민일보	공동체 문화로 지속가능성 부각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활용에 있어 '생명력(viability)'과 '모범사례(Best Practice)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주문됐다. '제주해녀어업'이 어업유산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단위 연계와 차별 요인에 대한 전략적 ..	20171106
한라일보	제주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관광안내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광분야별 제주형 프리미엄 가이드를 양성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은 관광안내사의 풍부한 경험과 관광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관광객에게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안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20171105
제민일보	주말 제주지역 마을 축제 들썩 10월 둘쨋주 주말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축제가 풍성하게 열렸다. 중문동(동장 한인수)과 칠선녀축제위원회(위원장 고영민)에서 공동 주최한 2017 중문 칠선녀 축제가 13~15일 천제연폭포 일원에서 열렸다. 10년 만에 부활한 이번 행사는 '칠선녀 제주신화가 되어 하강하다' 등의 테마로 꾸려졌다. 같은 기간 제주시 고마로 거리와 삼성로 일원에서는 일도2..	20171016
한라일보	제3회 제주밭담축제 개막 '천년의 밭담 가치, 미래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하는 제3회 제주밭담축제가 14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 일대에서 개막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2014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밭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 유산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0171014
한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 밭담길 탐방 14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천년의 밭담 가치 미래로 이어가다' 주제로 제3회 제주 밭담 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길을 걷고 있다.	20171014
한국경제	농업유산의 '남다른 가치'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농업은 그동안 인간을 위한 식량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실해 왔다. 현대화 기계화 대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가며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뒤를 돌아보니, 주변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다	20171013
중부일보	[주말 제주권 가볼만한 곳] 세계중요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 칠선녀 신화 馬문화 축제로 재탄생 세계중요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 칠선녀 신화 馬문화 축제로 재탄생 세계중요농업유산 '흑룡만리 제주밭담', 천제연폭포에 담긴 칠선녀 신화, 말 문화 등 제주를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축제도 곳곳에서 열린다. 토요일(14일)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무소 앞 광장에서는 이 마을 주민과 4 ..	20171013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제민일보	제3회 제주밭담축제 14~15일 월정리서 개최 제3회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14~15일 '천년의 밭담 가치, 미래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업유산위원회(위원장 강승진)가 주관하는 밭담 축제에서는 밭담트레킹을 시작으로 도드락콘서트와 밭담 쌓기 대회, 굽돌 굴리기 대회, 밭담 푸드콘테스트, 밭담 골든벨 등 제주밭담과 돌문화..	20171013
한국일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을 아시나요 제3회 제주 밭담 축제 10월 14 15일 열려 '제3회 제주 밭담 축제'가 다음달 14일과 15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밭담 테마공원에서 열린다. 검은색 현무암이 1만리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고 해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도 불리는 제주밭담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과 세계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20170929
한겨레	돌의 섬 제주, 밭담축제를 아시나요? 돌의 섬 제주에서 밭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밭담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다음달 14~1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에서 제주도 농업유산위원회(위원장 강승진) 주관으로 제주밭담 축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밭담 축제는 제주밭담이 지난 2013년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 2014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	20170928
제민일보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세계유산' 제주를 빛나게 하는 '세계유산'을 미술로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릴레이 기획전이 마련된다. 갤러리비오톱(대표 김해곤)은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주의 유 무형 세계유산들을 주제로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제주세계유산'전을 개최한다. 제주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	20170927
헤럴드경제	한라 중산간은 '도보여행' 천국 뚜벅뚜벅 한걸음 '인생 힐링' 사려니숲길 먼물깍습지 머체왓숲 왕매 세계적 생태 보고 현무암 기암괴석 장관 정글 지나 초원 만나면 한가로이 말 풀 뜯고 곳곳 예술인 자연친화 건축물은 모두 작품 미술관 박물관도 즐비 흑돼지 볶음은 꿀맛	20170919
한라일보	제주 돌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할까 제주 돌문화경관 문화유산 가치 발굴조사 진행잣성 등 세 지역 압축해 탁월성 등 비교 분석중포르투갈 '피코섬' 스위스 '호상가옥'등 주목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포럼에서 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20170911
한국일보	"제주 돌담은 편안함 줘 시멘트 담과 차원 달라" 돌빛나예술학교 조환진 대표 사라져가는 돌담 보전 위해 수강생 교육 교본 제작에 힘써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제주의 돌은 진짜 보물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0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돌빛나예술학교에서 만난 조환진(44) 대표는 제주돌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그는 평생을 돌챙이(석공의 제주..	20170831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제민일보	"이런 로하스 보셨나요" 로하스박람회가 참관객 및 기업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기 적절한 트렌드를 반영하는가 하면 다양한 연령대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출상담과 효과적 상담양식을 활용한 실제 수출 거래 성사, 기업과 바이어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대 1 수출 ..	20170809
광주매일신문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제주올레 20코스 제주올레 20코스의 방향을 알려주는 간세 앞에서 김녕리 앞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본다. 쪽빛 바다와 울긋불긋한 지붕들이 다정하게 어울려 있다. 골목마다 높은 돌담들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돌담 안에는 제주도의 전통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현대화된 제주도에서도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남아있는 김녕리 골목길은 고향마을처럼 정답다.	20170718
영남일보	울진 금강송숲 생태테마관광지 조성 박차 울진은 청정 자연 속에서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고장이다. 여기에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 군락을 이룬 '울진금강송숲'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 도약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금강송숲은 자연 생태경관, 생물의 다양성, 목재 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선 숙종 때는 왕실의 황장봉산으로 지정됐다. 울진 금강송은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20170615
한라일보	제주밭담 이야기를 한 눈에 도록 스토리북 발간 세계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다양한 이야기가 한 데 담긴 도록과 스토리북이 제작됐다. 제주연구원 제주밭담기반구축사업단은 도록 '제주밭담'과 스토리북 '제주밭담 이야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FAO(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에 선정된 뒤 진행돼 ..	20170612
제민일보	밭담을 알면 제주가 보인다 흑룡만리 '제주밭담'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밭담에서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지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사진과 일러스트, 구좌 성산, 애월 한림 지역의 전설과 내력 등을 통해 정리됐다. 제주연구원 제주밭담기반구축사업단(단장 강승진)은 도록 '제주밭담'과 스토리북 '제주밭담 이야기'를 1000부를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	20170612
매일경제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그곳 새롭다 제주 밭담여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의 상공을 날고 있자면, 섬 위를 수놓은 다채로운 색의 조화에 눈이 즐겁다. 엉성한 도형 속에 마치 색칠공부라도 한 듯 칠해져 있는 유채꽃의 노란색과 청보리의 초록색, 수확을 마친 밭의 검붉은 흙의 색.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제주는, 마치 할머니가 천 자투리로 정성스레 꿰매어 만든 조각보 같다.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변하는 제주의 색..	20170503
한라일보	제주발전연구원 새로운 도약 선언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제주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 제주연구원은 2일 오전 11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이어 '제주발전연구원' 현판을 '제주연구원'으로 교체하는 현판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20170501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내일신문	봄 여행주간에 '제주'를 걷는다 5월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은 전국에서 할인 혜택과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봄 여행주간과도 맞물린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선뜻 떠날 수 있는 국내여행을 하기 좋은 때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갈등에 따른 중국의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적은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	20170426
매일경제	5월의 바다 영화관 제주 동쪽 해녀마을 기행 제주 하면 해녀를 떠올리게 되지만 막상 현지에서 해녀 물질 장면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다 운 좋게 목격된다 해도 한두 명, 많아야 열 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월부터 6월까지 제주 동쪽 바다에 가면 수십 명의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히 해녀 극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0419
한라일보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양성 초보과정 수강생 모집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밭담6차산업화사업 기반구축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밭담 관리전문인력양성 초보과정 아카데미 사업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카데미 수업은 제주밭담 축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에 대한 전문지식, 현장견학, 밭담 쌓기 등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서 운영될 예정이..	20170315
한국일보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경북 울진군이 금강송군락지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 군락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 연말쯤 정부추천을 받아 유엔에 신청한다는 복안이다. 임광원(67 · 사진) 경북 울진군수는 "울진금강송숲은 수탈의 역사 속에서도 국가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험난한 산간지역 주민들의 생활상과 역사, 문화를 오롯이 간..	20170228
세계일보	금강송 군락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찍고 '비상'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임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후 비상하고 있다. 울진군이 세계적 명품 숲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금강송 군락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때를 맞춰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다.	20170128
제민일보	설 즐길거리 토 일 월요일 모두 빨간 날이다. 대중가요 가사처럼 '월화수목~금금금'에 지쳐있는 직장인들에게 이번 설 연휴는 작정하고 쉴 수 있는 '꿀' 같은 기회다. 또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모처럼 쉬고 있는 부모님을 졸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민족 대명절인 만큼 설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손님맞이에 나선..	20170127
매일신문	울진 금강송 군락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전곡리와 북면 두천리 일대 1만4천188㏊의 금강송 군락지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임업유산 제1호)로 지정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청산..	20170126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영남일보	울진금강송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울진금강송이 최근 산지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에 새롭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 세월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울진은 태백준령을 낀 금..	20170125
영남일보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경북 1호 '국가농업유산' 지정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경북도 제1호)로 지정됐다. 산림을 중심으로 한 임업생산시스템을 유산적 가치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금강송숲은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와 북면 두천리 일대에 군락을 이루며 뛰어난 산림 생태 문화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경복궁 복원 시 이곳에서 140그..	20170104
매일신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국가농업유산에 지정 경북 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유산자원 복원,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상북도는 3일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경상북도 제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전곡리, 북면 두천리 일대 1만4천1..	20170104
제민일보	서귀포시, 농업 경쟁력 강화 806억 투입 서귀포시는 2017년 한 해 농업 4개 분야에 806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우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희망의 농업을 만들기 위해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 현대화 11개 사업, 성목이식사업, 토양피복사업 등 29개 사업에 505억원을 집중 투자해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밭작물은 지역별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	20170104
한라일보	서귀포시, FTA 대응책 감귤 등 4개분야 800억원 투자 서귀포시는 FTA 등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감귤, 밭작물, 친환경, 6차산업 등 4개분야에 806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귤은 소비자가 스스로 찾고 신뢰하는 고품질 브랜드 감귤을 만들기 위해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 현대화 11개사업, 성목이식사업, 토양피..	20170103
한겨레	울진 금강소나무 국가농업유산 지정 북 울진의 금강 소나무 숲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2일 "울진 금강송 숲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강송 숲은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전곡리와 북면 두천리 일대 141.88㎢에 이른다.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이뤄진 농림부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20170102

〈 2018년 '제주밭담' 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세계일보	1000년 이어온 장흥 '청태전' 가치 인정받았다 1000년의 전통을 가진 전남 장흥의 발효차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12호)으로 지정됐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태전은 야생 녹차를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수확해 1년 동안 자연 발효시킨 녹차다.	20181203
강원일보	[언중언]강원도 없는 농업유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고리타분하다. 식량안보, 식량전쟁이라는 말이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4%(2017년 기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북한보다도 자급률이 적은 데다 국제곡물유통망도 없어 식량위기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니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식량 문제는 지구적 과제다. FAO(..	20181201
동아일보	[드론으로 본 제주 비경]지층이 물결치는 듯 '화산학의 교과서' 수월봉 페이스트리 빵의 얇은 겹처럼 여러 지층이 쌓여 물결치는 듯한 모양이 독특하다. 자갈, 어른 주먹보다 큰 돌 등이 층리에 박히기도 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사진). 여러 오름(작은 화산체) 가운데 하나지만 높이 70m 정도의 해안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쇄설층(천연기념물 제513호)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암석 ..	20181123
동아일보	[드론으로 본 제주 비경]선사시대 비밀 담겨있는 '화산학의 교과서' 수월봉 페이스트리(pastry) 빵의 얇은 겹처럼 여러 지층이 쌓여 물결치는 듯한 모양이 독특하다. 자갈, 어른 주먹보다 큰 돌 등이 층리에 박히기도 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여러 오름(작은 화산체) 가운데 하나지만 높이 70m 정도의 해안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쇄설층(천연기념물 제513호)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	20181122
제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 밭담길' 걷기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 밭담 기반구축사업단은 '2018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길 걷기 행사'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3일에 개최되는 밭담길 걷기 행사는 애월읍 수산리 '물메 밭담길'에서 한림읍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까지 마을해설..	20181026
부산일보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해야" 현재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9개 중 4개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은 세계유산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0181001
충청일보	국가중요어업유산, 세계 유산 한 건도 없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유산은 절반가량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단 한 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 제출받은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업은 9개, 어업은 5개가 각각 국가중요농업 · 어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울릉 화산섬 밭농업	20180930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서울경제	"다같이 돌자 제주 밭담길"	20180916
	16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에서 열린 제4회 제주 밭담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진빌레 밭담길을 걷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렸다.	
한라일보	제주 천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	20180916
	'제주밭담축제'가 15~16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한 밭담축제는 '천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	
제민일보	"서늘한 가을맞이 제주밭담에서 즐겨요"	20180914
	하늘 위에서 제주도를 바라볼 때 검은색을 띤 형체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그 모습이 흑룡과 닮았다해 '흑룡만리'라 불리는 '제주밭담'이다. '제주 밭담'을 따라 걷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아름다운 가을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맞춰 가을 정취를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있다.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국민일보	탐라의 오랜 땀, 눈부신 대지 예술로 피어났다	20180912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할 즈음 창밖을 바라보면 한라산 자락 아래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검은 물결을 볼 수 있다. 마치 용의 꿈틀거림이 끝없이 계속되는 형상을 보는 듯하다. 이름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 검은색을 띤 현무암으로 만든 밭담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모습이 흑룡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흑룡만리로 일컬어지는 '제주 밭담'은 2013..	
제민일보	"천년의 밭담 가치 함께 읽어요"	20180911
	제주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15~16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주밭담축제'는 '천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제주밭담축제'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	
동아일보	'제주 밭담 축제' 15일부터 이틀간 열려	20180910
	화산섬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무암을 얼기설기 쌓아 놓은 밭담을 소재로 한 축제가 펼쳐진다. 제주도와 제주도농어업유산위원회(위원장 강승진)는 '천 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주밭담축제를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등에서 개최한다.	
한국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 밭담'을 걷다	20180909
	제주밭담축제 15일 개막, 독특한 농경문화 체험 기회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인 제주 밭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제주밭담축제'가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열린다. 검은색 현무암이 1만리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흑룡을 닮았다고 해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도 불리는 밭담은 국가중요농어업유..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밭담축제’ 15~16일 월정서 개최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15~16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하는 밭담축제는 ‘천년의 밭담 그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20180909
제민일보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위해 민관 뭉친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15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5일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도내 15개 기관 단체 간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은 JTO를 포함해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20180906
한라일보	지속가능 관광 위해 15개 기관 뭉쳐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15개 기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관광공사는 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제주연구원 6차 산업화 지원센터와 제주밭담 6차 산업화 사업 기반 구축사업단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	20180905
중부매일	충청권 유일 세계중요농업유산, 국비지원 ‘빈약’아쉬워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인삼작목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지만 국비 지원이 빈약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는 각각 10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국제적 공신력을 갖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는 최소한의 보존관리 예산만 지원하는 ..	20180902
광주매일신문	월정리맛집 제주도흑돼지전문점 곱들락 제주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9월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제주밭담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농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한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는 낮은 평탄지를 이루며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반달모양의 해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제주공항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교..	20180828
한라일보	예래생태마을축제에서 제주 해녀축제까지 제주섬에 생채기를 낸 태풍이지만 그 덕에 폭염이 한풀 꺾였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대는 날이 머지 않았다. 이 때쯤이면 제주 곳곳에서 가을축제가 열려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9월 한달 열리는 축제 일정을 소개한다. 9월 1~2일에는 서귀포시 예래논짓물 일원에서 예래생태마을 체험축제가 열린다. 9월 1~22일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	20180825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밭담축제서 제주 가을 만끽하고 농경문화 체험 9월15~16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공원에서 열리는 제4회 제주밭담축제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밭담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농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하고 KCTV제주방송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행사다. 제주의 아름다운 가을 자연과 독특한 농경 문화 체험, 밭담쌓기와 굽돌굴리기 등 경연, 마을 주민들이 제주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20180824
제민일보	2018 제주밭담축제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공원에서 열린다. 22일부터 사전 참가 신청과 자원봉사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제주밭담축제는 제주도와 제주도농업유산위원회가 주최한다. 축제는 제주의 아름다운 가을 자연과 독특한 농경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밭담 쌓기와 굽돌 굴리..	20180824
헤럴드경제	제주의 가을은..메밀꽃-밭담-오름 3색 로맨스 밭담에 아침해 걸릴때, 너도나도 '미스터션샤인' 제주식 메밀꽃 필무렵, 에코파티-고등어 먹방 이중섭은 왜 제주 와서 화풍이 바뀌었나 탐구도 해녀 처럼 항일투쟁 윤동주의 '별' 보는 천문과학관 제주관광공사, '비짓 제주' 통해 9월 여행지 추천	20180820
한겨레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형상 거석 숨쉬고 섬사람 피눈물 밴 4 3성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의 시 〈풀꽃〉처럼 제주의 돌담도 그렇다. '돌의 나라' 제주도답게 오래 볼수록 질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돌담이 곳곳에 있다. 제주의 밭과 밭 사이에 난 밭담과 잣담에서 제주의 애환을 만난다면, 환해장성과 4 3성담에서 제주 사람들의 역사를 느끼고, 산담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20180814
한겨레	돌의 나라 제주 탐라 만리장성 제주는 돌의 나라다. 구멍 숭숭 뚫린 검은 현무암을 품은 제주의 색은 투박하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할 즈음 창밖을 내려다보면 푸른 대지와 들녘 위에 밭과 밭을 가르며 휘어지기도 하고, 곧게 뻗기도 한 선들이 보인다. 돌담이다. 제주도가 다른 지방과 다른 건 제주도 곳곳을 선과 선으로 잇는 돌담이다.	20180814
한라일보	제주 2020년 세계지질공원총회 제주 유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에 열릴 예정인 제9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에 나섰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날달 30일 제9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개최 제안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총 5억원 이상의 행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지질 및 지질공원 전문가, 행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조직 및 지원팀을 ..	20180805
헤럴드경제	제주의 '다크호스', 하도 · 안덕 · 쇠소깍의 숨은 매력 안식처로 돌아가는 해녀들 가장 제주스럽고, 즐겁고, 때 묻지않은 제주 북동의 하도리(구좌)는 해녀 생활문화, 청정 생태, 레포츠, 박물관 등 '가장 제주 다운 것들'을 모두 모아둔 곳이다. 남서의 안덕(감산,대평리)은 산과 계곡이 해변까지 다가와 파란만장 제주 지질을 보여준다. 얼핏 천인단애의 강원도 동해안이 닮..	20180725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충청일보	“금산 고려인삼 대표지역 관리 지원 절실” 최근 인삼작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유학열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319호에서’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치는 500년 이상 ‘회복’, ‘순환’, ’공생’이라는..	20180722
중부매일	금산인삼, 체계적 관리 지원 절실 최근 인삼작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유학열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319호에서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치는 500년 이상 ‘회복’, ‘순환’, ‘공생’ 이라..	20180722
충청투데이	금산인삼농업 역사와 전통, 세계가 인정하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확정인삼 작물로 세계 최초 등재 쾌거다양한 재래종자 보유 보전 인정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금산인삼 농업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전 세계가 함께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180710
세계일보	금산전통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됐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2~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 심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인삼 농업이 5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 유산의 가치성 등을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180709
대전일보	금산인삼농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확정 [금산]금산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 심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유산의 가치성을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5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 전 세계가 함께 보전해야 할 가..	20180709
충청일보	금산인삼농업 전통성, 세계가 인정했다 충남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지난 7월 2~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 심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유산의 가치성을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20180709
헤럴드경제	금산 전통인삼농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세계 최초 인삼 품목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세계 최초 인삼 품종으로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 시스템, 생물 다양성과 전통 농업 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를 운영 중이..	20180708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중도일보	경북 울진군,'국가중요농업유산 해설사' 44명 탄생 경북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금강송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울진금강송 국가중요농업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식이 최근 울진고우이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울진금강송 국가중요농업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선정된 울진금강송 숲과 마을 등을 방문하는 탐방객들과 관광객들의 가이드 역할을 위한 해설사..	20180703
제민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존 앞장 재외광주 호남제주도민회(회장 현금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여성회원 18명과 고향 제주를 찾아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존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제주 추억 만들기' 행사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재외광주 호남제주도민회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변의 밭담을 정리하고 올레 탐방객에게 제주밭담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 밖에도 4 3평..	20180626
한라일보	원희룡 10일 주말 막판 구좌~조천~화북 릴레이 유세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6시 제주시 구좌하나로마트 앞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조천 화북지역을 잇따라 찾고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농업인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구좌지역 거리유세..	20180610
부산일보	SPC그룹, 하동군과 녹차 공급 협약 (MOU) 체결 SPC그룹은 경남 하동군과 녹차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은 지난 19일 경남 하동군청에서 업무협약식(사진)을 진행했다. 이를통해 파리크라상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될 만큼 품질을 인정 받는 하동 녹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지역 농가는 안정된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	20180521
경남도민일보	하동 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 받아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군 화개지역 전통 차농업이 차(茶)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공식 지정서를 받았다.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가 지난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포럼에서 '화개지역 하동 전통 차농업'을 소개하고, un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받았..	20180423
동아일보	하동 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 받아 경남 하동 녹차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돼 인증서를 받았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지리산과 섬진강변인 화개면 일대의 '전통 차(茶) 농업'이 그 주인공이다. 하동군은 22일 "윤상기 군수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포럼에서 화개지역 하동 전통 차 농업을 소개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	20180423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경남신문	하동 전통 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됐다 1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군 화개지역 전통 차농업이 차(茶) 분야로는 국내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공식 지정서를 받았다.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가 지난 2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포럼에서 '화개지역 하동 전통 차농업'을 소개하고, UN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받..	20180423
서울신문	하동 전통차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전통차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IAHS 국제포럼에서 전통차농업에 대한 GIAHS의 공식 인증서를 전달했다. FAO는 2002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 시스템과 생..	20180421
부산일보	화동 화개면 전통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국제포럼에서 '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독창적인 농업시스템이나 전통적인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200..	20180420
부산일보	하동 야생차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차 분야 국내 최초 1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 하동군 화개지역 전통 차 농업이 차(茶) 분야로는 국내 처음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공식 지정서를 받았다.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는 FAO가 2002년부터 시작한 농업유산 지정 제도로,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 다양성, 전통지식체계와 문화, 경관 등을 보전하고 그 가치가 풍부한 지역을 인..	20180420
머니투데이	'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 국제 공인인증서 받았다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포럼 열고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수여] 지난 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된'하동 화개면 전통차농업'이 최근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IAHS 국제포럼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GIAHS..	20180420
문화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관광자원 역할 톡톡 바람 막고 생물다양성 보전 농촌문화 체험 테마로 주목 제주농업의 버팀목인 '제주 밭담'(사진)이 농촌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제주 밭담을 활용해 농촌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제주도는 올해 제주 밭담에 대해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	20180402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헤럴드경제	봄꽃 피는 수목원에서 제주 '커피와인'의 향기 제주산 커피생두+화산수 조합 세계 첫 특허도 '제주커피수목원'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중에 그린 '세한도'의 현장인 대정현이 손에 잡힐 듯하고, 산방산이 한눈에 드는 그런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주 6차산업 명소' 취재 차 찾아 간 지난 달 28일, 농장 사방엔 이미 유채꽃이 만발했고 갖가지 농작물이 푸르..	20180402
헤럴드경제	"꽃피는 커피수목원에서 커피와인 한잔 어때요" '제주커피수목원' 김영한 대표 제주산 커피생두에 화산수로 만든 커피와인 세계 첫 특허 [제주(서귀포)=황해창 기자]'제주커피수목원'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중에 그린 '세한도'의 현장인 대정현이 손에 잡힐 듯하고, 산방산이 한눈에 드는 그런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주 6차산업 명소' 취재 차 찾아 간 지난 달 28일, 농장 사방엔 이미..	20180402
머니투데이	제주, 커피와인 밭담체험 등 6차산업 메카 '부상' [정부 지자체 농민 협업 통해 6차산업 생태계 구축 "농촌 농업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기여"] 제주커피수목원 김영한 대표가 커피생두를 발효한 와인 체험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서귀포=민동훈 기자 #"농업도 이젠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도시인들이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0401
아주경제	'커피로 와인 만들기' 기회의 농업, 관광도 농가소득도 잡았다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등 65권의 책을 펴낸 작가 김영한(71)씨는 제주도에서 커피로 와인을 만들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제주커피수목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커피와인과 커피꼬낙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김영한 씨는 "농업도 이젠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도시인들이 체험 등..	20180401
조선일보	제주 우도 소라 맛보러 오세요 '섬 속의 섬' 제주도 우도에서 다음달 6~8일 소라축제가 열린다. 제주도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우도 소라축제는 천진항을 중심으로 소라 등 우도의 특산물과 자연경관, 향토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20180328
한라일보	제주밭담은 경작지의 토양이다농협 제주밭담은 경작지의 토양으로써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축조되며 제주밭담과 관련된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차별성과 규모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 처음으로 운영한 돌문화 체험하기 제1기 교육의 일환으로 고미선담당자의 인솔로 40명의 제주시민 및 관광객..	20180316
제민일보	농협 제주본부 전국 최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농협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자격은 만 20 40세 미만인 자로 △조합원 △조합원자녀로 농업승계 예정..	20180314 20180314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한라일보	제주농협 전국최초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이뤄진다. 교육생 자격은 만 20 40세 미만인 자로 ▷조합원 ▷조합원자녀로 농업승계 예정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20180313
한국경제	지난한 세월 견뎌온 제주 밭담,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다 층층이 쌓여 있는 돌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외롭지 않게 서로 엉겨 붙어 얼마나 지난한 세월을 견뎌 왔을까. 캔버스에 담긴 하나의 풍경으로서 검고 거친 현무암이 서 있는 듯했다.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화산섬, 제주도에는 '흑룡만리(黑龍萬里)'가 있다. 이름에서부터 위용이 느껴지는 '흑룡만리'의 정체는 들녘을 가득 채운 제주 밭담..	20180302
머니투데이	제주동색 어디엔들 색깔 없는 세상이 있을까만, 제주의 색이 특별한 이유는 한겨울에도 초록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가 만드는 과학적 현상일 뿐이지만 그것이 눈 내린 순백, 흑룡만리 밭담, 감성 뚝뚝 떨어지는 동백과 어우러지면 초현실적인 감동을 준다. 그리고 제주가 묻는다. 당신의 삶은 단순한가?	20180227
한라일보	제주 구좌읍, 오래된 해녀문화와 개성강한 마을의 공존 오래된 해녀 문화와 제주 관광의 명암이 공존하는 곳. 제주도와 제주도문화원연합회(회장 신상범)가 제주도 읍면별 역사문화지 중에서 10번째로 펴낸 '구좌읍 역사문화지'를 보면 제주시 구좌읍의 오늘이 그렇게 읽힌다.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구좌읍은 삼각형에 가까운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동복리에서 종달리까지 12개리가 흩어져 있고 빼어난	20180212
제민일보	밭담 도내 전역으로 이어져 # 밭담의 성지 제주 동부 화산섬인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토(火山灰土)가 대부분으로 돌이 많아 농사를 짓기 힘들고. 그렇기에 돌을 골라내 쌓아둔 것이 밭담이 되었다. 제주지역 실제 밭담의 총 길이는 2만2108㎞로 만리..	20180209
한라일보	한라일보 신문발전기금 지원 제주 '최다'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201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며 13회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역신문사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한라일보 등 일간지 26개사와 주간지 42개사 등 68개를 선정, 19일 발표했다.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원년 지원대상사인 한라..	20180119
조선일보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 울릉도의 화산섬 밭 농업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됐다.국가중요농업유산은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랜 기간 형성돼 온 유 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국가가 지정한 자원이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담양 대나무밭, 금산 인삼, 하동 전통차, 울진 금강송, 부안 양잠 등 8..	20180115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세계일보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울릉군은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9호로 지정 확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울릉군 일원 72.86㎢로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 신청한 이후 3개월여에 걸쳐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최종 결정됐다.	20180104
한국일보	울릉도 화산섬 밭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화산섬인 경북 울릉군의 밭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지정 신청 후 석 달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쳤다. 울릉군의 화산섬 밭 면적은 72.86㎢이다. 농림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 · 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높은 유산이 지정된다. 지금까지 전국적에서는 전남 청산도 구들장논, 제..	20180103
중도일보	전북 최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도가 3일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전통양잠농업이 전국에서 8번째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6년 8월 농식품부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신청했으나 자원미비로 미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3년 15억)에 공모 선정돼 자원 발굴 및 전통잠실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및 부안..	20180103
세계일보	전북 ‘부안 유유동 전통양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전통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3일 유유동 전통양잠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전통방식의 누에 사육까지 일괄 시스템을 현재까지 잘 전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됐다. 유유동 양잠업은 마을 농가수(54가구)..	20180103
세계일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된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9호로 지정 확정 됐다고 4일 밝혔다.	20180103

〈 2019년 '제주밭담'관련 기사 제목 및 주요 기사 내용 〉

언론사	제목 및 주요내용	일자
국민일보	애달픈 사연 품은 홍천 은행나무숲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 1년에 오직 한 달만 개방되는 '홍천 은행나무숲'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 홍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공모사업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홍천 은행나무숲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0627
한겨레	강원 홍천군, 국내 최대 은행나무숲 '중요농업유산' 신청 오직 10월 한 달 동안만 개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나무숲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강원도 홍천군은 최근 내면 광원리에 있는 은행나무숲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20190626
부산일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보유 16개 지자체 행정협의체 구성 지난 20일 하동군 화개면 켄싱턴 리조트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16개 자치단체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동 야생차농업, 제주 밭담, 남해안 죽방렴 등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보유한 국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	20190521
경향신문	제주 마을공동목장 제주에는 '중산간(中山間)'이라는 독특한 지대가 있다. 완전한 산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변은 더더욱 아닌 어중간한 산간인 곳이다. 이 중산간 마을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장들이 있다. 이곳에는 원래 고려시대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조랑말을 기르던 '탐라목장'이 있었다. 조선 숙종 때에는 이곳을 10개의 목장으로 확대 개편해 2만여필의 말을 길렀다.	20190507
한라일보	밭담 쌓고 밭담길 산책 아이들과 제주밭담 여행 제주밭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펼쳐진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끌로드,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돌빛나예술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머들이의 밭담 여행'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밭담을 통해 만 4~5세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밭담의 연원인 판관 김구 이야기, 흑룡만리 밭담길 협동화 그리기, 밭담 쌓기 체험, 노동요 ..	20190503
한국일보	제주마을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될 듯 난개발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제주마을공동목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도내 마을공동목장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2022년까지 총 20곳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따른 연장선이다.	20190428
경향신문	제주 '마을공동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 검토 제주에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주도록 정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농어업유산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었다.	20190428
동아일보	세계농업유산 '제주 밭담' 관광자원이 되다 1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중동회관. 제주산 흑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파스타와 간장덮밥 요리는 익숙한 듯 독특했다. 파스타는 매콤했고 간장덮밥은 한 끼 요리로 부족함이 없었다. 가격에 비해 맛이나 양에서 만족감을 줬는데 밑반찬으로 나온 당근샐러드, 무 피클, 으깬 감자샐러드에 자꾸만 손길이 갔다.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 건강하고 신선한 맛이었다..	20190320

참고문헌

논문/단행본

강승진(2016) '제주밭담' 국가(KIAHS) 및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지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고성보(2007)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밭담의 경관가치 평가', 농촌계획 Vol 13. No 4

고성보 · 강정효 · 최용복 · 양진철,(2009), 제주의 돌담: 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 방안, 제주대학교출판부).

설유경, 원소영(2017) "근대 이전 건축에 나타난 매슬로우 인간 5대 욕구에 따른 건축의 발전 방향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7권 제2호(통권 제68집)

임정우(2018) 농업유산적 관점으로서 제주 밭담 경관 특징에 대한 연구

임진강. (2017). "제주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밭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명철, 문효연, 김미희, (2014), 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농촌 무형유산 분류체계연구, 농업사 연구구 제 13권 1호

최용복(2006)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농촌계획, 12(3) 57–65

한숙영. (2015).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연구논총 17(3)

Buzinde, C. N., Santos, C. A., & Smith, S. L. (2006). Ethnic representations: Destination image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3), 707–728.

Chon, K. S., & Olsen, M. D. (1991). Functional and symbolic congruity approaches to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in tourism.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Hospitality Research, (3), 2–22.

Drost, A.(1996) Developing sustainable tourism for world heritage sit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479–484

Hou, J. S., Lin, C. H., & Morais, D. B. (2005). Antecedents of attachment to a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The case of Hakka and non–Hakka Taiwanese visitors to Pei–Pu, Taiwa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4(2), 221–233.

Hwang, S. N., Lee, C., & Chen, H. J.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ts' involvement, place attachment and interpretation satisfaction in Taiwan's national parks. Tourism Management, 26(2), 143–156.

Kolar, T., & Žabkar, V. (2009). Perceived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sites: towards an integrative conceptual model.

Kozak, M. (2003). Measuring tourist satisfaction with multiple destination attributes. Tourism Analysis, 7(3–4), 229–240.

King, L. M. and Halpenny, E. A.(2014). Communicating the World Heritage brand: visitor awareness of UNESCO's World Heritage symbol and the implications for sites, stakeholders and sustainable manage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2(5):768–786.

Maslow, Abraham.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Michael R. Hagerty. (1999) "Testing Maslow's Hierarchy Needs National Quality–of–Life across Tim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ume 46, Issue 3, pp 249 – 271

M.Joseph Sirgy. (1986) "A Quality-of-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a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Sociology, Vol. 45 Issue 3 pp329–342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0–469.

Prayag, G., & Ryan, C. (2012). Antecedents of tourists' loyalty to Mauritius: The role and influence of destination image, place attachment, personal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3), 342–356.

Ramkissoon, H., Weiler, B., & Smith, L. D. G. (2012). Place attachment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in national parks: Th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2), 257–276.

Ryan, J. and Silvanto, S. (2009). The World Heritage List: The making and management of a brand. Place Branding and Public Diplomacy. 5(4): 290–300.

Tonge, J., Moore, S. A., & Taplin, R. (2011). Visitor satisfaction analysis as a tool for park managers: A review and case study. Annals of Leisure Research, 14(4), 289–303.

Turnbull, B.(1976), "The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with Arbitrarily Grouped, Censored Truncated Data", J. Roy. Statist. Soc. Ser. B38 : 290–295

UNESCO (1994a).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UNESCO (1994b).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UNESCO (1999).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999, UNESCO.

Convention 1994, UNESCO.

UNESCO/ICCROM/ICOMOS/IUCN (2011). 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2nd Ed.), UNESCO.

WILLIAM M. REISINGER, ARTHUR H. MILLER, VICKI L. HESLI AND KRISTEN HILL MAHER, 1994, "Political Values in Russia, Ukraine and Lithuania: Sources and Implications for Democracy BJ.Pol.S. 24, 183–223

Yoon, Y., & Uysal, M. (2005).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a structural model. Tourism management, 26(1), 45–56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보고서(1~3차년도), 2013~2015

세계식량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심사기준, FAO GIAHS Criteria

제주관광공사, 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실태조사"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GIAHS 등재 신청서, 2013

흑룡만리 제주밭담 GIAHS 신청서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he dynamic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http://www.fao.org/docrep

「A Scientific Conceptual Framework and Strategic Principles for the GIAHS」, http://www.fao.org/docrep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Notes and guides in assessing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http://www.fao.org

「Globally Important Ingenious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An examination of their context in existing multilateral instruments」, http://www.fao.org

「Globally Important Ingenious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GIAHS): An Eco–Cultural Landscape Perspective」, http://www.fao.org/fileadmin

홈페이지/웹페이지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fao.or.kr

제주밭담 http://www.jejubatdam.com

통계청 kostat.go.kr

Abstract

The Agricultural Heritage Value of FAO GIAHS BATDAM Agricultural System and Expansion of Its Social Knowledge

Wonhee K. You, Yura Jin, Sejin Seo

Keywords : Jeju Batdam, FAO GIAHS, Agricultural Value, Social Knowledge

Jeju Batdam has been around us over one thousand years, reflecting the traces of Jeju agricultural life.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UN FA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GIAHS)" in 2014 after meeting the five clear and distinctive criteria and conditions of UN FAO.

The significance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includes the old life style in Jeju, history of Jeju people and agro-culture of Jeju which then requires our sound conservation/management/utilization thru the long-term project list. The sociologic value of Jeju Batdam landscape, reflecting Jeju's philosophy, history, culture, life path, indigenous farming knowledge and skills against the island's barren environmental condition since the island birth about two million years ago could enhance its value by sharing its content and importance in today's trends.

The study objects to confirm and display the followings. First, to bring out significance of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in "Food Security and Livelihoods" functions and to draw out significance of inherent value of Jeju resources to spread the value and culture of Jeju around Batdam fences.

Second, to link Jeju's traditional farming culture, skills and indigenous knowledge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to the fundamental socio-philosophy of Jeju, share the value with other FAO GIAHS sites which then will help to establish global Jeju identity for our future generation to look upon.

Third, to expand the social value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within the uniqueness of Jeju cultural landscape and farming culture and offer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 to acknowledge the significance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Fourth, the study will evaluate the perceived knowledge and promotion level of Jeju life history, culture, knowledge system and uniqueness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The study successfully confirmed Jeju people's passion in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and to share the value of farming and living culture. The interviews and survey also found people of Jeju want to share the functions of Jeju Batdam, culture and wisdom of fore-farmers and ancestors of Jeju.

The responsibility and roles for Jeju society for 'value enhancement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includes the followings. First, prompt education program and hands-on experience program are essential to be developed for all age groups or in generation-sectoral grouping for correct promotion and its value expansion.

Second, an effective tourism product and program should be developed on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Current Jeju Batdfam Festival, Jeju Batdam Village Formation Project, Batdamgil trail establishment are being developed but only with temporary and short interest retention impact. Further content development is needed for Jeju Batdam Festival around Jeju Batdam farming culture.

Third, global-visitor-friendly content is a must to be worked on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Current Batdam web-page is operated in Korean and UTUBE video clip is limited to meet global interest in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Information exchange and joint development of academic content and promotion program in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and also share of the developed value and contents among other FAO GIAHS sites, East Asia Regional Agricultural Heritage System(ERAHS), Italy Agricultural University and UN University are most essential to be progressed immediately.

The lower cost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to expand the value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Foreign visitor oriented tourism course and hands-on program around Jeju's unique agricultural development would be an additional ideal approach for value expansion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In conclusion, more and further studies in the value expansion of FAO GIAHS 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are essential to be progressed.

연구진

연구책임	유 원 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수료
공동연구	진 유 라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서 세 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

제주학연구 60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농업시스템 내 제주농업문화의 유산적 가치와 사회적 인식 확산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17-5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